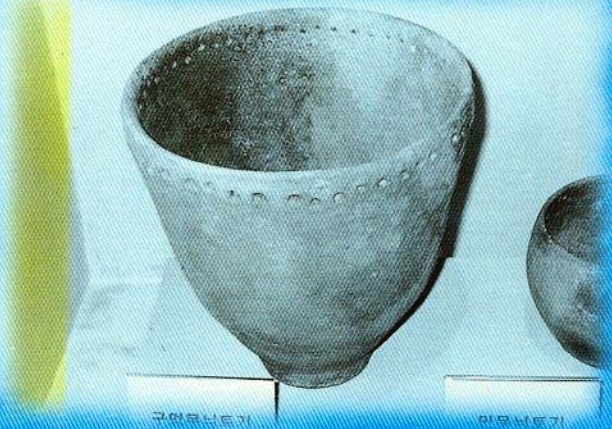


속초문화

1998 · 제14호



속초문화원



속초 명물 '갯배' 플라스틱 선으로 교체 40여 년 실항민의 애환을 실었던 목선은 일생을 마치고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된 갯배



목선이었을 때의 갯배

속초시 중앙동과 청호동을 잇는 '나룻배'를 '갯배(도선 渡船)'라고 부르며 '도선장'을 '갯배머리'라고 한다. 이 갯배는 뗏목 형태로 긴 철선 두 가닥을 매어 놓아 철선 하나에 각각 배를 1대씩 고정시켜 갈구리를 철선에 걸어 당기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운항 방법의 하나이다.

1952년 속초의 수복 이후 고성군 봉수리(현재 북한)에서 월남한 '조막손'이라고 부르던 김씨(金氏) 성을 가진 이름모를 노인이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소위 갯배를 만들어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이어 주는 교통 수단으로 트이어 뱃삐를 받았던 것이 시초이다.

이곳 실항민 애환의 상징으로 주목을 받아온 목선(木船) 갯배가 40여 년의 수명을 마치고 지난 6월 27일 강화 플라스틱(FRP) 선으로 교체되었다.

실용성에 의해 교체된 플라스틱 갯배의 규모를 보면 길이 7.6m, 폭 3.9m, 무게 6.47톤, 깊이 0.8m, 승선 인원 20명으로 2대가 시비 4천만원으로 건조되어 운행하고 있다.

· 표지 1~4 글·사진 / 박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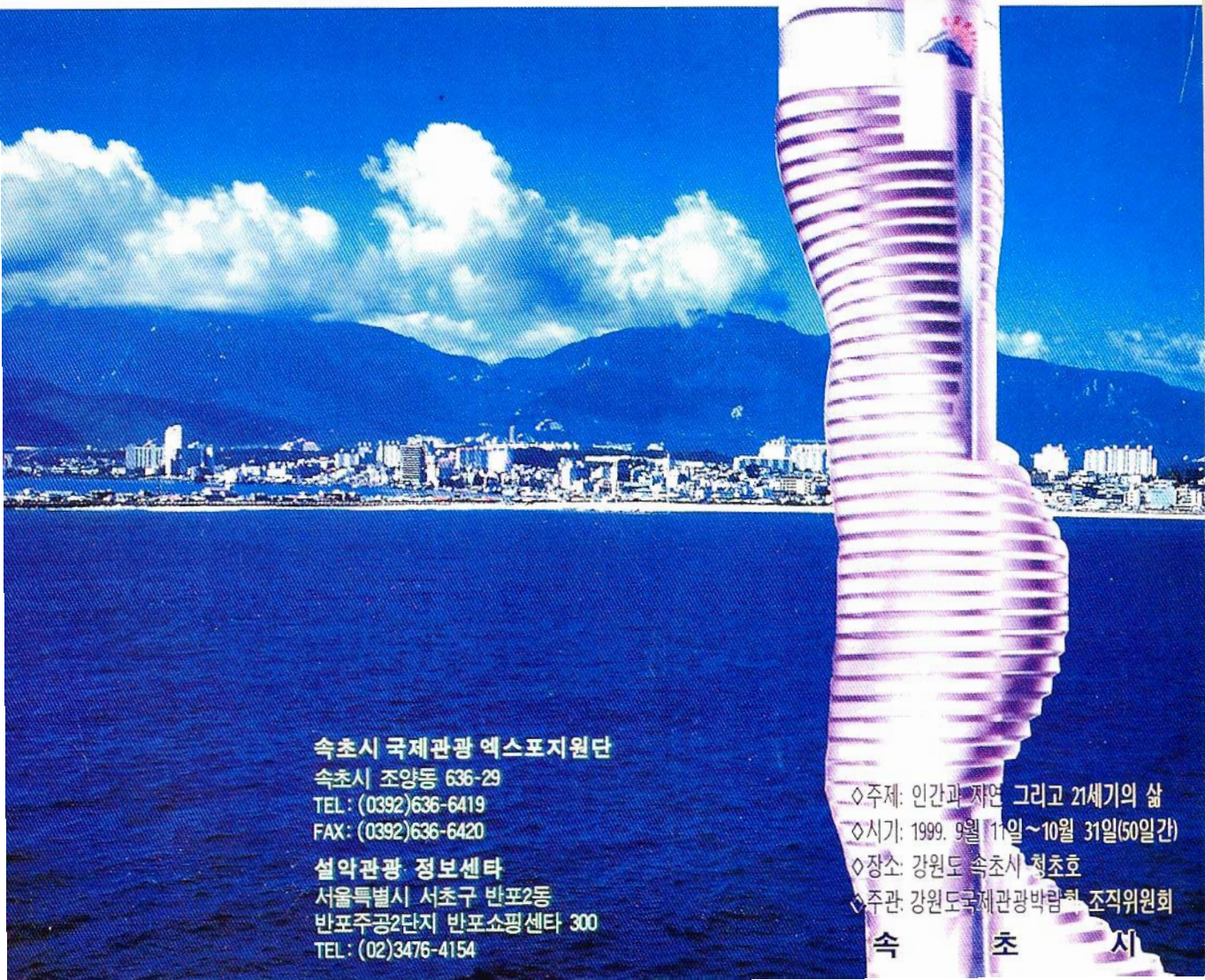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마스코트 쿠구는 강원도의 새인
배꾸기(CucKoo)를 모티브로
형상화 한 것입니다.
강원인의 순수와 온후한 성품으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자긍심
과 함께 강원도가 21C 관광정보화
의 선구자임을 상징합니다.

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

'99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속초시 국제관광 엑스포지원단

속초시 조양동 636-29

TEL : (0392)636-6419

FAX : (0392)636-6420

설악관광 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반포주공2단지 반포쇼핑센터 300

TEL : (02)3476-4154

- ◇ 주제: 인간과 자연 그리고 21세기의 삶
- ◇ 시기: 1999. 9월 11일 ~ 10월 31일(50일간)
- ◇ 장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 ◇ 주관: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속 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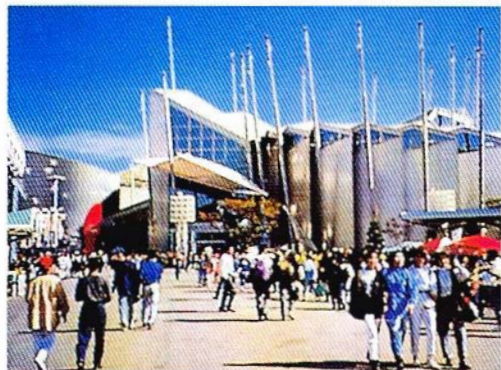
행사시설

1999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장은 설악을 병풍 삼아 동해 바다에 접해 있는 속초시, 청초호 일대의 12만 4천 평 부지위에 조성됩니다.

자연과 인공의 접점이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청초호는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라는 박람회의 주제에 잘 어울리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강릉·양양·고성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 한국관
한국관에서는 각 지방의 자연경관과 동물의 전시를 통해 관광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 국제관
전세계 50여개국과 70개 이상의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관은 지구촌의 축소판으로 세계의 자연과 동물이 한데 모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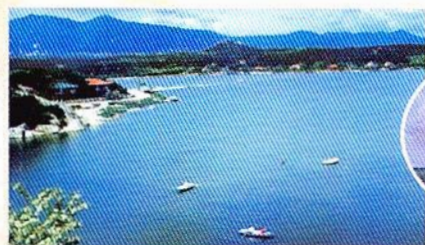
• 기업공동관

관광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전시물로 가득하며, 관광의 현주소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꾸며지며, 관광을 테마로한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환동해권 핵심도시 속초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과 함께 금강산, 나진·선봉은 관광할수 있는 쾌속선이 속초항에서 출발하게 되어 통일의를 꿈꾸실어 나르게 됩니다.



넓고 깨끗한 청정 동해바다, 신비스런 파도소리가 거문고 같다는 영금정, 철새들이 찾아오는 청초호, 신라의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했던 영랑호와 더불어 설악의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금강초롱



산양



반달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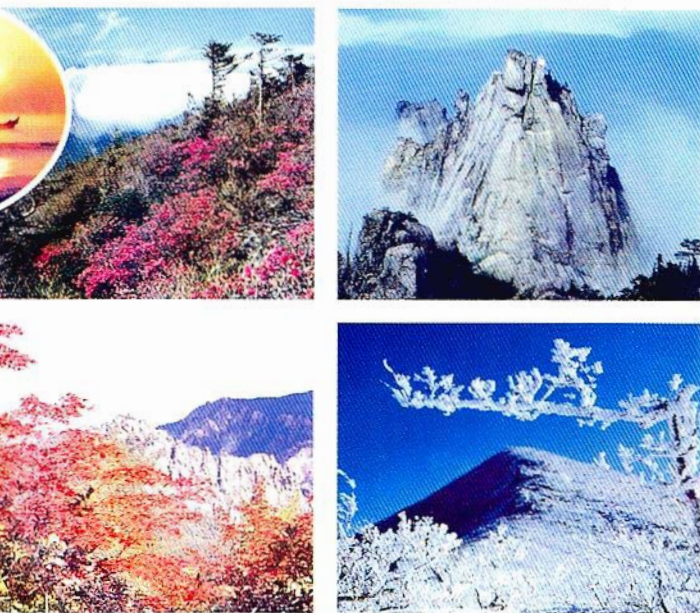


고슴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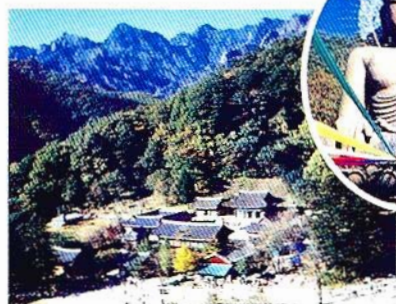


숨다리꽃 (에델바이스)

아름다운 설악의四季



신라 진덕여왕
 태화6년(652년)
 자장율사가 창건
 하여 향성사10년
 (71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고승 의
 상조사가 지금의
 내원암터에 중건
 을 하고 '선정사'로
 개칭하였으나 조선시대
 인조22년(1664년) 영서,
 해인, 연옥 등 세스님이
 지금의 절터에 중건하고
 '선홍사'라 하였습니



42℃~53℃의 약알칼리성 온천수가 용출되어
 수집은 유황, 나트륨, 라듐 등 10여종의 광물질
 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기 질환, 신경통, 피부질
 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잔치

• 공식행사

개·폐회식과 화려한 전야제와 폐막제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민속공연 등 참가자가 준비하는 공연들
 로 이루어질 내셔널 위크, 참가기관 및 기업의 날 행
 사가 개최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 상설이벤트

퍼레이드, 마술, 거리의 악사, 행위예술/폭어/거리
 퍼포먼스 등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행사가
 준비됩니다.

그 외에도 음악제, 열곡제, 전통문화제 등 각종 특별
 행사와 문화예술전사 등 전시행사, 시민가요제, 기물
 도전제 등 각종 관광과 참여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 테마행사

실내공연장과 수상무대, 박람회
 장의 자연지형을 무대로 펼쳐지
 는 다양한 테마의 공연행사가 끊
 이지 않습니다.

설악의 4계절 관광이벤트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천혜의 관광도시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봄 :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 여름 : 설악 Triathlon Championship
- 가을 : 설악 국제 철린지대회
- 겨울 : 설악 눈꽃축제

교통

● 항공
 서울⇄속초 소모시간 50분 7회운행/1일
 · 문의: (02)656-2000, (0392)3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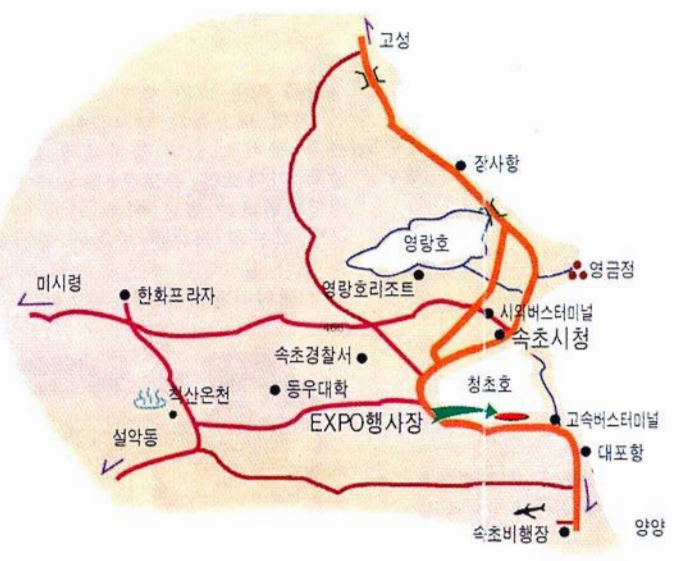
● 육로
 — 고속버스
 서울(강남) ⇄속초 소모시간 5시간 28회운행/1일
 서울(동서울) ⇄속초 소모시간 5시간 13회운행/1일
 · 문의: 고속터미널 (0392)31-3181, 31-9491

— 직행버스
 서울⇄속초 소모시간 5시간 24회운행/1일
 춘천⇄속초 소모시간 4시간 17회운행/1일
 부산⇄속초 소모시간 7시간30분 8회운행/1일
 대구⇄속초 소모시간 7시간 11회운행/1일
 강릉⇄속초 소모시간 1시간20분 92회운행/1일
 인천⇄속초 소모시간 5시간30분 6회운행/1일
 · 문의: 속초시외버스터미널 (0392)31-6465, 33-4230

● 해운
 울릉도⇄속초 소모시간 4시간 2회운행/1주일
 · 문의: (0392)636-2811



• 멋과 맛이 있는 고장
 인심 좋고 물 맑은 곳에서 가꿔온 '멋'과 '맛', 여행에서 배움을 수 없는 것이 그지역 특유의 맛을 살린 음식들을 맛보는 일입니다.
 「속초」는 동해 청정 해안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심심유곡 맑은 물로 자라는 특산물 등 향토색 짙은 맛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정성으로
SORAK FOCUS TRAVEL이
열어갑니다.

설악관광(주) 케이블-카



회장 韓丙起



대표이사 愼容文

설악관광(주) 케이블-카(신설) 해외여행부

- ◆ 여권 비자 수속대행
- ◆ 각종 항공권 판매
- ◆ 해외여행 ◆ 신혼여행

본 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0392) 636-7362

여행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82-5번지

☎ (0392) 636-1011

지 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13번지

☎ (02) 545-9726

강원도경찰청지정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 험 장 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및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635-3366, 3377, 3388, 3399



원장 / 김광수

●매주 기능검정·도로주행검정시험 실시

동해에 오늘도 가리비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동해의 희망을 가리비밭에 거는 뜻이 무엇일까
 바로 가리비가 자라는 해역은 일러서 청정해역이라고 했다.
 오늘도 동해에 가리비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동해의 희망

가리비 양식



 태영수산

代表 尹義求



社團法人 江原道農魚村研究所理事長 TEL : (0392)636-1815
 國際라이온스協會 354-E地區 (0392)633-1336
 東草클럽會長 (32代) FAX : (0392)633-6542
 東草市繁榮會副會長 自宅 : (0392)635-1629
 東草市野球協會副會長 H·P : 011-375-8464



설악 상황/동충하초/아가리쿠스

깨끗한물, 맑은 공기의 고장 설악골에서

(주)상목이 직접 재배하여 판매합니다



-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출품상품 지정
- 한국관광공사 추진 지방자치단체 1명품 · 1관광명소 운동에 속초시 설악상과 함께 1명품으로 선정
- 속초시 농촌지도소 기술지도

설악 상황

설악 상황은 기존의 여러 농가에서 톱밥으로 재배한 버섯과 달리 당뇨에 특히 좋은 현미에 배양 재배하므로 버섯의 자실층과 균사체 전부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위암, 식도암, 십이지장암, 결장암, 간암 등 소화기 암의 치료시 면역기능을 향진 시킨다.
- 초기암 증식을 막는 효과 및 면역력 증가로 인한 항암효과
- 특허출원 : 97제24618호
98제7002호

설악동충하초

설악 동충하초는 누에번데기에서 형성된 눈꽃 동충하초(P.japonica)이다.

- 감기, 폐결핵, 만성기침, 천식, 발작, 빈혈, 허약체질, 성기능장애, 고혈압 등에 탁월한 효과와 피로회복, 허약체질 개선, 영양강장제로 이용
- 폐를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
- 중년층이나 노년층의 보양에 이상적인 영양식품이며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식품

설악아가리쿠스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대장암 치료를 위해 복용하여 뛰어난 효과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전세계의 화제가 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내분비계통, 생식기계통, 피부계통, 뇌신경대사계통, 숙취, 요통, 눈병, 알레르기, 정력감퇴 등에 효능



주식회사 상목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34-9
TEL)0392-636-0130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주제관 기공



1998년 6월 24일 속초시 청초호





열여섯 번째 속초시민의 날 기념

제33회 설악문화제

1998년 10월 1일~3일

서른세 번째 '설악문화제'가 10월 1일부터 3일간 동명항 항만 매립지·설악산·문화회관 등 시내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설악문화제'는 크게 설악제례·설악산악제전·설악예술축전·향토민속축전·거리문화축전·해양문화제전·놀이문화축전 등 8개 분야로 치루었으며, 각 행사는 관광객·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등장하여 흥겨운 한마당



향토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제 '설악문화제'는 이 고장만의 축제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축제로서 거듭나기 위한 범시민적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설악·해양·북한 문화의 특성을 어떻게 묶어 조화로운 즉 어울리는 문화 축제로 다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설악문화제'의 자세가 필요하다.



설악문화제에서
선보인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작
'도리원 농악' 시연.



제2회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서예와
꽃꽂이의
만남.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개관

시 승격 35년 만에 기념비적인 사료관

1998년 4월 29일 역사적 개관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속초시 출연 작품

속초 도리원 농악

노력상 수상

1998년 9월 26일
인제군 종합운동장



도리원은 속초에서 가장 많은 전담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 전형적인 농촌 민속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주로 농사놀이 형태의 두레농악이 성행하여 걸립농악으로 발전하였다. 1936년 영동지방의 병자포락(丙子浦落)으로 초토화된 농민들의 실의를 달래어 주는 몫을 이루기도 했다고 전한다.



'98 속초문화원이 청소년을 위해 펼친 젊은이의 광장



"제2회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속초문화원 주관: 영북민속문화연구회갯마당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속초시, 속초시교육청



풍물
여름학교

청소년
풍물
겨루기
경연



속초상고
풍물패



설악의 가을 그리고 겨울

금강산 유람의 바람이 거세어도
 의연한 자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붉게 타고
 하얗게 내리는 이치를 더욱 기다듬는가
 그 모진 비바람 극심한 무인년 한 해를
 곱게 장식하는 설악의 모습
 금강산 유람의 호들갑에도
 호연지기는 설악에서 찾아야 할
 우리가 아닌가
 육당 최남선은 설악산을 가리켜
 절세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으며
 고운 모습으로 물 속의 고기를
 놀리게 하는 듯하다고
 절찬하지 않았던가



최낙민(崔洛珉)

- 예총 속초지부 감사
- 예총 속초지부 사진분과 총무
-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현재 주거지인 양양에서 '현산문화제' 발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1998년 6월 20일부터는 영동권과 강원도 인터넷 사이버 갤러리(<http://www.themetour.com/>)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갤러리를 방문하면 최낙민씨가 만든 책 '천의 자태 설악산'을 비롯 설악산과 동해안의 비경과 각종 야생화를 담아놓은 사진들을 볼 수 있고 자세한 여행정보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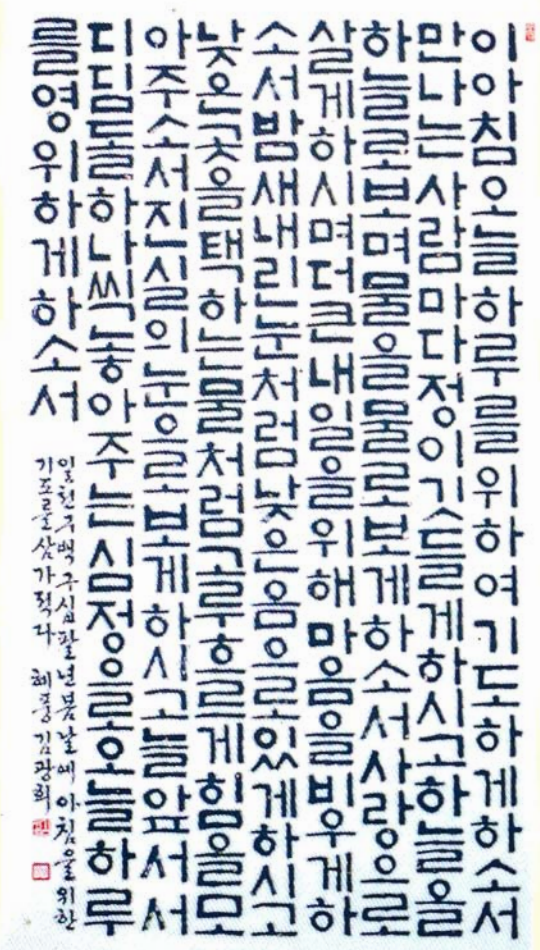
또, '98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한 '남북사진전시회'에 외설악의 비경을 담은 씨의 사진 작품 7점이 선정되어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다른 작가의 출품작 300여점과 함께 전시되기도 하였다.

최낙민씨는 강릉사진작가협의회(회장 김진안) 추천으로 속초예총사진분과 최초의 사진작가로 등록될 예정이다.(1999년 1월, 한국사진작가협의회에서 결정)



김 광 희 (KIM. KWANG-HEE)

- 서양화 개인전 2회('69속초/ 70춘천)
- 미술, 서예지도표창 17회수상
(내무부장관, 국회문공위원장, 흥익대, 이화여대미술대학장, 주한인도대사 등)
- '92 강원서예상 수상
- '97 속초시 문화상 수상
- 강원서예대전 우수상(추천작가)
- 전국 서예실기대회 최우수('83)
- 율곡제 회화대회 장원2회('85, '87)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고시대선 특선
- 아세아서예대전 특선('93), 서예대전입선(3회)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입선('294)
- 지방서예가 초대전(예술의 전당)
- 강원신교육 100주년 기념 교원미전 초대출품
- 환동해 4개국 미술초대전(일본)
- 현, 강원연목회 교문, 강원도 서예가협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
김광희 서예한문학원장
속초시서예교육연구회고문



이호현, 박영구, 서시광, 노년복날씨, 아침을 위하여
김광희 작

▶아침을 위한 기도, 70×200(cm)



세한도(歲寒圖)

도종환 시인

소한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꽃꽂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잔가지로 성글게 엮은 집에서 내려오는 텃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 밤을 지냈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즘나무 백양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는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 측백나무
폭설에 덮힌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부서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쳐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몰아다 뿌리는
냉혹한 비음의 바람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가던 길
그대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액의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듯
나도 이 버림받은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한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라
이 싸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죽다가 얼어 붙어 빙판이 되어버린 숲길에서

民族중흥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的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린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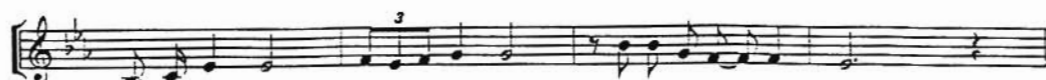
속초시가

♩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굵 이 굵 이 아침해 떠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예 새벽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동은 풀 - 짜 기 에 흰 구름 물 올 물 내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라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우 독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님 이 그 - 욱히 깊어 지 네
항 - 구 에 류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가 자 배 를 젖 - 자 산으로 바다향 - 해



우 리 알 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속초문화

제14호

발행 : 1998년 12월 20일
인쇄 : 1998년 12월 15일

발행인 / 원장 崔龍文
발행처 / 東草文化院

2117 - 01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화 : (0392) 632-1231

전송 : (0392) 632-1241

편집위원 : 이 인 절 · 오 윤 근 ·

김 광 수 · 박 영 도 ·

윤 의 구 · 주 상 훈 ·

최 낙 민 · 최 현 식 ·

이 수 영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비매품

속초문화는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고 있
다.

- 화보/'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주제관기공 · 9
- 화보/제33회 설악문화제 · 10
- 화보/속초향토사료전시관 개관 · 12
- 화보/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13
- 화보/젊은이의 광장 · 14
- 설악의 가을 그리고 겨울 최낙민 · 15
- 권두회호 김광희 · 16
- 권두시세한도 도중환 · 17
- 속초시가 · 19
- 문예중흥선언 · 20
- 발간사/제2의건국과 문화의 창달 최용문 · 21
- 논단/속초문화의 관광 자원화 동문성 · 24
- 논단/자치의정 발전을 위한 제언 박학성 · 28
- 논단/'99관광 엑스포 그 기대와 열망 채용생 · 31
- 논단/동아시아 속의 속초 선사문화의 위치 임효재 · 37
- 특집/속초향토사료전시관 박영도 · 43
- 속초 역사의 흐름 주상훈 · 51

■ 무당골사지 3층석탑	· 56
■ 경주 문화유산 답사	· 57
■ 특집/국립공원 설악산<14>	최구현 · 63
■ 바람처럼 살다간 도인 춘성스님	최현식 · 69
■ 또 하나의 장승제	박영도 · 72
■ 속초 수산업의 현황	최유길 · 74
■ 어느 서예전의 축사	최용문 · 79
■ 6·25의 교훈	김호웅 · 80
■ 문화원 소식	· 84
■ 5인 풍물패 갯마당의 1998년	· 92
■ 속초예총 이 고장 문화예술 총체의 산실 그 1년의 흔적	박종성 · 93
■ '98민예총의 예술활동을 점검한다	전태극 · 99
■ 문화단체를 찾아서/풀뭍음	· 103
■ 사진영상의 해	김정일 · 105
■ 표지에서 제호제자까지	· 107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제2건국과 문화의 창달



崔龍文
속초문화원장

혼돈의 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도덕성의 상실에서 온 인간성의 파괴와 부정 부패의 고리이다. 한편으로 IMF라는 지난(至難)함 또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문화 예술계라고 해서 무뎠지 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문화 예술계의 올해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이다. '제2의 건국'을 지향하며 오늘날 총체적인 국가의 지난함을 무엇보다 문화 예술을 통한 도덕성 회복의 우선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나름대로의 위안을 갖는다. 그런 까닭에 '제2건국'이란 대업은 도덕성 문화의 창조에 관건이 명제가 달렸다고 갈파(喝破)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 예술을 통한 창조의 맥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고장으로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금강산 관광길이 그 기점의 역할을 하였다든 점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 앞에는 '99 강원 관광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무대가 200만 도민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수밖에 없는 것은 개최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모두가 통일의 토대가 되고 속초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도약이 약속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원으로서 향토사료관이 시(市) 승격 35년 만에 실로 역사적이랄 수 있는 개관을 보았으며 문화학교 개설(문화사랑방) 6년 만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한국문화학교(학교장/문화관광부 장관)로부터 지정 문화학교('98년 9월 9일)로 선정되는 기쁨과 풍물패 '갯마당'의 제9회 서울 국악대경연대회에 풍물 부문 은상 수상, 속초농악대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은 실로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매진하고 있는 문화가족들임을 자부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정한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이 고장 사진동호인들의 부단한 창작활동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뜻에서 그 활동상을 부각시키려 지면을 할애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은 힘을 우리 전통 문화 창달에 전심할 것을 약속하면서 발간사에 대신하고자 한다.

속초문화의 관광 자원화



우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속초고유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董文星 속초시장

I. 문화의 세기와 속초문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사회는 그간의 고도 기술산업시대를 거치면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우리문화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시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광상품의 개발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도래하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시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만

이 가지고 있는 인문자원 즉 속초문화를 접목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속초문화의 실태

속초는 양양과 고성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동해바다와 인접한 변방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실향민이 대거 이주하여 도시를 형성하여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고유문화는 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계승되는 전통문화 또한 주민의 구성이 실향민과 타지역 출신자들이 많은 관계로 고유



문화가 성장하지 못하고, 타문화와 혼합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아니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관광산업의 발달로 타문화의 유입이 많아져 속초 고유문화는 그 설 자리를 잃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속초고유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독특한 민속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별신굿을 비롯한 각종 민간신앙의식과 도리원농악 등 우리의 머리속에서 잊혀졌던 전통민속놀이를 발굴하고 고증하여 시연을 통해 정착시키고, 비록 전통적으로 계승된 문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설악산에 기반을 두고 산악인 중심으로 형성된 산악문화, 바다를 일구며 살고 있는 어민들이 중심이 된 해양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향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실향민 문화를 보존한다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속초문화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Ⅲ. 속초의 관광문화

속초는 국내 최고의 명산 설악산과 푸른 동해바다와 호수 그리고 온천 등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라 할 수 있다. 단풍과 설경의 설악산은 연중 수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는 곳이고, 푸른 동해바다는 해수욕장과 관람유람선등 해안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척산온천 등지에서는 지친 심신을 위로할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은 단지 보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적인 자연경관을 그저 감상하는 데 그치고, 먹고 마시는 극히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관광문화가 기형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산품 개발사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고급 관광문화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저급 관광문화를 지양하고,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감상함과 아울러 속초의 독특한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관광문화의 정착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IV. 속초문화의 관광 자원화

1.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문화는 조상의 발자취를 느끼고, 지역을 상징하며, 고유성을 반영하는 소속감과 연속성을 나타내는 가치적 산물로 교육자원 및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1) 문화유적지

속초의 문화유적지로는 조양동선사유적, 신흥사, 향성사지3층석탑, 영랑호, 청초호, 도문동 전통가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들은 설악산 관광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에게 조금만 주위를 기울이면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설악산자연관광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접목한 문화유적탐방을 결정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자연자원의 경치를 관람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문화마을(청호동 아바이마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속초시는 실향민들이 구성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생긴 독특한 실향민문화를 형성하여, 전국 유일의 실향민 집단거주지이며,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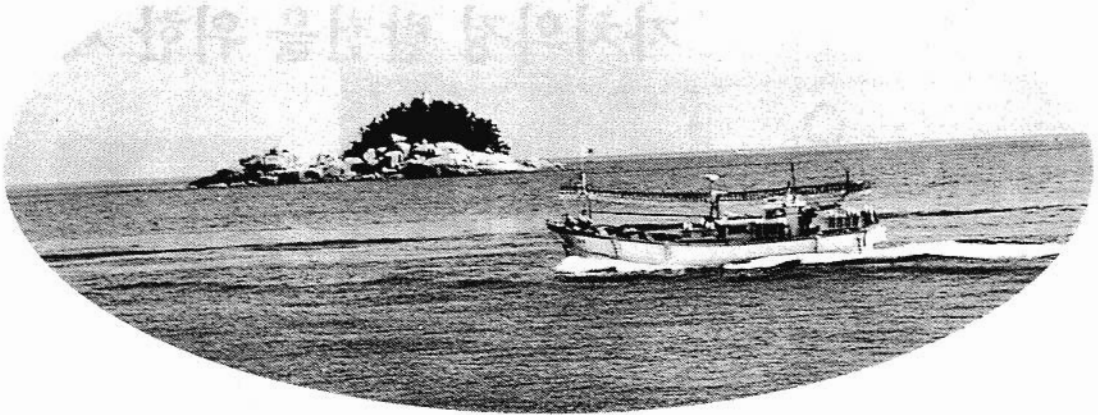
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갯배, 가옥구조, 생활방식, 언어, 음식 등 북한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간직한 채 통일을 염원하며 살고 있는 실향민문화 또한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북방외교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잊혀져 가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문화를 복원·보존하여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설악문화제

우리지역의 최대의 향토축제인 설악문화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 이어져 오는 전통있고 개성있는 제의적 놀이마당의 성격을 띤 문화행위이며, 문화관광상품으로 매력이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설악문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축제개최가 요구된다. 타지역의 축제와는 다른 전통적인 우리고유의 문화행사가 필요하다. 산신제, 용왕제 등 각종 제사의식의 복원과 각종 민속예술 및 놀이를 발굴·시연하고, 속초문화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산악문화, 해양문화, 실향민문화 행사를 좀더 부각시켜 차별화 시키고,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하



고 더불어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 향토음식 등 부대지원행사가 병행된다면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2.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전통문화 선양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속초문화원, 영북민속 연구회 갯마당이 있고, 현대문화예술부분에는 예총 속초지부, 민예총 속초지회를 들 수 있다. 각 단체마다 속초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기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자생적인 노력에 비하여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못한 것 같다. 각종 공연장 및 전시시설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기존 시설들이 관광객의 동선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이들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들 의식속에도 깊이 파고 들지 못하여 그들만의 행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조각공원과 어우러진 야외 공연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육성하여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

에게 속초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관광권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문화예술을 지원화 하는 고급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속초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였다. 1999년 우리는 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우리시를 중심으로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문화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문화의 접촉은 쉽게 동화될 수 있으며, 속초문화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다. 속초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속초고유문화의 정착과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할 때 속초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속초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치의정 발전을 위한 제언



朴鶴聲 의장
속초시의회

I. 들어가는 말

속초시의회는 지난 91년 의회를 개원한 후 3대째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의정은 짧은 연륜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의정의 발전은 우리 의원들이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감격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여 온 점에서 일부 기인한다.

그동안 생업전선에서 일하면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주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이 없는 거의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나 사명감 하나로 지방의회를 활성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회제도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살필 때 자치의정에 있어 일부 노정되어온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II. 의회조직의 강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이 분립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전제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의 분립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의원이 운영하는 의회는 주민대표로서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기에 조직이 너무나 왜소하다. 속초시의 경우 집행기관의 1개과에 불과한 조직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무를 파악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통법부”라고 일컫는 현실에서 지방의회마저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현실에서 강 집행기관, 약 의회의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작고 효율성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조직개편을 하였고 그 대의에 동참한 결과 의회의 조직이 다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기구내 기능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성 확보가 어려



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언급되었던 의원보좌관제도 신설 등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IMF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내 인원조정으로 의회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는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명에 따를 가능성이 많은 제도적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무직원들의 충분한 보좌를 받고 집행부의 견제를 충실히 하려면 의장이 의회 직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Ⅲ. 의원의 전문직화

현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수성격의 급여는 지불받지않고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이러한 보상으로 실제로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들은 각자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특히 의정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젊은 의원의 경우 의회보다는 생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하므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간이 모자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주민들이 뽑아준 4년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봉사의 시간을 갖고 의원직

으로 생활이 가능하려면 보수성격으로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서 높아진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발안, 주민소환,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의원도 전문화를 이루어 지방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Ⅳ. 자치입법권의 개선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이 없는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가 힘들게 하고 있다. 즉 자치입법권을 상위법에 의해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에 의해 자치입법권 또는 지방자치권을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는 물론 민주국가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에 있다고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치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제도 등 이중 삼중의 자물쇠로 통제하여 왔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현행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해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회 역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만든 조례를 통과하는 통법부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법률을 만드는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V. 지방의회의 자율권 강화

지방의회 운영은 회의소집, 회기결정, 의사일정 작성, 의안의 심의 등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어 심도있는 안건 처리와 자유로운 토의가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이외에도 대부분 개별법이나 위임형태로 사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라는 말과 최고의 사결정기관이라는 용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권을 주고 있지만 상급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실행행사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 의회기능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중앙집권적 체도를 지방분권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전술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하의상달(bottom-up)의 민주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 특히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발전하려면 지방의 풀뿌리부터 창의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도 이제는 지방자치법상 운영의 제약에서 벗어나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자율권을 신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권한이양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VI. 맺는 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지방자치제도를 이끄는 한축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많은 활동을 하여 왔으나 아직은 다듬어 지지 않은 의회제도와 뿌리깊은 중앙집권체도의 폐해로 말미암아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 특히 자치시대에 들어 서서 주민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한때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된 적도 있어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회조직의 강화, 의원의 전문직화, 자치입법권의 개선,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등을 들어 논하였지만 이외에도 많은 대책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에서 수세기나 걸쳐 획득한 지방자치가 주민의 기대만큼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와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협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 구축함은 물론 자치의정발전에 있어 최대관건인 지방자치권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99 관광 엑스포 그 기대와 열망

속초시 국제관광엑스포 지원단



蔡 龍 生
 속초시부시장
 속초시 국제관광박람회 지원단장

신비의 설악산을 배경으로 바다, 호수
 그리고 항구와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12만 4천 평의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서
 관광문화와 풍속이 한자리에 모인다.

즐거운 만남과 흥겨운 축제의 마당



내년가을 50일간 열리는 지구촌의 대축제, 그 개막을 알리는 광파례를 머리속에 그려본다. 전야제의 폭죽과 관람객의 환호, 사상초유의 화려한 개막식, 현란한 거리축제를 미리 상상만해도 감격스러워지며, 성공적 대회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낀다.

신비의 설악산을 배경으로 바다, 호수 그리고 항구와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12만4천평의 속초청초호유원지에서, 21세기를 불과 2개월 앞둔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가 바로 그것이며, 지구촌 여러나라의 다양한 관광문화와 풍속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당 축제의 장이 연출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관광모델을 제시하는 등 미래의 삶을 위해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볼거리나 잔치의 흥도 흥이지만, 이러한 관광엑스포는 우리지역에서 펼쳐지는 사상최대의 국제행사로서 세계로 향한 우리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치며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이 틀림없다.

아울러, 우리 속초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도 전체의 명예를 걸고 개최하는 뜻깊은 대회로서 국제EXPO를 치뤄내는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는 물론, 그 성공여하에 따라 앞으로의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1. 유치배경과 개최이념

EXPO의 유치배경은 관광산업이 21세기 굴뚝없는 미래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그리고 고용창출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면서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관광개발이 최선이라는 전략적 필요성이 감안되어 관광박람회를 개최해야겠다는 강원도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고, 설악산을 비롯한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시설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개발부지 활용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앞세운 우리 시의 유치전략으로 이루어진 쾌거이기도 하다.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Man, Nature and Life of Futur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시, 공연과 테마출연이 될 관광엑스포의 개최이념은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관광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관광을 통한 미래의 삶」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면서 관광에 대한 의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관광의 질적차원을 한단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두번째로는, 강원도의 문화와 예술·전통·자연·산업 등 모든것을 「관광」이라는 매체속에 농축시키고 이를 전시 연출의 방법으로 표출시킴으로써 강원관광의 가치기준을 정립하고 상품성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EXPO를 통해 우리지역을 명실상부한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시키며 관광에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주요시설과 연출내용

관람객 150만명을 목표로 기본계획이 짜여진 대회 주요시설로는 우선 엑스포를 상징하는 주제관과 대회장 주변경관과 설악산,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72m 높이의 상징탑이 영구건물로 건축된다. 이 두 건축물은 대회중

리지역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EXPO 개최로 돌아오는 이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비전을 감안한 장기적인 기대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로는 대회준비에 따른 접근도로망과 도시환경개선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사업투자 및 관광객 유입에 의한 지역경기 부양을 들 수 있다.

EXPO를 계기로 국제공항이나 고속도로의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이 당장 이루어 질 수는 없으나 척산로와 미시로의 확장, 박람회장 진입로 개설, 7번국도 병목구간 해소 등의 사업은 앞당겨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환경개선과 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다.

EXPO 기간동안 지역내 자금유입의 효과는 지난 6월 12일 강원비전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의 관광객 평균 지출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1,222억 원이며, 박람회 운영비용을 합하면 총 1,653억 원의 자금이 지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는 도내 총생산액 1.8%에 해당하는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단기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EXPO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이득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냐는 점이다.

첫째,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명성과 영예는 동아시아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시키는 계기가 되며, 우리지역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홍보효과를 통해 폭넓은 관광객 유치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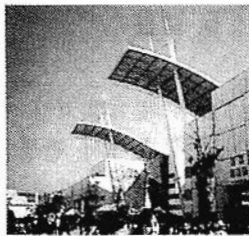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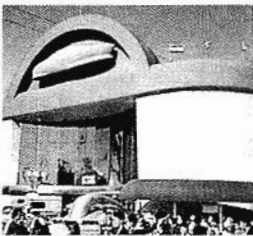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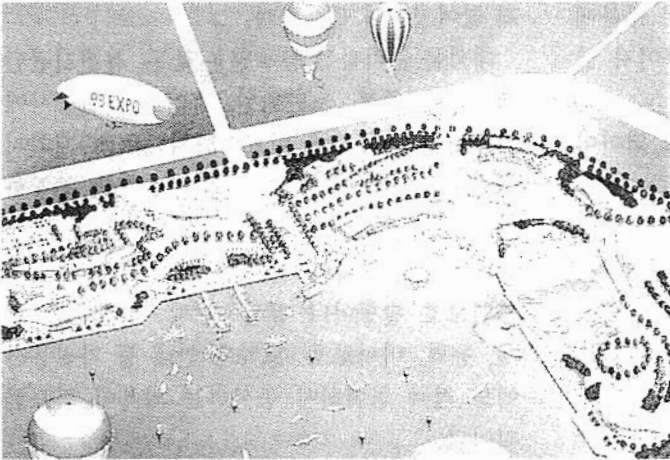
EXPO를 계기로 1백여개의 해외여행업체를 통한 관광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외국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아울러 외국도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가하면서 문화와 풍습의 상호 이해와 개발자원을 상호 보완시키며 공동 발전을 모색해 갈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동해권을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인적 물적자원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해당지역내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커다란 모티브를 제공하리라 본다.

둘째, 우리의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설과 강원인의 혼과 정서를 관광이라는 매체를 통해 정립시키는 지적자산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관광행태는 설악산이나 해수욕장 등 자연위주의 단순관광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도 이러한 관광범주내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것이 현실이다.

EXPO를 계기로 강원도의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인문지리·풍습 등을 총체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 관광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은 곧 관광문화의 발전이며 종합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한층 쇄신시키는 것이다.

금강산 개방으로 자칫하면 경유지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설악권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광시설과 체계적으로 정립된 문화유산 관리가 더욱 필요할 지도 모른다.

셋째, 국제적인 대축제행사의 대규모 손님을 맞이하면서 시민의식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대형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얻어지는 노하우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제행사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여력과 자신감을 얻게 할 것이다.

손님을 맞는 관광업체나接客업소, 운전원, 민박가정 뿐만 아니라 거리질서나 환경개선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모두 「질서·친절·청결운동」을 통해 세계화에 한발짝 다가서는 의식전

환이 이뤄지고,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도시로서 사회저변의 저력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4. 우리의 과제

엑스포 대회장내의 모든시설과 운영의 주체는 도 조직위원회이며, 이미 기본계획된 행사시설 및 연출과 세부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IMF 한파라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속에서 소요사업비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시공연에 참여할 국내의 자치단체나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 기울이는 조직위원회의 정성과 노력은 눈물겹기만 하다.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엑스포와 관련한 지역별 지원사업과 관련행사를 추진하면서 강원도홍보관내의 전시 홍보활동과 각종 공연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속초시의 경우는 개최지로서 현지에서 준비 지원해야할 부분이 많아 별도의 엑스포지원단을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도시로서 해야할 사업은 우선 대회장인 청초호유원지 기반조성사업을 기한내 마무리하여 각종 대회시설 설비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대회장 접근도로망 개선, 시가지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교통과 숙박 등 관광수용대책, 지역 홍보대책,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질서·친절·청결 등 범시민참여운동, 박람회 기간중의 의료·소방·안전·방역·재난대비·청소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대단위 국제행사인 엑스포의 성공은 조직위원회나 지원단 등 관련행정기관과 행사 운영 참여업체, 운영요원 등 몇몇사람에 의해

서 달성될 수는 없으며, 사회저변 모든 부분에서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지원이 이루어져 한 덩어리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선 먼저, 전시민이 『관광요원화』 되어야 한다.

우리 시 자매교류도시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국내외 참가안내와 관광홍보를 하듯이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 일반시민도 연고가 있는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찾아 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금년에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내년에 다시 오도록 안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질서있고 쾌적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범시민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내집앞 화분내놓고 가꾸기와 오·폐수를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든지, 주정차 질서를 지켜 거리의 분위기를 살리는 등의 일은 자원봉사자나 단속공무원이 할 일이라기 보다는 선진된 문화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세번째, 온몸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맞이하는 친절서비스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손님을 맞는接客업소나 관광업체 종사자, 운전원 민박이나 외국인 홈스테이 가정, 거리에서 길을 묻는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고 훈훈한 속초인심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특성과 독창성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품질좋은 특산품을 내어 놓아야 한다.

토속음식이나 기념품, 각종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이 국제 수준에 걸맞고 바가지 요금 없이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여행알선 업체의 경우는 인근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안내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다섯번째, EXPO의 주인의식을 가진 범시민

적 참여정신이 필요하다.

대회를 준비하는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단체, 학생, 주부, 노인회원, 그리고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EXPO개최지 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원 유원지나 하천 계곡 등 오염취약지의 자연보호 활동이나 질서·친절·청결운동 전개, 통역, 미아보호, 노약자 안내 등 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는 의욕이 필요한 것이다.

5. 결론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관광산업의 부흥은 물론 관련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 자본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알차게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난관과 제약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EXPO의 성공개최를 위해 더욱 강한 의지와 집념이 모아 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금강산을 향한 쾌속선의 출항과 나진·선봉지구의 항로개설등 시기적인 호재와 함께 관광엑스포의 성공으로 이어져 IMF 위기도 슬기롭게 탈출하면서 한국관광의 1번지로 확고히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의 건설과 동해북부선 철도복원, 북부고속도로의 개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개발의 발판으로 작용하여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국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경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개관기념 강

주제: 동아시아속의 속초선사문화의 위치
강사: 한국선사고고학회장 임호재 박사(서울대학교 교수)
일시: 1998. 4. 29일 7: 14:00 속초문화원



동아시아 속의 속초 선사문화의 위치



任 孝 宰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선사고고학회 회장

지난 4월 29일(오후 2시) 속초향토사료관 개관과 함께 그 의의를 다지기 위해 서울대학교 고고학 교수이자 한국고고학회 회장 임호재 박사의 '동아시아 속의 속초 선사문화의 위치'의 연제 강연을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가졌다.

이날의 강연 요지를 실어 조양동 선사유적이 가지는 우리 고장의 위상을 다시 조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 편집자

오늘 속초문화원 향토사료전시관(郷土史料展示館) 개관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속초 선사문화(東草先史文化)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인(日本人)들은 누구나 후지산(富士山)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듯이, 우리 한국인(韓國人)의 가슴속에서는 그 누구라도 설악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천하명산(天下名山) 설악산과 그 넓고 푸른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속초시(東草市)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도 한번쯤 꼭 찾고 싶어하

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 최대의 관광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특성을 한 곳에 모아 놓아서 속초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속초향토사료전시관』(東草郷土史料展示館)이 완공되어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속초시민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自矜心)과 애향심(愛郷心)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단시간내에 그 역사적 특성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여간 경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흔히 『문화(文化)의 세기(世紀)』라고 합니다. 비록 현재 국내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발전 못지않게 보다 성숙된 문화적 역량이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향토사료전시관을 설립하는 곳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향토사료전시관이 속초시민들 뿐만 아니라 설악산과 동해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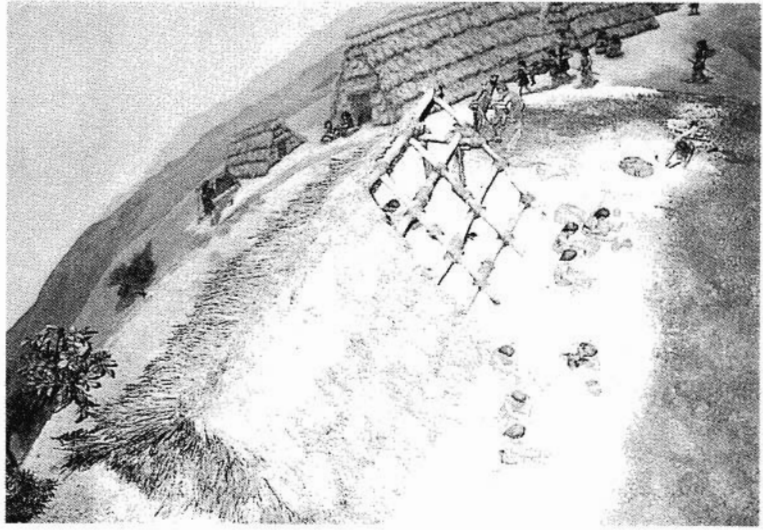
함경도에서 경상도를 잇는 동해안 중간지점에 위치한 속초지역은 우리나라 선사문화 교류연구상에 있어서나,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산을 경계로 그 서해안 지역의 연구는 많이 진척되었으나 동해안은 그 선사문화의 내용이 알려진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방면에 걸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굴조사팀에 의해 속초시에 인접한 양양군 도화리와 명주군 심곡리에서 구석기유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출토되는 양양 오산리를 비롯하여 지경리, 가평리 등지에서 신석기 유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신석기유적들은 유물성격상 동해안을 따라 북으로는 멀리 러시아의 연해주지역과, 남으로는 일본의 규슈(九州)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선사문화교류연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비록 속초시에서는 아직 신석기유적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폭넓은 고고학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근 동해안의 타유적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장천천, 청초천 유역과 이들 하천에 의해

형성된 영랑호, 청초호 등 석호 주변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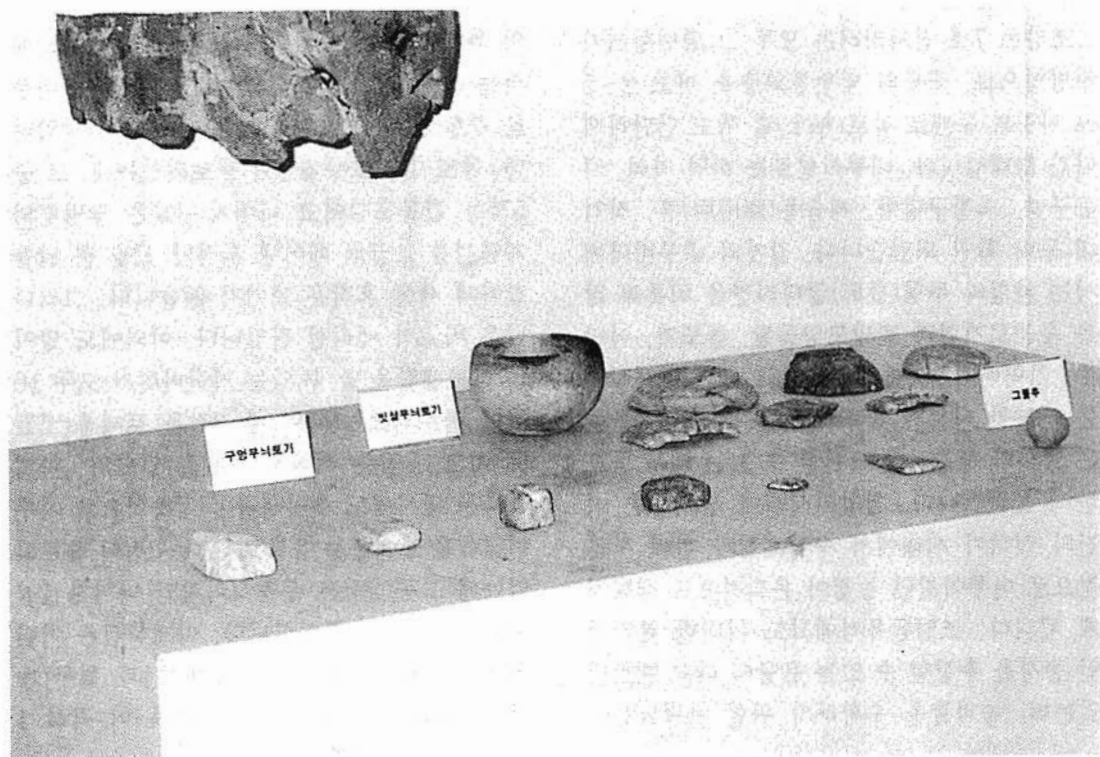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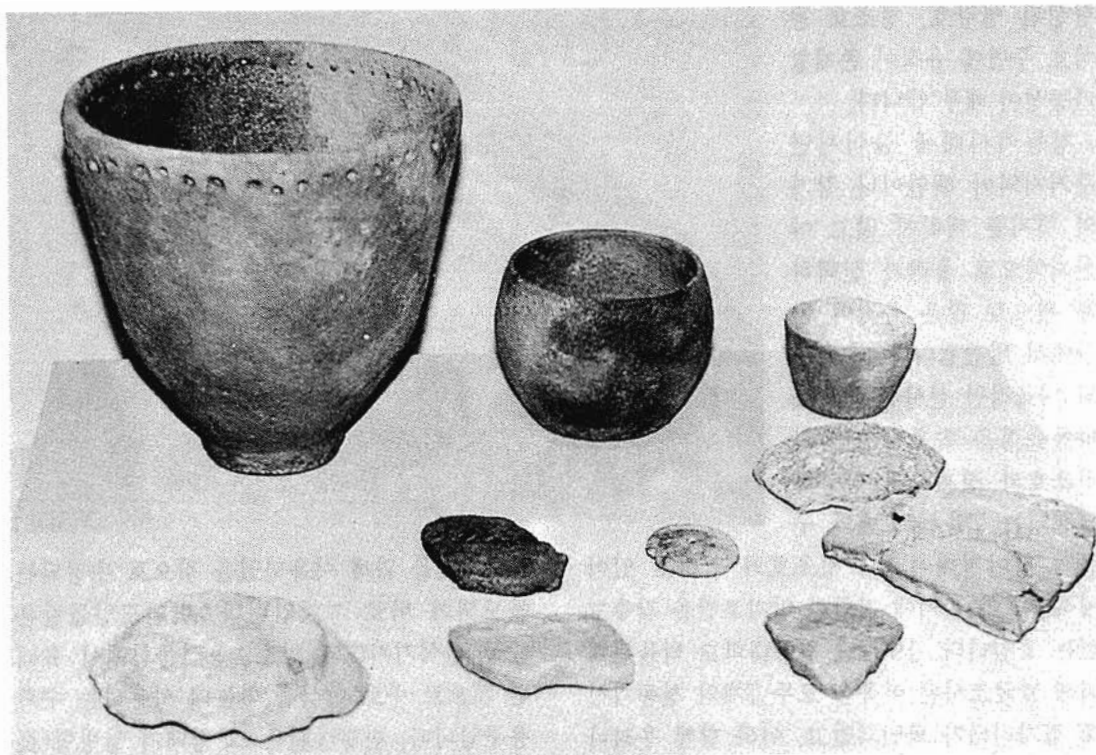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 주거지역이 해안이나 강가의 평지를 택하지 않고 야산지역으로 올라가 선택하게 됨으로 많은 유적이 야산에서 발견됩니다. 속초시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인 조양동유적은 속초시 남쪽의 청초호와 경계하여 양양과 연결되는 7번 국도변의 구



릉과 평야지대이면서 청초호와 접하고 있어 옛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1992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이곳은 모두 7개의 청동기시대 집자리터가 확인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인 고인돌 2기가 확인 되었습니다.

조양동 7개 집자리터는 모두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구릉의 암반풍화층을 파고 2~5cm 가량의 두께로 점토(粘土)를 깔고 단단하게 다진 형태입니다. 내부시설로는 화덕 자리,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제습용(除濕用)흙, 작업대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집자리 내부바닥에서는 완형의 두형(豆形)굽다리잔을 비롯해 많은 무문토기편과 반달모양돌칼, 돌도끼, 어망추, 가락바퀴, 마제석검(磨製石劍), 마제석잡 등 다양한 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 이전의 신석기 시대에서 수렵채집과 함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농경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조양동유적에서도 이러한 본격적인 농경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반달돌칼이

나, 개간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도끼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달모양돌칼은 중국 신석기시대의 앙소·용산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이삭을 따는데 사용하는 수확용구입니다. 반달돌칼은 그 형태가 장방형(長方形), 어형(魚形), 주형(舟形), 삼각형(三角形) 등으로 다양하면서 각기 지역적인 분포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양동 집자리에서는 총 19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형태는 대부분 주형 또는 어형으로 날은 대부분 외날입니다. 돌도끼는 모두 8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5점은 간돌도끼이고 나머지 3점은 장방형의 자연석을 조금씩 떼어낸 흔적만 있을 뿐 날을 갈아서 세운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은 비교적 예리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당시의 직조생활을 알 수 있는 가락바퀴가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3점은 토제품(土製品)이고, 7점은 석제품(石製品)입니다. 마제석촉은 당시에 수렵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모두 3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2점은 무경식이지만 나머지 1점은 그 형태가 불확실합니다. 마제석검은 이단병식(二段柄式)의 병부편(柄部片)과 혈구(血溝)가 새겨져 있는 봉부편(鋒部片)이 각각 1



점씩 출토되었습니다.

집자리 출토 무문토기는 한반도 서북지방의 팽이형토기에서 보이는 이중으로 말린 아가리 부분(二重口緣)에 짧은 빗금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지방에서 보이는 아가리 부분에 구멍무늬(孔裂文)와 입술부분 윗단에 새김무늬가 서로 결합된 양상을 띠고 있어 당시의 문화적 교류양상을 가늠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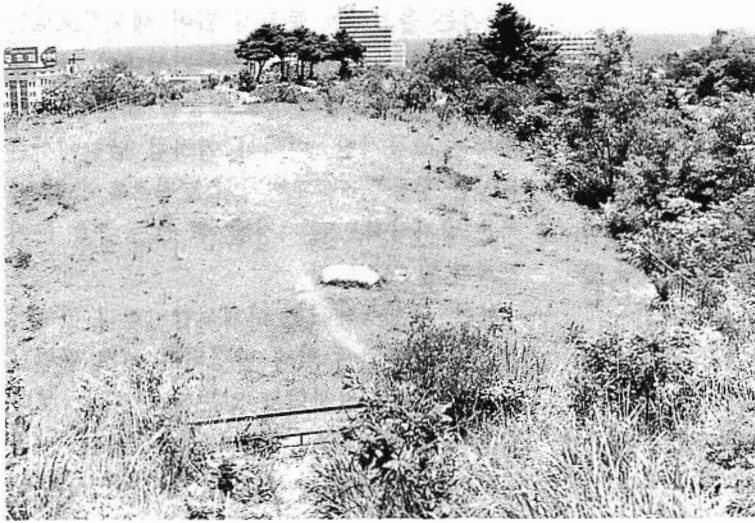
고인들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로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탁자식(卓子式), 기반식(基盤式), 개석식(蓋石式) 등으로 구분됩니다. 탁자식은 매장부가 지상에 놓여 석실의 벽이 고임들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주로 한강 이북에 분포하기 때문에 북방식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기반식과 개석식은 매장부가 모두 지하에 있는 형태로 전자는 지상에 고임들의 역할을 하는 괴석이 따로 설치되고 그 분포권이 주로 한강 이남이기 때문에 남방식으로도 불립니다. 개석식을 변형고인돌로 호칭되는데 고임들이 따로 없고 지상의 대형돌이 매장부의 뚜껑역할까지 하고 있는 형태로, 한반도 전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조양동에서 발견된 고인돌 2기 모두 개석식 고인돌로, 1호 고인돌 내부 주검바닥에서 완형의 청동부채꼴주머니도끼(扇形銅斧) 1점과 다수의 마제석촉이 출토되었습니다. 부채꼴도끼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도끼가 중국 요녕성의 요녕식동검문화기(遼寧式銅劍文化期)에 성행하는 유물로 한반도에서는 실물로서 북한의 의주 미송리와 북청 토성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한에서는 실물로서는 조양동 1호 고인돌 출토품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형태상 미송리, 토성리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토성리 것은 몸통의 단면이 장방형인 부채모양에 5줄의 비교적 굵은 용기선(隆起線)이 돌려져 있으나, 조양동 출토 선형동부는 몸통의 단면이 장타원형인 부채모양에 2줄

의 가는 용기선이 돌려져 있어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단일부락이 구릉상에 완벽하게 발굴된 것은 동해안에서는 드물지만, 여기서 이처럼 남한에서는 유일한 청동부채꼴도끼가 출토됨으로써 이 유적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중요 근거 자료가 된 것입니다.

한편, 장사동에서는 마제석검 1점과 마제석촉 6점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유적과 유물의 발견이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속초와 인접한 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등 동해안지역에는 고인돌과 집자리 등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세형동검, 마제석검, 마제석촉, 반달돌칼, 돌도끼, 무문토기, 가락바퀴 등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초를 포함한 영동 동해안 지방은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이 깊은 학술적 규명이 미약한 채 간과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동안 학계가 이룩한 학술적 조사를 근거로 해 속초시, 속초문화원 등 각 계의 노력으로 이제 속초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개관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연구하는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시관 설립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유형·무형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유산을 담아내는 그릇인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의 표현에만 머무르는 것으로서는 나쁜 향수나 감상에 젖어보는 것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 과거의 유물만을 나열해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단지 이것이 어



편 전체 흐름속에서 어떤 이야기 중의 한 부분 인가를 조명할 수 있어야만이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 것과 남의 것의 비교를 통해 그 지역의 것이 전체 또는 세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남의 것을 알아야 자기 것도 더 잘보이는 법,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 과거와 현재의 자취를 보여주되 그것에 대한 향수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를 위한 생각과 비전이 고루 제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 속초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명소일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문화권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점을 인식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몇몇 국제 행사들이 이 곳을 거점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관하는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은 이러한 각계각층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당장에 확실하고 완벽한 정답이 아니더라도) 역사와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지역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자료관을 모체로 해 지역박물관 건립이 기대됩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 특유의 자연 생태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속분야 중심으로 한 종합박물관 성격의 박물관 건립이 기대됩니다. 경기도내 향토사료관을 모체로

몇해전 개관한 경기도 박물관의 설립은 좋은 예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조양동 선사유적을 복원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 양양의 오산리신석기공원, 속초의 조양동청동기공원, 그리고 설악산과 바다를 잇는 관광코스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시의 경우 문화불모지로서 생각되어왔으나, 최근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 선사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그것을 선사유적공원화함으로써 주민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활동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이 지역 문화의 개발·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전시관은 개관되었으나 그 자체로 앞으로 보완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힘써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칩니다.

특집

사진으로 보는 사료전시관

속초향토사료전시관



속초가 시로 승격된 지 35년('63년 1월 1일) 짧다면 짧은 세월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이 고장의 문화창달을 위해 숨어서 일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문화가 가꾸어지고 또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일구어져 나갈 것이다.

어느 고장보다 격동의 파랑이 심했던 우리 고장이 아니었던가.

이제 여기 속초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찾아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아울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애향심을 길러 줄

속초 시민의 긍지가 어린 사료관의 탄생을 보았다.

지난 4월 29일 개관을 본 속초향토사료관은 330㎡(100평)의 규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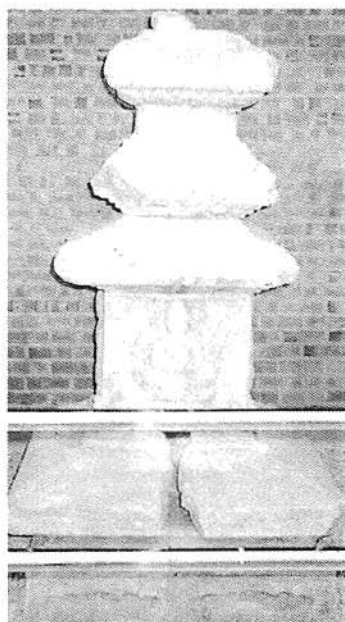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및 산악·해양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사료전시관 특집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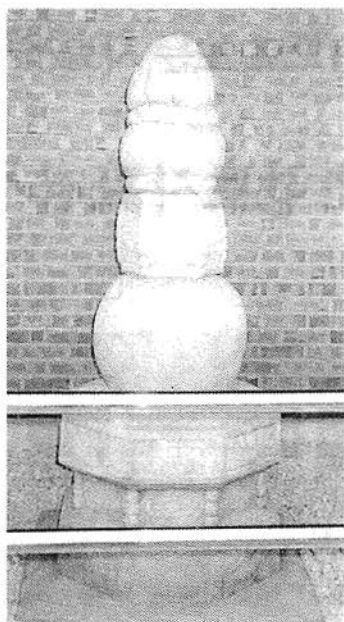
앞으로의 관람을 돕기로 한다

소재지/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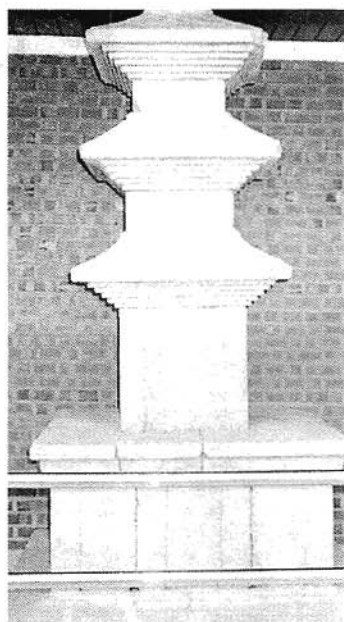
전화 0392)635-8827



무당골사지석탑
높이 127cm 화강암



벽담탑
높이 78cm



향성사지3층석탑
보물 443호 높이 4.3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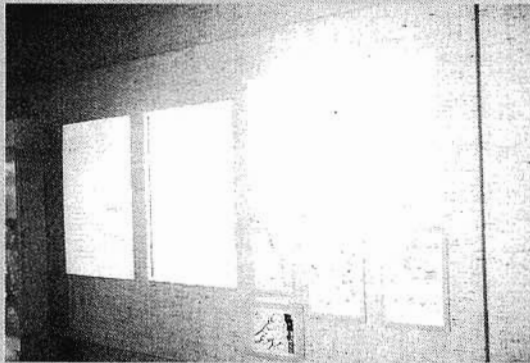


북청사자놀음
무형문화재 15호



속초시 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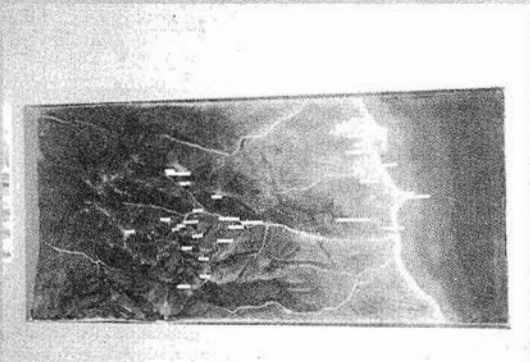
- 시기(市旗)
- 시화(市花)
- 시목(市木)
- 시조(市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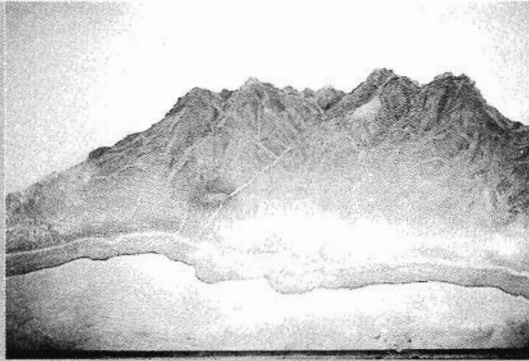
속초시 연혁과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여지도》 《관동읍지》
《조선팔도여지도》 등에서
영동지방 부분을 판넬로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
향성사지 3층석탑(보물 제443호)을
비롯하여 이 고장에 산재한
불교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등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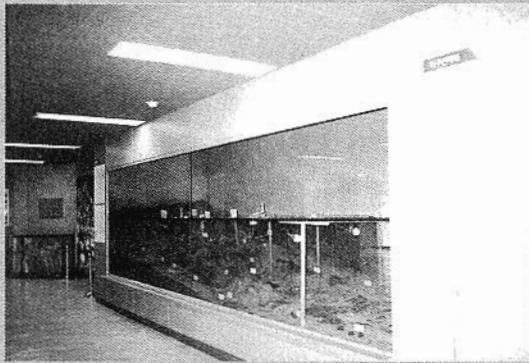
문화유산 답사길을 조감모형으로
압축하여 점등으로 확인하며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머물기도 한다.



동해의 해저 지형은
물론 대청봉(1,708m) 지점의
조도지점과 단면도로
산악과 해저의 높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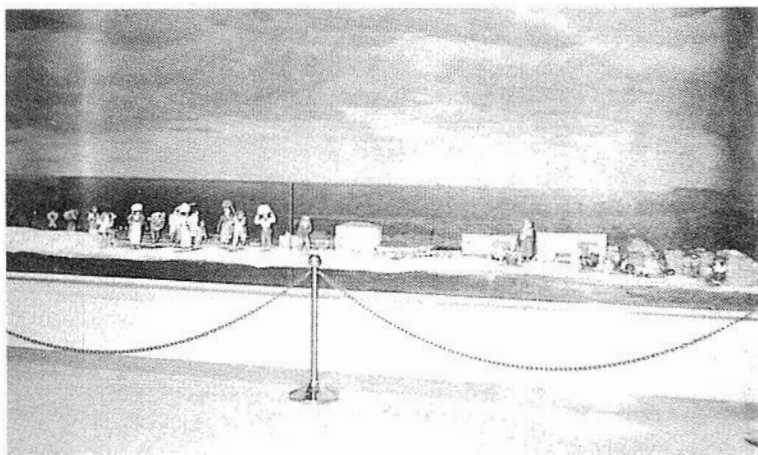
눈이 쌓인 설악산과 쌍천을 배경으로
설악산에 분포하는 동식물들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
양화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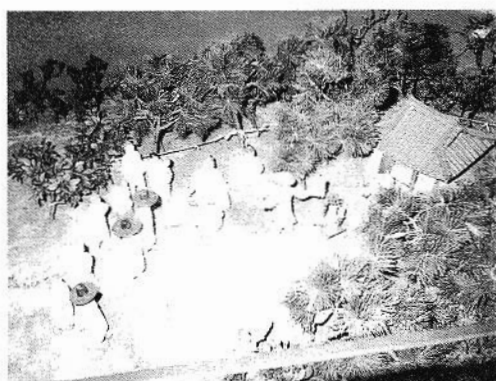
해상·해저 어로작업 모습을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양을
담아 어로생활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발전상도 살필 수 있다.



어장과 어구들이 갖춰져 있다.
그물에서 낚시 해저 어로의
장비와 그 외의
어구들이 어로작업에
어떻게 쓰인 것이고
쓰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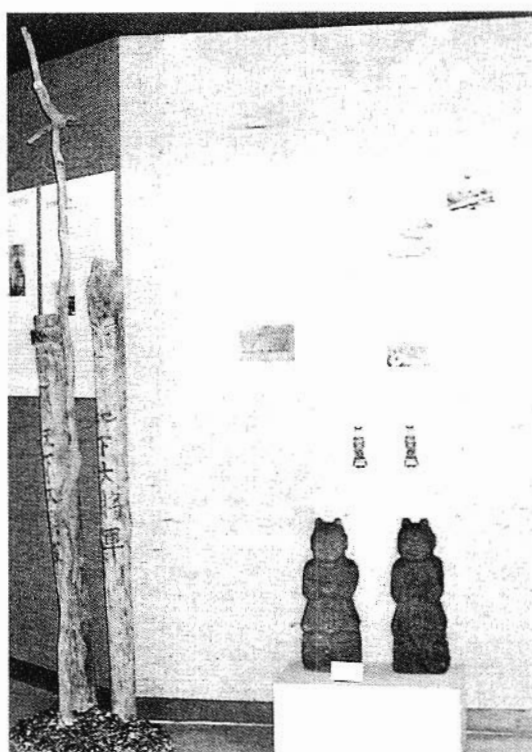
디오라마(diorama프)로
1951년 속초 수복에서
휴전 전후 지금
속초신협에서 수협
부근까지로 당대 거리
모습의 재현과 피난민의
남하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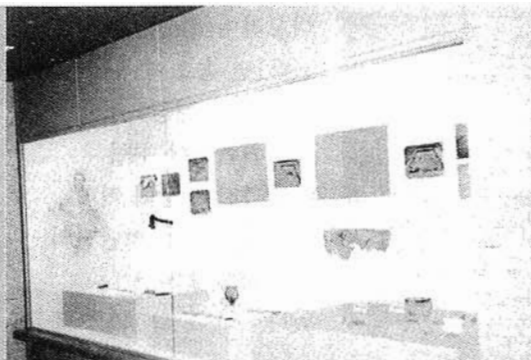
대포동 동계의 디오라마 연출.



동자석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내아이의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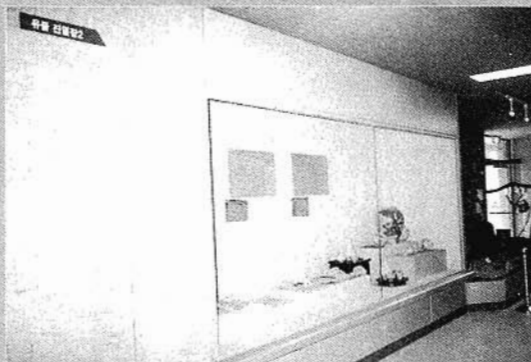
숫대(오릿대 · 짐대)와 동자석을 갖추고
판넬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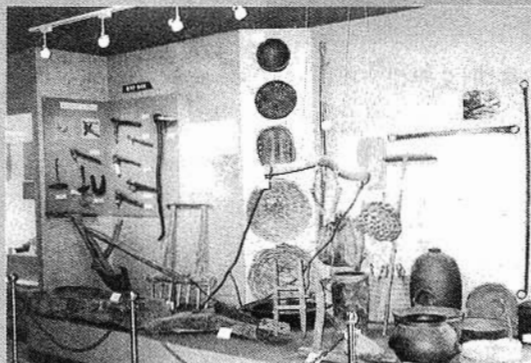
조양동 선사유적(청동기 시대)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복제품으로 전시되어 있다.
진열된 청동도끼·민무늬토기 등이 눈길을 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의 집터에서 나온 구멍무늬토기·민무늬토기와 파편들로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임을 입증하는 유물들이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유물들과 조선 왕조 시대 '청화백자'가 진열된 진열장으로 선사시대에서 조선 왕조 때의 토기와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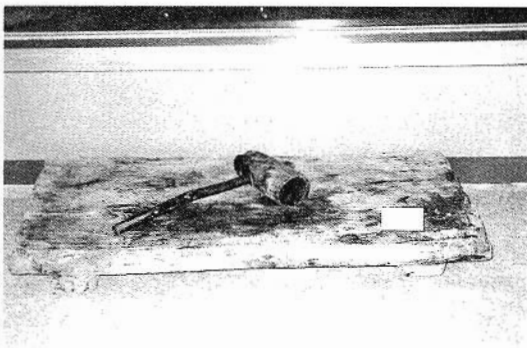
선사시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농경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농기구와 도구들로 청동기 농경문화의 시작에서 근래에 이르는 농경시대의 발전과정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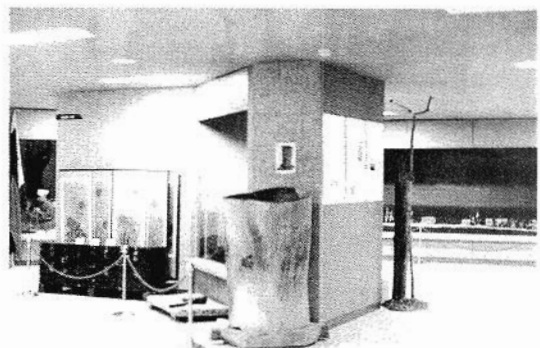
모란선화병풍(8폭) 약 12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래의 농역시 조선 왕조 후기의 것으로 KBS-TV '진품명품' 시간에 소개되었던 최현식(문화원 이사)씨의 소장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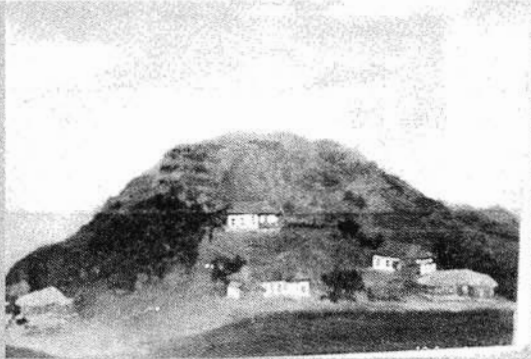
피나무로 만든 통으로 겨울이나 여름에 채소·김치·김장·과일 등을 저장하였던 생활도구로 독 또는 지금 냉장고의 구실을 한 피나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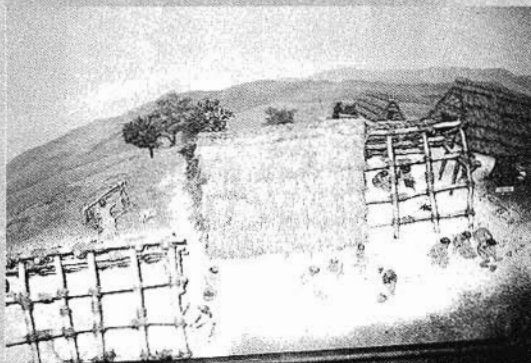
흰떡이나 인절미를 칠 때 쓰이는 떡메와 떡판으로 지금은 흔치 않지만 요즘에도 농촌에서는 명절 때는 볼 수 있는 정든 도구이다.



병풍·떡메와 떡판·피나무통·숫대와 장승 등이 잘 배치되어 있는 사료관 안의 모습이다. 패널을 보면서 관람하면 이해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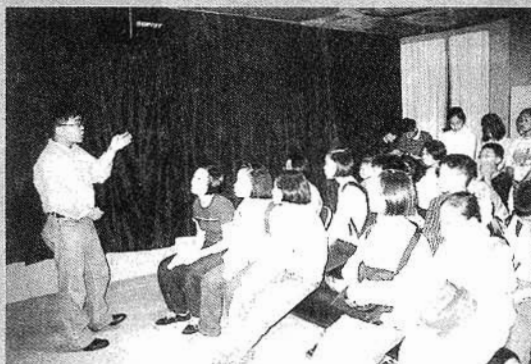
디오라마(diorama프)로 연출된
도문동 강원도 지정문화재 가옥들로
전형적인 산간마을의 집 형태로
강원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지 주거의
생활 양태를 디오라마(diorama프)로
연출한 모습으로 집터 7곳 중에서
2곳을 디오라마로 나머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료관을 찾아서 관람하고 있는
중고생들이다. 고장의 역사를 알기 위한
열의가 초등교생들부터 일반에게로
널리 파급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시청각실에서는 사료관에 진열된
모든 사료들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백홍기·장정룡·임효재 교수 등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글과 사진 / 박영도

속초 역사의 흐름

주 상 훈 교사
향토사 연구위원



속초가 신생도시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조선시대까지 속초는 양양에 속한 한 마을 이름이었다.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가 그것이다. 그리고 양양도호부의 12개 면 중, 소천면과 도문면(道門面) 지역이 현재의 속초시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속초'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본인이 그전에 확인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1760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속초리'가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강원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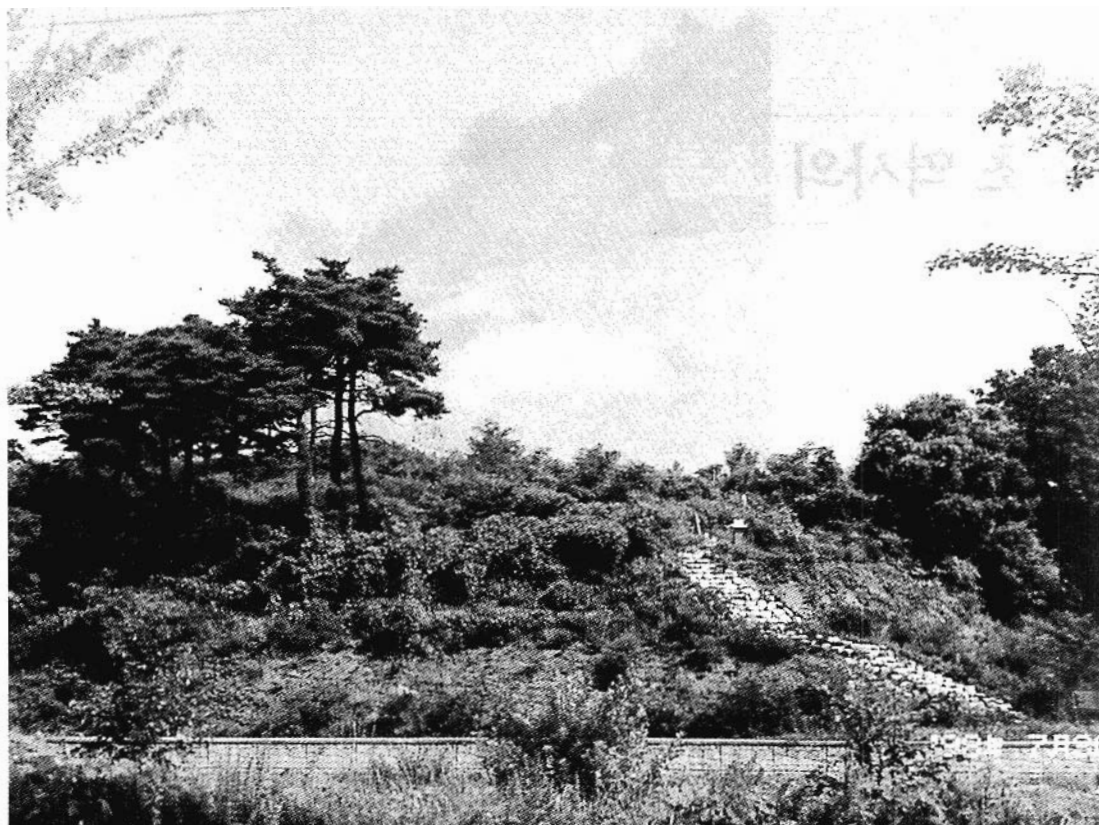
「수군 만호 수어처가 6이니……속초포(束草浦)가 양양 북쪽에 있는데, 배가 3척이고, 군사 210명이다……(水軍萬戶守禦處六……束草浦在襄陽北航三艘軍二百單十……)」

이에 의하면 늦어도 조선초기, 15세기부터는 속초라고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에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지가 국

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을 대규모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화재 조사를 하던 중, 청동기시대 집터 7기와 고인돌 2기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다. 속초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처음 확인된 선사시대 유적지였다. 이로써 속초 지역에서도 선사인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속초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인돌에 묻힌 족장의 후손이 혹시 지금까지 속초에 살고있는 앎을까하는 망상도 해보게 된다. 우리 지역은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져 선사인들의 어로 생활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선사 유물의 출토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인근 양양, 고성 지역에서는 많은 선사시대 유물, 유적이 발굴 보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부터 지배-피지배 관계가 생겨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족장이 지배하는 조직체(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에도 정치적 조직체가 생겨났을 것이고, 이 국가는 동예라는 연맹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동예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보다 강력한 고구려에 복속되어진다.



고구려 지배 당시 양양의 이름은 익현(翼峴) 또는 이문(伊文)이었다. 그러다가 신라 진흥왕 때 신라 세력의 북상에 따라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며 익령(翼嶺)이라고 불린다.

당시 이 고장의 역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랑도(花郎徒)들의 순례이다. 화랑도들은 국토 순례를 통한 심신수련을 그들의 주요 과제로 삼았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고 있는 '유오산수 무원부지(游娛山水 無遠不至)'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다니며 수련활동을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보면, 영동지역이 화랑도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영랑호와 청초호, 설악산이 있는 속초도 분명 화랑도들의 좋은 순례처였고, 영랑호는 신라 화랑 영랑의 이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본인은 일찍이 〈화랑과 영랑호〉라는 글에서 영랑이라는 화랑의 존재를 밝혔고, 화랑도들의 순례가 사실일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문화》 제6호, 1990년 참조)

또한,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융성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전해진 불교가 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우리 고장에도 전해져 낙산사, 신흥사, 건봉사 등 각종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런 사정으로 우리 고장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3층석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설악산의 향성사지 3층석탑, 양양의 진전사지 3층석탑, 선림원지 3층석탑, 오색리 3층석탑, 한계령 너머 장수대의 한계사지 3층석탑이 바로 그것이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치고 당시 3층석탑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드문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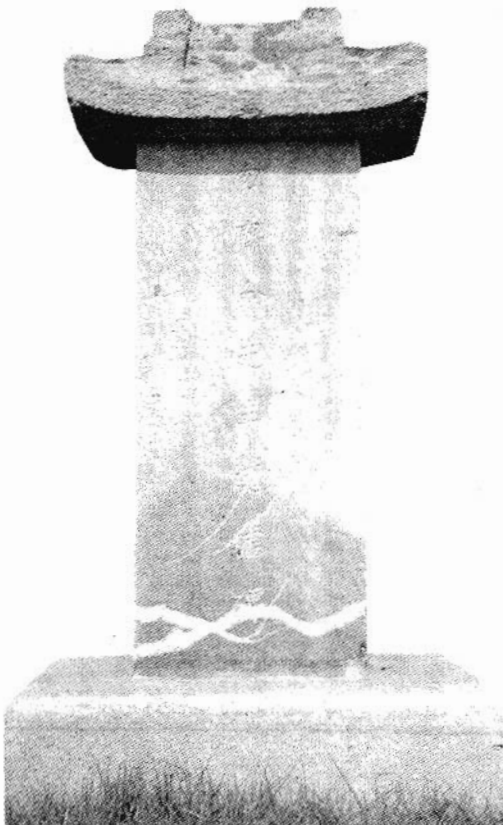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 우리 고장과 관계있는 것만 보더라도 동여진의 해

적행위, 몽고침입에 앞선 거란유족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 왜구의 침입 등을 들 수 있다.

설악산에 남아있는 권금성(權金城)도 몽고족과 항쟁한 유적이라고 전한다. 조선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금성의 설명에 의하면

「……세상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여기로 피난한 까닭으로 인하여 권금성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낙산사 기록에 '몽고가 우리 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을 살펴 보면, 몽고는 고종 40년(1253년) 지금의 양양인 양주(襄州)를 함락시킨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낙산사 기록대로 우리 고장에서는 설악산에 있는 산성에 웅거하여 항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성은 바로 이 권금성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고종 40년(1253년) 양양읍성이 함락되자, 계속되는 몽고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설악산에 권금성을 새로 축조하였는지도 모른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조선초 속초에는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동해안에 동여진의 침입, 왜구의 침탈이 심했다. 그렇다면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은 그에 대비하여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고려사(高麗史)》 등의 사서에는, 우왕 9년 왜구가 동산현(東山縣, 당시 양양군 현 남면과 현북면 지역은 별도로 동산현이었음)에 침입한 것을 격퇴시킨 것을 비롯하여, 동여진의 동산현 침입(현종 20년), 간성 백석포(白石浦, 덕종 1년, 현재 지명 미상) 침입, 열산현 영파수(烈山縣 寧波戍, 문종 4년, 현재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침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은 유교적인 국가였다.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여 그들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성리학을 가르치는 향교, 서원이 각처에 건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설악산 입구에 남아있는 “유물재비(兪勿齋碑)”이다. 원명은 “물재유선생유허비(勿齋兪先生遺墟碑)”이다. 물재(勿齋)는 유희일(兪晦一)이라는 학자의 호이다. 비문에 의하면 원래 그 자리에는 물재 유희일을 추모하고 제사지내는 “향현사(鄉賢祠)”라는 사당이 있었는데 사당이 철거되면서 사당

이 있던 자리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이다. 《속초문화》 제7호, 〈유물재배〉, 1991년 참조)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기이던 당시 양양 조산에는 동명서원(東溟書院)이 있었고, 물치 마을에는 향천사가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전통에 힘입어 소야팔경(所野八景)이 만들어지고, 말기에는 도문동에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이 배출되었고, 도문동 출신 함평이씨 이석범(李錫範)이 큰 인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일제에 의한 국권강탈기인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된다. 이때 속초리가 속한 소천면과 도문면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이 되는데, 이 도천면이 바로 현재 속초시의 전신이다. 당시 사무소는 대포리에 있었다. 대정15년(1926년)에 발행한 도천면 《면세일반(面勢一般)》에 의하면, 당시 도천면에는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웅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 등의 11개 마을이 있었다.

1919년 3·1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다. 속초가 속하고 있던 양양군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속초시지역인 당시 도천면에서도 3·1운동이 크게 전개되었다. 양양 3·1운동의 최초 추진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석범은 속초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이었다. 그는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갔다가 3·1운동을 목격하고 돌아와 도문동의 쌍천(雙川)학교 제자와 양양 함평이씨 가문을 이용하여 이곳의 만세 시위운동을 추진하였다. 당시 면소재지인 대포에서는 우리의 만세 시위에 놀라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했으며, 주재소 수석 이시다(石田)가 고개를 숙여 사죄하며 "일본으로 돌아가겠으니 제발 해치지 말아달라."고 빌었다는 사실에서 이곳의 3·1만세 시위운동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속초의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1937년 항구 개발에서부터이다. 근대화에 따라 큰 항구가 필요하게 되자, 항만 조건이 좋은 청초호가 큰 항구로 개발되게 되고,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는 해운 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1937년에는 도천면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 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東草面)으로 바뀌어 속초는 마을 이름인 동시에 면 이름이 된다. 이후 속초면은 인구가 더 증가하여 1942년에는 속초읍(東草邑)으로 승격된다. 당시 양양군 소재지인 양양도 양양면이었으니까 군청 소재지보다 더 커진 것이다. 그러므로 속초는 6·25전쟁 이후 실항민들의 정착으로 비로소 커진 도시가 아니고, 이미 그전에 항구 개발에 따라 성장된 도시인 것이다.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전쟁으로 수복되었고, 실항민 등의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도 당당한 문화재감입니다.

무당골사지 3층석탑

남향사찰로 추정, 높이 127cm

주/사무국

10여년 전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무당골사지(설악산 목우재 휴게소 앞 도로 건너편 등산로를 따라 개울 오른쪽으로 약 30분 정도 산을 오르면 만날 수 있다.)에 위치한 이 석탑은 초층탑신(初層塔身)에, 진전사지삼층석탑과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와 비슷한 유형의 사방사불(四方四佛)*이 조각(彫飾)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 절터와 탑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전무한 상태지만,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속초향토사료전시관에 그 모형이 전시되어 있기도 한 이 석탑은 지난 10월 26, 27일 양일간 KBS TV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사료적 가치에 비해 관심의 손길이 적었던 탓으로

이미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해, 하루 바삐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문화재에도 무슨 미인선발대회 같은 등급을 매겨서 보존과 관리에 차이를 두는, 천박한 문화행정에도 손질이 가해지기를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은 1997년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로 간행된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P.121~123)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방사불(四方四佛) : 사방에 진좌(鎮座)하는 부처.

곧, 동쪽의 아촉불(阿闍佛), 서쪽의 무량수불(無量壽佛), 남쪽의 보상불(寶相佛), 북쪽의 미묘성불(微妙聲佛).





'98 경주 세계문화박람회 관람 경주 일원 문화유산 답사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98 GYONGJU WORLD CULTURE EXPO

'새천년의미소'
주제관으로
임장하는 일행의
모습이며 위의
캐릭터는
화랑이.

주/사무국

올해 '문화유산답사' 일정은 '98 경주 세계문화박람회 관람에 초점을 맞추어 10월 14일~16일 까지 2박3일로 짜여진 숨가쁜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당장 '99 강원 관광박람회가 닥쳐있기 때문이었다.

"또 경주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경주 일원의 문화유산 답사를 강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이다.

'문화유산답사' 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는 눈높이가 어디쯤에 놓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보고 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를 느끼고 올 수 있어야 올바른 문화유산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번 답사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 4대문명권 유물들,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들을 비교적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과 관광목적으로 찾기 어려운 문무대왕수증릉·이견대·감은사지·옥산서원등을 둘러보았다는데 둘 수 있겠다.

문화원 이사·문화학교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45인의, 이번 '98 경주 세계문화박람회 관람과 문화유산답사길이 각자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향수(享受)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안목을 기르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2박3일의 일정을 기행문 형식에 기대어 엮어 본다.

10월 14일(수) 흐림 첫
째날

아침 7시 뉴통일관광(기사 최대철) 전세 버스로 문화원 고문·이사, 문화학교 수강생 등 45인은 이인철(李仁鐵) 부원장의 인솔하에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주로 향했다. 이날 일정은 포항제철과 안강에 있는 양동민속촌·옥산서원 방문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포항을 앞두고 중식을



했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전날 비가 많이 내린 탓으로 대형 버스 진입이 어렵다는 정보를 듣게되어 양동민속마을 방문은 포기하고, 포항제철만 들르기로 하였다.

포항제철에 도착, 간단한 수속을 마친 후에 버스에 동승한 안내원 허은미 씨로부터 제철소 규모와 시설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업과정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일행중 몇몇은 문화유산답사에 웬 산업현장이냐며, 처음엔 좀 쓰악해하였으나 IMF사태를 맞이한 가운데서도 더욱 힘차게 움직이는 현장을 목격하고나서는 모두들 새로운 활력을 얻어 돌아가는 듯 했다.

문화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작업현장을 뒤로 하고, 일행은 옥산서원(玉山書院·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이 서원은 고적한 심산 유곡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덕택에 임진왜란의 병화(兵火)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보존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가 서원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 곳 역시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계곡물이 불어나 서원 건물까지 놓여있는 외돌다리를 건너는 일이 수월치 않았는데 시간낭비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었다.

이 서원은 조선 선조(宣祖) 5년(1572) 경주부윤(지금의 경주시장) 이제민(李齊民)이 이언적(李彦迪)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창건했으며 1574년 나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았고 대청뒤와 처마밑에 걸려있는 편액(扁額)의 글씨는 각각 한호(韓濩·石峰)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50의 판본도 보관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미리 연락을 하고가지 못한 까닭에 직접 그 귀중한 판본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쇠락할대로 쇠락한 독락당(獨樂堂·보물 제 413호)은 이언적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지은 집의 사랑채로 독락이란 고향에서 홀로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을 뜻한다.

또한 이곳 서원을 둘러보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유산은 힘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당대의 경주부윤 정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독락당은 몰라도 이 골짜기에 서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라.



아쉬움을 뒤로 하고 경주에 도착한 것이 오후 5시30분, 시내 곳곳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숙소인 불국사역 앞 부성장 여관에 여장을 풀고 바로 옆 식당에서 식사까지 마친 시간이 7시로 일행들은 모두 피로한 모습들이 역력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을 부탁하고 필자도 잠을 청해 보았으나, 낮은 잠자리 탓인지 쉽게 눈이 붙여지지 않아 빗소리나 들으면서 여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밤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 내일도 비가 계속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여투고 있는데 마침 속초향토사료관의 기획·설계·제작을 도맡아 하셨던 윤광주 씨가 찾아왔다.

서로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일정을 협의, 이 곳 경주에서 1박을 더 하고 15일엔 박람회 관람을 하는 한편 고청사(古靑舍)에서 1시간 정도 가친(家親)이신 윤경렬(尹京烈) 선생의 강의를 경청하기로 약속을 했다. 한잔 술이 없을 수 있느냐는 씨의 청을 극구 사양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10월 15일(목) 맑음 둘째날

염려와는 달리 날씨는 맑았다. 무엇보다 반

가운 일이었다. 하늘이 우리 일행을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반가움에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찍이 박람회장에 당도한 시간이 오전 9시경이다. 입장료는 일반 1만2천원, 단체는 1만원이었다.

어제 윤광주씨와의 약속대로 고청사의 한 젊은 직원이 일행을 맞이했다. 이 젊은이는(이름은 아쉽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람

회장 신라관의 제작은 물론 우리 향토사료관 건립에도 참여했었던 듄직한 청년으로, 덕분에 효율적인 관람이 될 수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젊은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드린다.

이 박람회장은 보문관광단지 인근인 천군동 15만 평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입구엔 열굴수막새와 함께 '새 천년의 미소'라는 문구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안에 들어서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1백8개의 TV 수상기를 이용해 만든 작품인 '백팔번뇌'를 비롯하여 국내외 비디오 아티스트 14인의 작품이 첫 눈길을 끌어들인다.

이 곳의 백미(白眉)는(보는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와 마야·잉카 문명 및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전시한 '세계문명관'이다. 특히 마야와 잉카문명 유물 100여점은 페루와 과테말라의 박물관에서 직접 수송된 귀한 진품들이라고 하니 그 가치가 더욱 돋보였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굴암·석빙고·포석정을 현대의 과학 기술로 재조명한 '우정의 집'도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 등 북쪽의 유물 사

진들이 있는 북한관이 우리 일행의 발걸음을 유독 오래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필자 또한 이젠 기억조차 아득한 북녘의 고향을 잠시나마 떠올려 보았다.

'세계풍물광장'에서는 각국의 민속예술 공연은 물론 민속공예품과 민속음식도 전시 판매하고 있었다. 인도관에서 인도 민속음식을 맛보았는데 특 쏠는 맛이 우리 입맛에 맞아 중국관에서 구입 한 술과 함께 잠시 조출하면서도 다국적인 식탁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속초시 의회 박학성 의장과 신철 영랑동 의원, 고학재 교동 의원을 만나게 되어 극적인(?) 상봉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흔히들 말하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그렇다고 그분들이 까마귀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오후 시간대는 일행들 각자에게 자유시간을 주었다. 곧바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8시경에 역시 어제 윤광주씨와 약속한대로 고청사를 찾았다. 총 인원 45명 가운데 모두 29분이 동행하여 고청사를 찾았을 땐 이미 윤경렬(올해로 82세시다) 선생계선 공방(工房)에 불을 밝히고 슬라이드까지 준비해 놓고 계신 상태였다.

비단, 경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선생의 깊이 있는 강연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경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좀처럼 마주칠수 없을 좋은 기회였다. 돌아가는 차 속에서 참석하기를 잘 했다는 이야기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고 가게 된 건 당연한 일이



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잠깐 윤경렬 선생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선생에 대한 예의이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준 윤 사장을 향한 감사의 표현일 것 같다.

1916년 생이신 선생은 함북 주율이 고향이며 우리 문화를 찾고 가꾸는데 80평생을 바쳐 오신 분이시다. 1949년 경주에서 풍속인형연구소 고청사를 설립하여 우리의 얼굴과 풍속을 기초로 인형과 기념품을 제작해 오셨으며, 1954년 진홍섭 선생과 함께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설립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아울러 자긍심을 심어 주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

제2회 동아 햇님 어린이 보호부문수상(동아일보 주최)을 비롯해 상록수상, 외솔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저서로는 《경주 남산 고적 순례》《불교 동화집》《신라의 아름다움》《신라 이야기》《겨레의 땅 부처님》 1997년에 학교재에서 출간된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윤경렬 평생이야기》 등이 있다.

10월 16일(금) 맑음 셋째날

오늘은 귀향길에 오르는 날이다. 민속 공예



촌을 시작으로 신라 역사 과학관·감은사지·문무대왕 수증릉·이견대·영일만 등대박물관 등을 방문 또는 답사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밟아가게 될 것이다.

숙소인 부성장여관에서 오전 8시에 출발. 경주 민속공예촌에 도착하니 일찌감치 윤광주씨가 직원들과 함께 우리 일행을 마중나와 있었다. 이 공예촌은 15, 6년 전에 윤광주씨가 직접 기획·설계·제작하여 완공된 것이라고 한다. 불국사와 보문단지 사이 토함산 기슭에 위치한 이 곳은 조상들의 멋과 열과 솜씨를 이으려는 신라의 후손들이 모여 있는 마을로 금속·도자기·목공·보석·자수·토기·공예 등의 공방이 있어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했다. 한편, 공예촌 내의 신라 역사관은 교육적인 가치가 뛰어나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이 곳을 떠날 때 윤사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귀한 얼굴수막새 모형 토기 한 상자를 우리 일행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문화원에서는 윤광주 사장과 직원들을 차 안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답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후일 사료관 관계로 속초를 방문할 때는 문화원에서 톡톡히 갚아야 할 빚을 진 셈이다.

이제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는 경주 시내를 벗어나 경주시 양북면 용담리의 감은사지(感恩寺址·사적 제31호)로 향했다. 감은사는 신라 31대 신문왕(神文王)이 부왕(父王)인 문무왕(文武王)의 유지를 받들어 재위 2년(682)에 완공한 사찰로 현재는 거대한 삼층석탑 2기와 절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감은사는 창건 연대를 알 수 있는 쌍탑식

가람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1959년과 1997년의 동·서탑 해체 수리 때 석탑안 사리공(舍利孔) 속에 당대를 대표할만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되어 신라의 금속조각이 당(唐)나라의 금속조각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기도 했다.

회랑지 북반과 강당지에 민가가 들어서는데, 대부분의 절터는 현재 밭이 되어버렸다. 만약 문화유적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허락된다면, 하급지는 유명세를 타고 관람료를 내는 곳이며 중급지는 덜 알려지고 관람료가 저렴한 곳이고 상급지는 폐사지 같은 곳으로 관람료는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는 곳이라고 한다. 그 이유중 하나가 아마도 폐사지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해 여기가 감은사지임을 알수있게 해주는 것이라고는 겨우 안내판 정도일 뿐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문무대왕 수증릉으로 향했다.

문무대왕 수증릉(사적 제158호) 역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적지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7필지에 위치해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신라 30대 문무왕의 능으로 토함산에서 동해로 흐르는 대중천 하구 바다 가운데에 있는 수중릉이며 681년 왕의 유언에 따라 화장한 뒤 그 유골을 뿌린 산골처로 짐작되고 있다. 감포읍 대본리의 이견대에서 약 동남쪽으로 250m 떨어져 있다. 대왕암 안에는 동서남북의 십자로가 나 있어 이곳으로 바닷물이 파도를 따라 항상 동쪽에서 들어와 서쪽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부 수중 65cm 아래에 위치한 거북 모양의 돌은 다른 곳에서 운반하여 온 듯 대왕암의 석질과는 다르다.

이곳 역시 대왕암이라는 안내판만이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주위는 온통 낚시꾼들과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휴가철에 이용 되었음직한 철골 구조물들 사이로 스산한 바람만 스쳐갈 뿐이었다.

이견대(利見臺·사적 159호)는 대왕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도 역시 삼국통일을 이뤄낸 영군(英君)인 문무대왕의 혼이 깃든 곳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문왕(神文王)이, 즉위하던 해인 681년, 선왕(先王)의 능이 잘 보이는 곳에 감은사(感恩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였는데, 다음 해에 감은사 앞으로 작은 산이 떠내려와 점을 쳐보니 문무대왕과 김유신이 뜻을 합쳐 나라를 지킬 귀중한 보물을 전할 징조라 하였다. 산세는 거북머리 같고 그 위에 한 그루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돌이 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이튿날부터 7일간 천지가 진동한 후 모든 것이 평온해지자 왕이 바다를 건너 산에 오르니 한 마리 용이 나타나 흑옥대를 바치며 말하길 “두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 대나무도 합쳐진 뒤에야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세상이 화평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선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뜻을 합치시어 저로 하여

금 왕께 바치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은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고 월성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후 그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모든 병이 나았으며, 장마때는 비를 그치게 하고, 가뭄에는 비를 내리게 하니, 이에 모든 파랑(波浪)을 그치게 한다하여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칭하고 나라의 보물로 정하였다고 한다. 이견대(利見臺)란 이름은 《주역》의 “비룡재천(飛龍在天) 이견대인(利見大人)”이란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신문왕이 바다에 나타난 용을 본 뒤 나라에 크게 이익이 있었다는 뜻이며 지금의 이견대는 1970년 발굴 당시 건물지(建物址)가 확인되어 복원된 것이다. 문무대왕릉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다.

답사 일정의 마지막 코스인 영일만 장기곶 등대박물관을 방문하였으나 “내부수리중”이라는 팻말 앞에서 일행은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경비실에다 멀리서 온 일행이니 창 밖에서나마 내부를 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헛일이었다. 박물관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한것으로 그나마 만족해야 했다.

일행들의 노래소리도 들어가면서,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귀향길은 순탄하게 이어졌고, 예상보다 이른 시각인 밤9시에 문화회관 광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심부재 心不在 하면
시이불견 視而不見이요
청이불문 聽而不聞이라

“저것이 무엇인가”하고 찾아보려 해야 비로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나니……

문화유산답사의 화두(話頭)를 말미에 적어 보며 글을 맺는다.

설악산 개발에 얽힌 이야기

崔九鉉
원로 사진 작가



<약력>

- 1920년 고성 출생
- 1960년 교통부 공로표창상 수상
설악산 개발 공로
- 1969년 강원도 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 현재 원로 우대 사진작가

1956년

양양(襄陽) 군수 일행과 처음으로 설악산 신흥사(雪嶽山 新興寺)와 비선대를 답사하게 되었다. 그 때가 벚꽃이 만발하여 보기가 좋았다. 당시 마등령 입구 채 못 가서 바위가 마치 쌀가마니를 쌓아놓은 것 같아 당시 군수가 이 바위 이름을 군량암(軍糧岩)이라 그 자리에서 명명하였다.

비선대까지 가서 중식을 하고 돌아왔다. 그때 촬영한 신흥사의 벚꽃 사진을 확대하여 군수에게 선물했다.

1957년

속초 고교 2회 졸업생 앨범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 앨범을 보고 온 사람이 이달영(李達永) 씨로 씨는 토성면 신평리(土城面 新坪里) 출신

으로 속초에서 기자단 단장을 하고 있었다.

첫마디가 그 앨범 사진을 당신이 찍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자, 씨가 설악산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양양에서는 설악산 개발을 서둘고 있어 지방의 유지급 인사들이 대거 강원도에까지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은 나 역시 고향이 금강산(金剛山)이고 보면 고향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생각이라 설악산을 금강산 삼아서 한번 설악산에 정을 들여 친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이라 씨의 뜻이 반가워 조건 없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입산 준비로 사진기가 문제였다. 그래서 서울로 부산으로 연락을 취하여 '라이카'나 '로라이' 코드에 맞는 광각렌즈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구하지 못해 고향 금강산에서 사용했던 120mm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은 대·중판(大中判)형에 사용하는 렌즈를 힘은 들지만 영업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기기는 5×7판 기기와 로라이 코드 3C에 135mm 망원 렌즈를 포함하여 3대의 기계로 준비를 마쳤다.

이달영 씨는 당시 양양 군수(박하영 朴夏永·작고)에게서 당시 화폐로 일십만 원의 지원금을 약속받았다.

1957년 8월

드디어 입산을 시작, 날씨는 잔뜩 흐려있었다. 다음날이면 개일 것으로 생각하고 일행은 나와 조수 한 사람, 사진기와 재료·현상 약품과 그 외의 도구들을 나누어 챙기고 인부 4명은 10일 식량을, 안내원 전(全)씨, 수행원 2명, 3군단 공병대에서 지뢰탐지기를 갖춘 무장군인 1명으로 11명이 입산하였다.

첫날 계조암에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3일을 그냥 머물면서 라디오 일기예보에 의지하여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렸다. 서둘러서 영을 넘어 백담사로 이동, 저항령으로 올랐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물이 흐르고 송림이 우거진 곳에 짐을 내린 일행은 하룻밤을 야영하고 다음날 정오에 백담사에 도착했다. 날씨는 쾌청, 하루를 쉬고 이튿날 일찍 첫 코스를 대승폭포로 정했다.

백담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대승령을 넘어서 촬영을 하기로 했다. 불어난 물을 걱정하였던 것이 적중하여 백담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오세암을 다음 장소로 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수렴동, 쌍폭동, 봉정암, 청봉, 가야동 촬영을 하고 밤에는 현상을 하기도 했다.

결과는 좋아서 5일 동안 오세암과 봉정암에서 머물고 마등령을 넘어 신흥사로 돌아왔다. 당시 사찰에는 인적이라고는 찾을 길이 없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안내원 한 사람과 나만이 남고 다른 사람들은 속초로 하산하였다.

날씨는 좋아서 울산바위, 천불동과 권금성, 토왕성폭포까지를 촬영을 마친 셈이었다. 미흡한 사진은 몇 번이고 다시 가서 재촬영하기도 했다. 즉시 인쇄할 준비를 시작하면서 동시

에 전시용 전지(全紙)로 확대, 작업과 명소의 이름짓기와 유래등 수집한 문헌을 챙겨 인쇄소에 맡긴 것이 11월쯤이었다.

1958년 4월 사진첩이 완성되어 1차로 100부를 서울 요로에 배포하였으며 2차로는 200부를 강원도에 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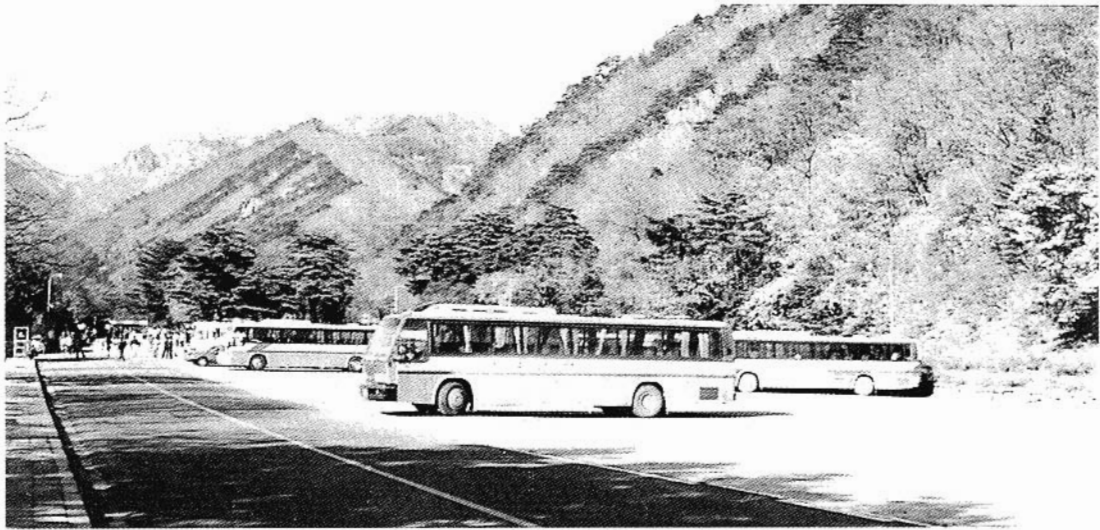
당시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설악산 사진첩을 보고 양양과 강릉은 물론, 각지에서 그 지방 명소 앨범 제작에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당시 교통부 관광과를 방문하여 설악산 개발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의견을 피력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요망사항을 전하며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이달영 씨와 나는 한번 서울로 갔다 하면 10여일씩 여관에 머물기는 다반사였다.

7월 초에 교통부 관광과에 갔더니 전화 통화에서 변산반도에 임시 열차 및 식당차등 여행 준비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관장에게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문자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단체가 있는데(로알학회) 주말 여행을 변산반도로 가기로 했으며 그 때문에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 단체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카밀라'라고 한다.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다음날 찾았더니 민병길이란 사람으로 지난 해에 설악산에 왔었던 사람이었다. 찾은 까닭을 말했더니 설악산에 왔었지만 자동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나빠 설악산 여행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 이달영 씨가 작년 일은 옛날 일로 자동차가 빈번하게 다닌다고 하자 그 날 저녁에 출발이니 여하튼 회원들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침 가지고 갔었던 사진첩을 보였더니 사진첩을 여러 권 가지고 가 보고 동의를 얻자는 의견이었다. 그 날 저녁 시간을 맞추어 열차에 올랐다.

이달영 씨와 사진첩을 한아름 안고 드문드문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반응은 좋은 편으로 '카밀라'가 영어로 몇 마디 던지자 곳곳에서 소근거리는 것이 호기심을 가지는 눈치였다. '카밀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전하는 말은 일단 변산반도에 도착하여 설악산 여행의 가부를 결정하여 곧 연락하겠다는 것이었다.

일요일 밤에 돌아왔을 때 전원이 찬성한다는 낭보가 날아와 우리를 뛰도록 기쁘게 했다. 이에 이달영 씨가 속초에서 설악산까지의 도로 공사를 요청하자는 제의로 이튿날 건설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설악산은 말할 것도 없고 속초 지역은 당시 수복 지구인 관계로 군부와 협의함이 옳다고 하여 육군 본부에 문의 결과 제1군단의 소관으로 본부에 시달한다고 하므로 즉시 원주로 갔다. 군단에 도착하니 송(宋) 사령관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송 사령관은 즉석에서 꽤히 승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마침내 사람 모두 지원병 출신으로 더욱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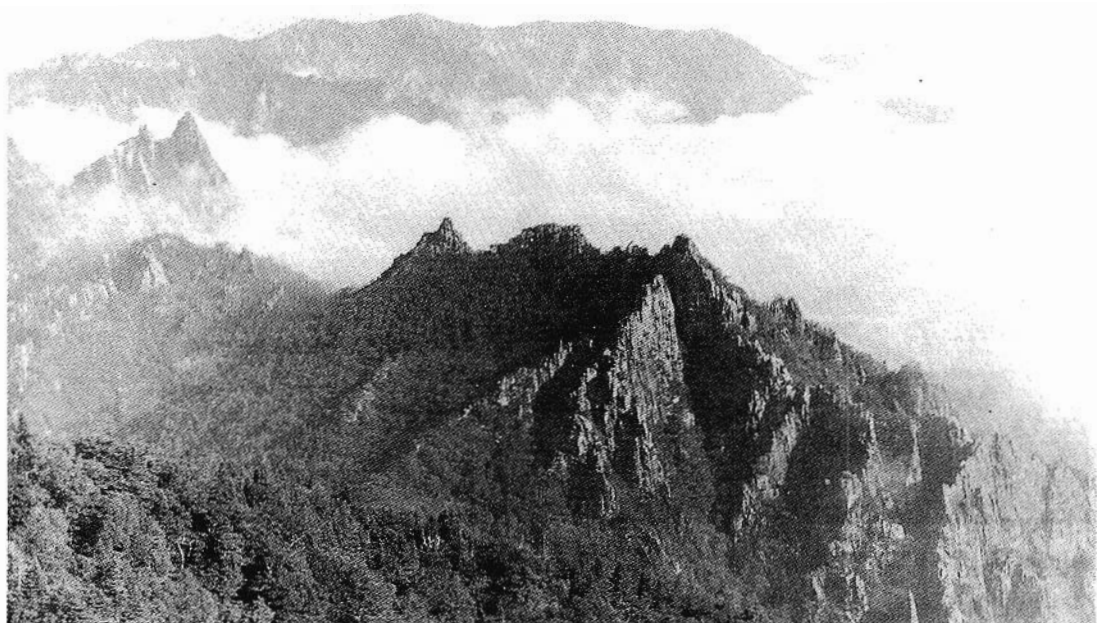
속초로 돌아와 3군단 공병대를 찾아서 대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날짜도 정하고 나니 10여일의 여유가 있어 대장에게 말기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10일 후면 외국인 단체가 속초를 찾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닌

가! 양양군수, 경찰서장, 속초읍장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으로 협조를 부탁하였다.

실은 상도문에서 똑갑바위 사이의 암벽 발파 작업이 문제였다. 도로 보수는 강선에서 신흥사까지 하기로 하고-여기는 전쟁으로 군용차가 다니던 곳이다-공병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기존 군용 도로의 확장이라 1주일 기간으로 공사를 끝내고 속초 금강운수에서 서울행 버스를 시험운행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마침내 외국인 단체가 오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좋아하는 사람은 이달영 씨와 나 두 사람 뿐이며 주민들은 그저 무신경이었다. 전성우 읍장에게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환영하여 주기를 부탁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은 3군단 사령부와 화진포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속초에 도착한 것이 18:00. 속초 읍민과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강선리 고개를 넘어 확장한 길로 달리기 시작하였으나 일행의 차가 멈추기를 몇 차례. 서울에서 온 차의 폭과 속초에서 운행되는 차의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선두에서는 군 지프차의 인도가 있었다. 비포장도로이고 급하게 도로를 확장한 관계로 달리는 차 양 옆으로는 들이 차에 부딪히는 소



리가 나기도 했다. 욕심으로는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특히 커브길에서 서울역 구내 식당차의 옆이 우그러지기까지 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기억이 새롭다.

속초에서 오후 7시경에 출발. 신흥사에 밤 11시가 지나서야 도착하였으나 이 날 따라 날씨는 흐리고 안개까지 끼어 설악산의 웅장함을 즐길 수 없었던 것이 흠이었다.

숙소는 신흥사의 허름한 법당과 정묵당 보제루였고 나무 침대, 모포등 침구는 3군단에서 제공, 그나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식사는 구내 식당차에서 준비하였으며 신흥사 밑의 숲속에 후로링을 깔고 무도장을 설치하였는데 군에서는 군악대와 전기 시설까지 제공해 주었다.

막상 일행이 도착한 설악산은 자연 풍광 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전화(戰禍)에 할퀴어진 사찰이 전부였다. 전기 시설이라는 것도 라바선으로 연결한 100W짜리 전구 수십개가 고작이었으며 그것 또한 스위치를 누르기가 무섭게 전선이 녹아버리기 일쑤여서 세면기에

모래를 넣고 휘발유를 부어 냇가 길을 밝히고는 요소(要所) 몇 군데에만 불을 켜고 초까지 동이나 암담할 뿐이었다.

일행들은 아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없어 더욱 산중의 밤이 적막하였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한 것인지 황덕불만 쪼이고 있었다. 표정을 살펴 보니 공포에 휩싸인 모습들이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안개는 서서히 걷혀갔고 설악산은 드디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이들에게 선연히 드러내 보였다. 이 때다 싶을 정도로 사방에서 '원더풀' 소리가 설악산 골짜기를 흔들며 놓는다. 이것으로 성공이다 싶었다.

100여 명이 되는 인원을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비선대로 향하고 2조는 계조암으로 향하면서 1조의 안내는 이달영 씨가 2조는 내가 맡았다. 정고평을 지나 와선대로 가는 길에서는 냇물에서 먹감기가 벌어졌다. 모두들 점심까지 잇을 정도로 취하는 것이었다. 점심이 도착하였음에도 냇가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전날 저녁 암담했던 때와 달리 일행은 설악산에 매료되어 하루를 더 묵고 가자는 의견이 모아져 인부를 신흥사로 보내 연락을 취했다.

다시 전기 시설을 보완하고 군악대는 연주 연습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1, 2조는 모두 해거름에서야 신홍사에 도착, 식사를 마치고 불을 대낮같이 밝힌 채, 무도회장에 모여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군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흥겨운 밤을 보냈다. 다음 날은 1조는 계조암, 2조는 비룡폭포로 코스를 잡아 오후에는 모두 비룡폭포에서 합류하여 오후 늦게서야 일행은 강릉으로 떠났다.

이로써 설악산이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던 주민들이 그때서야 설악산이 이 고장에 있다는 것과 명산이기에 외국인 여행단이 왔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해서 속초의 관광의 서광이 비추게 되었고 신홍사 앞 부지 300평 정도를 사찰측과 임대 계약하여 입주 희망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대로 영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양양·고성·속초에 널리 알렸다. 각종 업소가 개업을 시작하여 어설피지만 하나의 관광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9년

우리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점포 10채를 세우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였고 강원도에 오는 귀한 손님들을 설악산에 모실 수 있도록 권유한 결과 당시 읍에서 설악여관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설악산에 들어선 여관 제1호다. 벌써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 서울과 속초에서 낙산 해수욕장, 화진포를 운행하는 여름철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 해부터는 연중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했다. 그로부터 각 지역의 수학여행단이 본격적으로 쇄도하기 시작했고 숙박 업소도 하나 둘 씩 늘어 발전 전망이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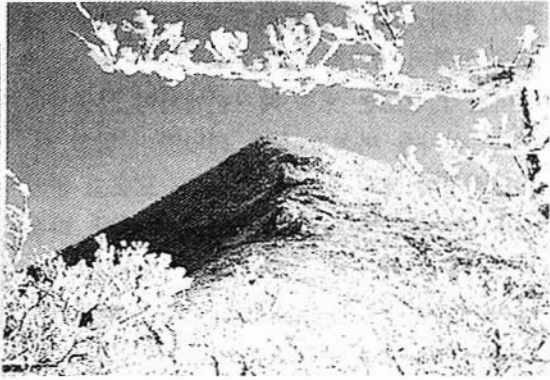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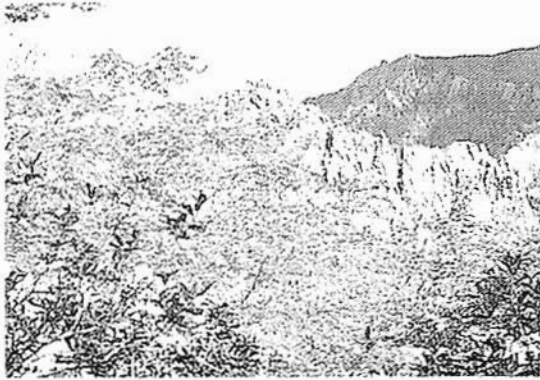
교통부 관광과에 들렀다가 제주도과 광주 무등산에 철도 호텔이 세워진다는 말을 들었다. 웃지 못할 이야기로 설악산에 철도 호텔이 배

정된다는 것이었다. 다각도로 생각해 보며 관광과장을 만나니 국회에서 정하는 일이라고 하기에 속초 출신 국회 의원이 문체 분과 위원장이라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어 이달영 씨가 나섰다. 만난 결과 설악산에도 철도 호텔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꼭 실현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언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무등산 호텔 20실 가운데 1/2을 설악산과 나누어 짓기로 결정을 보았다는 통지가 왔다. 곧 이어서 김일환 당시 교통부 장관이 참석 기공식까지 치르고 1960년 초에 운영하며 운영권은 강원도에 일임한다는 것으로 호텔 운영자를 도내에서 찾아보았으나 적당한 인물이 없어 우리 두 사람이 도에 불려가서 호텔을 맡으라는 권유에 쾌히 승낙하였다.

호텔은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겨울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성 있게 운영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다. 이런 여러가지 곡절 끝에 탄생하게 된 이 호텔엔 얼마 뒤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이기붕, 박 마리아 등도 와서 머물다 가기도 했다. 한 편 호텔의 월동 준비가 전무하다시피하여 이를 충당하기에 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라 운영권을 교통부에 넘기게 되었다.

관광 사업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통이다. 육로 뿐만이 아니라 항공로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항공로 개설을 위해 항공사에 서울과 속초간 노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항공사로부터는 시장 조사를 한 후 결정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 후에 과장급 항공사 직원 2명이 현지 조사를 오게 되었다. 이들이 3일간 머무르는 동안 시장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가능한 한 운항이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설득을 거듭한 성과가 있었는지 마침내 극동 항공이 운항을 개시



하게 되었고 이어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오늘날까지 운항하고 있다.

또한 국도에서 설악산 신흥사까지의 도로 개설도 시급한 문제였다. 5·16후에 최고 회의 오정근 의원이 휴식차 참모 2인과 설악여관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일행 가운데 참모 한 사람이 6·25 때 같은 공병대에 복무한 적이 있어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의원에게 접근, 이달영 씨와 술자리를 마련해 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비우며 우리의 요망인 국도에서 설악산까지의 도로 개설 문제를 내놓았다.

잠잠이 상세한 얘기를 주고 받는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을 적에 한번 봐주시오”하는 따위의 우스갯소리도 해가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다음날 이달영 씨가 비선대로 안내하고 그 뒤를 이어 내가, 사진도 찍어 가면서, 안내를 맡았다.

일행 3인은 모두 부인들까지 동반했으며 마지막으로 화진포에서 해수욕까지 즐기고, 헤어질 때는 도로 개설을 성사시켜 달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효과를 보아서 물치리에서 도문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관광로가 들어설 수 있었다.

천불동에서 대청봉까지

항상 대청봉으로 가는 길은 영을 넘어서 백

담사와 봉정을 통하는 것이었다. 이 길은 아무런 길이다. 천불동을 지날 때면 길 뚫는 일만을 생각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 자금줄 즉, 돈이 문제였는데 마침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관광협회 기금 8만원이 조성되어 이를 공사비로 충당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극히 소액이지만 공사비로 사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모자라는 비용은 별도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가 시작되자 설악동 주민 4명이 말하자면 자원봉사로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양양 철광에서 필요한 대로 철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식량은 시청에서 구호미를 지원받기로 하고 책임은 내가 맡았으며 암반에 철근을 박는 일 또한 봉사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앞장을 섰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된 후 어느날은 시내에서 일을 보고 늦게 공사장에 도착하여 보니 암반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전혀 손 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하여 다른 작업 현장에서 실습을 거치게 한 뒤에야 다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철근을 박을 때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자동차 체인을 풀어 철주와 철주를 잇기도 하는 등,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천당폭앞에 조교(吊橋)를 가설하는 것을 마무리로 해서 마침내 소청봉까지의 산로가 개설되게 되었던 것이다.



바람처럼

살다간 도인(道人)

춘성(春成)스님

속초고를 졸업하고 동국대와 동국대대학원 그리고 관동대 교육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했으며, 육군 소령(군종 법무사)으로 예편하여 현재 속초시 민방위 소양 교육 강사이며, 낙산사 상임 법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崔顯植 속초문화원 이사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춘성(春成)스님은 1891년 3월 30일 설악산 설악동 출신으로, 속성은 평창 李씨며 속명은 昌林이다. 법명은 춘성(春成), 법호 또한 춘성(春城)이다. 스님의 출가전 이야기는 별로 전하는 것이 없으나 모친의 태몽에 의하면 푸른 하늘에서 한 동자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품안에 들어 왔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하며, 9세 때에 모친을 따라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 불공을 올리는 중에 법당에 모셔진 불상(佛像)을 우러러보고는 출가(出家)의 뜻을 양친(兩親)께 고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03년 13세에 만연휴과(萬緣休罷)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설악산 백담사에 입산(入山)하여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승려가 되겠다고 간청하였으나 승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허락하

지 않으며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자 “아! 경계 좋다. 이곳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산단 말인가.”하는 노래가 들려 왔다. 한용운 스님이 방에서 문을 열어 보니 춘성(이때까지는 속인 이창림)스님이 폭우 속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춤을 추며 하는 노래였다. 그 뒤 만해 한용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다. 이후 10여 년동안 계속 스승인 한용운 스님을 모시고 백담사에서 공부하다가 안변 석왕사(釋王寺)에서 전문강원(傳聞講院)의 대교과(大教科)를 수료(修了)하였다. 그후 스님은 강학(講學)을 전공하였으며 특별히 화엄법사(華嚴法師)로 세상에 명문이 드높았고, 또한 고성(高聲)의 음(音)으로 염불에도 장강유수(長江流水)처럼 능하였다. 1920년인 30세에 설악산 신흥사 주지로 취임하여 사찰의 흩어져 있는 부동산들을 정리하고 많은 전답을 모았다. 그후 안변 석

왕사 주지를 지내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칠보사를 창건하고 도봉산 원통사를 중창하였다.

춘성스님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스님의 기행(奇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님은 경전을 두루 읽어 박식했고 글재주도 뛰어났다. 40세에 만공(滿空)선사의 문하에 들어가 화두(話頭)를 받는 과정에서 만공선사가 춘성스님에게 “스님은 너무 문자에 밝으니 화두를 줄 수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스님은 가지고 있던 경전을 모두 버리고 내심자증(內心自證)에만 몰두하고 사교입선(捨教入禪), 즉 교를 버리고 오로지 선에만 열중하는데 당시 수덕사(修德寺) 산내 정혜사(定慧寺) 큰방에서 수행을 하면서 한겨울인데도 방에 불을 때지 않은 채 장좌불와(長坐不臥)하였다. 그후 금강산 유점사에서 한겨울 정진중에 잠오는 것이 귀찮아 법당 뒤 큰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머리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삼동(三冬)결제를 지내고 나서는 “이제 잠은 행복 받았다”고 하셨다. 그후로부터 자고 싶으면 자고 싶지 않으면 깨어 있는 자유자재인(自由自在人)의 모습을 보이셨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이불을 덮고 잠을 잔 적이 없으셨다는 춘성스님은 대중 스님들에게도 따뜻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허락치 않으셨다. 그 이유는 수도하는 수좌가 공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잠자리가 편하길 바라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날 젊은 수좌들이 몸이 불편하여 작은 담요를 덮고 있다가 스님에게 발각되자 그 즉시 담요를 불에 태워 버렸다. 당시 망월사에서는 이렇게 태워진 이불과 담요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스님은 늘 “담심을 내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며, 가진 것을 언제나 남에게 보시하라”고 하셨다. 마음엔 화두를 놓지 말고 행함에 있어서는 보살도(菩薩道)를 놓지 말라시던 스님의 평생 가르치심엔 정진(精進)뿐 아니라 보살행까지도 늘 강조하셨다.

춘성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일한 상좌(上座)이다. 그 은사 스님이 주장한 것 중에 산신각과 칠성각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했다.

그러나 망월사에서 조실로 계실 때 그는 손수 목탁을 잡고 도량석을 하셨는데 어느날 도량석 중간에 목탁 소리가 그쳤다. 이상하게 여긴 대중 스님들이 춘성스님을 찾았더니 법당 앞 축대 아래로 떨어져 뒹굴어져 있었다. 그러다 스님은 “수행자라면 도량신(道場神)을 업신여겨서는 안돼. 산신각과 칠성각의 탕화를 불태웠더니 과보(果報)가 바로 오는구나. 도량신을 편안케 하고 공부를 해야지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돼.” 하셨다.

춘성스님은 은사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론」을 소중히 생각하였으나 산신각과 칠성각은 물론 제반의식(諸般儀式)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방귀 끼는 법을 일렀다. “사람은 기가 안 빠지게 방귀를 끼어야 해. 힘주어서 뽕뽕 끼게 되면 첫째는 치질이 걸린다. 둘째는 기가 빠져서 좌복에 오래 앉아 있질 못해. 좌선 중이나 그 밖의 처소에서 소리 안나게 가만히 끼어야 해.” 이 이야기는 참선을 하는 일의 공중도덕이며 모든 행동에서 무애행(無碍行)을 하셨지만 타인에게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품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스님께서서는 평소에도 대중들과 함께 행동하고 공양도 같이 했었는데 이러한 생활은 열반(涅槃)하시기 전까지도 계속되었다. 춘성스님은 학인과 수행하는 사람을 가장 아끼셨으며 도를 묻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고 하신 도리와 같을 것이다. 6·25 전쟁시에 혼자 지켰던 망월사를 전쟁후에 스님께서서는 절 주변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여 사찰을 중수하시던 중 의정부 영림서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서장이 본적을 묻자 “우리 아버지의 신두

(賢頭)요.”라고 말하셨다. 이어서 “그럼 고향은 어디요?” 하자 스님은 서슴없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이요.”라고 답하셨다. 조사하던 서장은 평범치 않은 스님의 답변을 듣고는 조사를 포기하고 풀어 주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기독교 전도사 한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가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쳤다. 그러던중 그 전도사는 춘성스님 앞에 와서도 “주님은 부활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추근거렸다. 잠자코 있던 스님이 전도사에게 말했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나는 여태 죽었다 살아난 건 내 XX밖에 못봤어.”하였다. 그러자 승려와 전도사간의 일이라 잔뜩 관심을 쏟고 있던 주위 승객들이 박장대소하였다 한다. 춘성스님은 거침없는 법문으로도 유명한 스님이시다. 고 육영수 여사의 생일 법문에 초대되었다. 당시 이름 꽤나 날리는 선지식들과 큰스님네들, 고관대작 남편을 둔 부인들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치뤄진 법회였다. 그러자 “오늘은 육영수 보살이 지 어미 뱃속에 들었다가 ‘응아’ 하고 XX에서 나온 날이다.”라고 시작하며 법문을 하셨다. 듣고 있던 대중들은 영부인의 생일에 이루어진 이런 법문에 놀라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한다. 또 어느 날 스님은 통금 시간이 넘어서 밤길을 걷다 방법 순찰 중인 순경이 스님에게 말하였다. “누구요?” 그러자 스님은 “중대장이다.”라고 대답하자 순경은 후레쉬를 비추며 “아니! 스님 아니시오?” 하자 “그래. 내가 중의 대장이야. 맞지?” 하였다. 순경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스님의 행적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스님은 분명 탈속한 무애도인(無碍道人)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길을 가다가도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진 돈을 몽땅 주었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주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극락과 천당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없고, 종교도 본래 없는 것인데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사람을 버리게 된다고 하여 역으로 종교의 참뜻을 깨우쳐 주기도 하셨다. 거침없는 육두문자를 썼으므로 “육쟁이 스님”으로도 통하는 춘성스님은 한평생을 철저한 무소유의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살다가 다비(茶毘)한 재를 모두 서해 바다에 뿌리라고 유언하셨다. 1977년 속세의 나이 87세로 봉국사에서 열반하시자 매우 크고 영롱한 사리가 나왔다. 유언대로 제자들은 모두 사리를 서해 바다에 던졌다.

필자는 춘성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일여년전 성남시의 봉국사에서 만나 뵈고 삼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죽한 인품과 온화한 산골 할아버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심술긋은 인상과 강한 도풍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요즘은 진실을 위해 서슴없이 말하는 선사가 없는 것 같다. 생사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생사에 집착되어 진실을 잃고 있으니 하늘만 보게 된다. 번뇌와 욕심에 찌들어 있는 나를 보면 춘성스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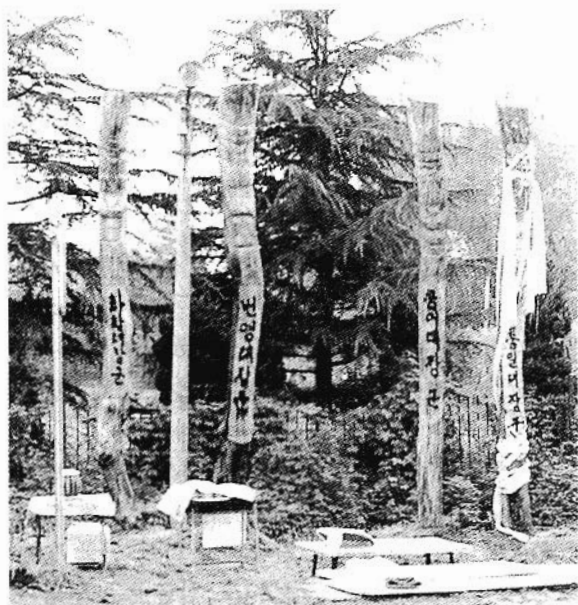
춘성스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설악동에서 출생한 설과 인제군 원통에서 출생한 설의 두 가지 설이 있으나 필자가 스님의 상좌 스님들에게 문의하고 기록을 찾아본 결과 설악동에서 출생하고 10살 전후해서 인제군 원통리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고승법어집》 흥법원, 1993
- 《현대 고승 인물 평전》 불교영상, 1995
- 《백척간두에서 무슨 절망이 있으랴》 김정휴, 1991
- 《보문사》 사찰문화연구원, 1996
- 《불교학 대사전》 흥법원, 1988

제2회 보광사 문화축제를 보고

또 하나의 장승제



박 영 도 / 본지 편집장
(향토사 연구위원)

영랑호 동남쪽에 자리잡은 가람 보광사(普光寺·주지/釋門)가 '95년에 이어 '보광사 문화축제'를 두 번째로 가지면서 장승 두 쌍을 탄생시켰다.

지난 7월 10일 설악산과 영랑호를 등지고 보광사 가람과 속초 시내, 동해를 향해 호반가에 서게 된 이 장승들엔 가람은 물론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바라는 속초 시민 대동단결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

그 유명한 '변강쇠전(가루지기)'에서도 장승이 등장하는데 펄감을 구하러 나갔던 변강쇠가 길가의 장승을 뺏아 돌아오는 장면이 그것이다. 이를 본 용녀의 사설이 일품이다.

“에그, 이게 웬일이냐. 나무하러 간다더니 장승 빼어왔네 그래.

나무 암만 귀타 하되 장승 빼어 댤단 말은 듣고 보도 못 했소.

만일 패어 때었으면 목신동증(木神動症) 조왕동증 목숨 보전 못 할 테니

어서 급히 지고 가서 전 자리에 세우고 왼발로 굴러 진언(眞言)치고
달음길로 돌아옵소.”

그러나 강쇠는 이에 아랑곳없이 장승을 패어 군불을 지피고 만다. 이에 격분한 함양장승 대방(대장)이 발론하여, 조선 팔도 장승을 모두 소집함과 아울러 장승동증을 발동해 강쇠를 공격하기에 이른다.

장승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각 지방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 지고



있는데, 서울·경기 지방의 '장승', 전라·경상지역의 '벽수', 제주의 '하르방' 이외에도 '돌미륵' '수살' '할머니' '당산' 등 다양한 명칭들이 있다.

이러한 갖가지 장승들은 눈보라치거나 비바람 부는 사시장철, 팔도 어느 곳에 서나 동구밖·서낭당·사찰 문전 등에 자리를 잡고, 미련하리만치 부라린 두 눈으로 마을의 온갖 재앙을 막아 왔으며,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영랑호반에 새살림을 틀게 된 두 쌍의 장승도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IMF사태를 극복하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이자 희망의 상징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설악산과 영랑호를 등지고 보광사가람과 속초 시내, 동해를 향해 호반가에 서게 된 이 장승들엔 가람은 물론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바라는 속초 시민 대동단결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

한편, 우리 지역에도 옛부터 내려오는 장승제 중에 아직도 계속 되는 것이 있는데, 대포동 외옹치리 마을에서 매년 삼월 삼진 날과 구월 중 구일에 성황제, 솟대(짐대, 오릿대-이 곳에선 이렇게 부른다)제와 함께 치러지곤 한다. 3년에 한 번씩은 풍어굿을 벌이기도 하는 이 마을 초입에는 현재 장승과 솟대가 함께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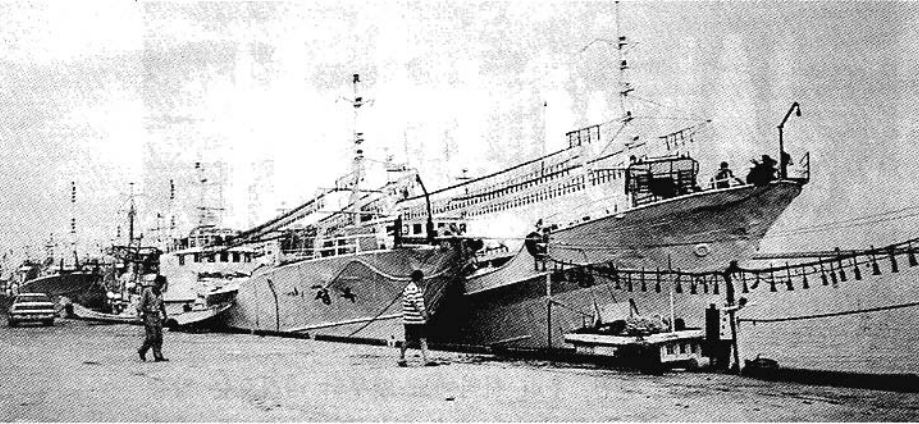
어쨌든 이번 보광사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치뤄진 장승제는 어떤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이 고장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전반에 걸친 동반자로서의 호흡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간간이 지나치는 장마비를 피해가면서 끝까지 축제를 지켜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속초 수산업의 현황



최 유 길
동우대학 수산개발과
조교수



약 력

- 1957. 5 강원도 명주출생
- 1981. 3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증식학과 졸업
- 1988. 2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원 수산생물학과 졸업 이학 석사
- 1998. 3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현)
- 1998. 7 동우대학 수산개발과 조교수(현)

수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의 채취, 번식, 가공하는 어업 양식업 및 수산제조업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수산업은 경제적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국민의 식용물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어업은 전근대적인 면을 탈피치 못하였고 수산업의 계층구조는 대규모적 자본제 어업과 영세어업의 양층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원시적 어업을 면치 못하였으나 1966년 이후 어업근대화 계획에 의하여 원양 어업을 위시하여 어선건조와 시설장비를 개선하는데 이르렀고 그리하여 무동력선에서 동력

선으로 소형어선에서 대형어선으로 개조되어 갔으며 특히 관광지역의 특산물로서의 수산생물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 수산생물의 품질개선과 냉동가공 시설을 확대하여 어민소득 향상은 물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1. 속초시의 수산업 구성

1-1. 어업기반시설

가) 항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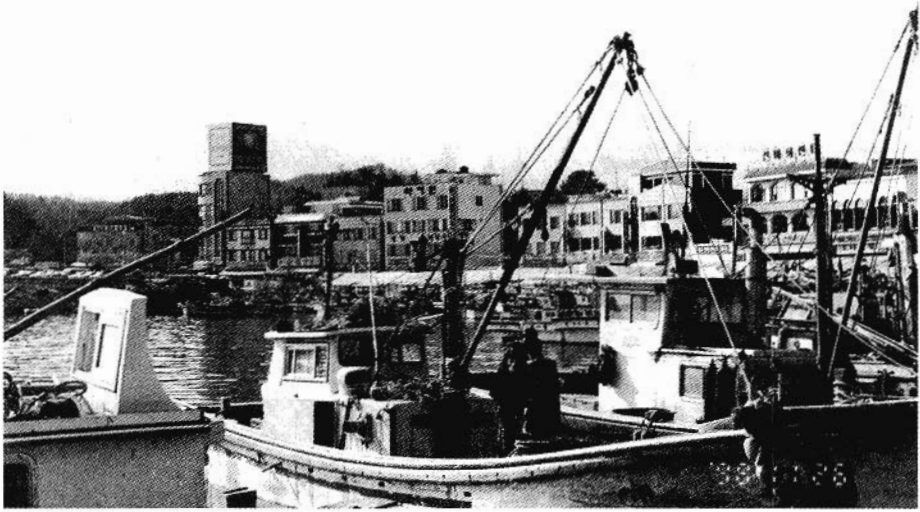
속초시의 어업 기반시설인 속초항은 원래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존(富存)되고 있는



므로 어항으로 발전했으나 양양철광이 개발되어 철광석의 선적량이 늘어 나면서부터 철광석 적출항으로도 한때 큰몫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1874년부터 철광석, 시멘트, 유류, 선어, 양곡, 기타 해상 화물량이 격증하여 항세는 물론 속초시 발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속초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물(어업포함)은 육해공로로 수송수단으로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설악산과 절경의 해안선을 끼고 있어 관광자원권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속초항은 항만의 생성과정에서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1953년 수복이후 1961년까지에는 축항 사업이 거의 없었으며 소규모적인 어항 보수유지 사업에만 그쳤었다. 그러다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시작된 1962년부터 항만건설 종합계획에 따라 시설보강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962~1965년까지 5년간은 수로의 풍파를 막기 위한 남방파제 축조(85m)와 기설 남방파제 보수(100m) 및 수면유지준설(80,000 m^3)등 수로 광복개수공사에 착수 철광석을 반출하기 위한 200톤급 부선의 원활한 통로설비를 꾀하였다. 1973~1977년까지 6년간은 수로의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 수로의 암을 준설하여(7,782 m^3)

수로를 4.6m로 유지케 하고 700톤급 철강선의 입출항이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항내 정비 사업으로는 청초동의 서측 해안 전면에 540m의 호안을 축조하여 해안을 보존하고 준설토를 이용한 후면 매립지 조성이 가능토록 했으며 물량장(406m)을 연장 축조하여 어선의 출입항 및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항만 시설물의 확장투자에 힘 입어 1977년 말에 13,000톤의 화물 적하능력을 가진 야적장(5,420 m^2)의 완공 및 북방파제(사석혼성제 144m)와 남방파제(사석혼성제 576m) 기타(사석재 132m)등 총 852m의 시설과 접안 시설로 물량장 920m와 호안(중력식 980m)이 건설되어 오늘에 속초항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속초 관내의 중요 어항으로는 제1종 항만인 대포항(1종어항) 및 사진항(군소어항), 외옹치항(군소어항)이 있다.

탱크별	시설년도	규모	저장능력
제1탱크	1960	90평	2,500 D/M
제2탱크	1960	68평	1,500 D/M
제3탱크	1970	51평	950 D/M
급유부선	1982	169톤	1,300 D/M
합 계			6,250 D/M



나) 급유시설

현재 속초항내의 선박 유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로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저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어촌구성

2-1. 어가 및 어촌계

속초시의 해안선은 총 9.4km에 달하며(해안선을 가진동으로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청호동, 조양동, 대포동)총면적 104.84 km²에 총가구수 19,355호로서 인구 73,424명(1989년말)로서 이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로는 2,877가구에 10,343명(1988년 말)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중요 수산업 대상어종의 어기에 따라 많은 폭으로 변동이 있으며 더욱 최근에는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에 대한 이직이 늘어 1998년 7월 말 현재에는 어업가구수는 1,494가구에 어업인구는 5,378명이 종사하고 있다.

3. 어업 경영규모

3-1. 면허어업

가) 공동어업

현재의 속초의 수산업의 어업권은 공동어업(제1종 공동어업, 제2종 공동어업, 제3종 공동어업)과 양식어업, 정치어업권으로 크게 대별 할 수 있으며 제1종 공동어업이라함은 수심 15m이내의 해역에서 갈게, 나잠, 낚시대 등으로 해조류와 정착성 유용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을 말하는데 현재 속초시에는 장사동 대포동, 대포내물치, 대포외용치 2건과 속초지선에 총 6건의 1종 공동어업권이 있고, 제2종 공동어업권은 연안으로부터 500m이내 해역에서 지인망 어구 등을 육상에서 인력으로 잡아당겨 멸치, 잡어 등을 채포하는 어업을 말하는데 속초시에는 한건도 없다. 제3종 공동어업은 연안으로부터 1,000m이내의 해역에서 건망, 선망, 삼각망 등을 설치하여 연안으로 회유하는 도루묵, 쥐치, 방어, 고등어 등을 채포하는 어업건으로 3건이 있으며 3건 모두 건망이다.

나) 양식어업

양식어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곳에 유용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이식하여 인위적으로 관리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며 면허 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한데 속초시는 항만구역이 넓고 주변해역은 속초 내항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양식 어업은 활발하지 못하며 3개소에 우렁챙이 수하식 양식장과 1개소의 육상어류 축양시설이 있으며 5개소의 가리비 수하식 양식장이 있다. 패류양식의 경우에는 양식생산은 제1종 공동어장 내에서의 생산량은 전복 6.8톤, 소라 0.1톤으로 현재까지도 소량의 양식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속초 해수욕장 주변에서 민들조개, 개량조개 등의 패류가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으며 속초 내항의 오염원의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여지는 좋지 않다. 그러나 항구에서 떨어진 수역의 암반지대에서는 패류의 먹이생물인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풍부하여 전복등 패류양식이 가능하며 개발 가능 적지는 31.5ha에 달하고 있다. 속초시 연안의 암반지역은 이들 유용해조류가 풍부히 분포하고 있어 식용채취보다는 이들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 성게 등의 고소득 품종의 먹이자원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해면 어류 양식장은 현재 전무하나 이는 어류 양식에 불리한 해양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지역으로 여름철의 활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풍파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층 양식에 적합한 시설물 개발과 단기 축양 및 육상 어류 축양을 병행하여 개발함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포식 및 투석식은 10년, 수하식 및 어류 축양은 7년으로 되어 있다. 현재 속초시에는 육상 수조식 1건의 우렁챙이 수하식 양식 5건으로 총 6건으로 내수면 양식건 1개를 가지고 있다.

다) 정치어업

정치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형망(18건), 건망(3건) 등의 어구를 정치하여 채

포하는 어법을 말하는데, 연안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역 10~50m해저에 어류를 어획할 수 있도록 어망을 고정설치하여 연안으로 회유하는 어류를 유도함입시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현재 속초시에는 형망(18건), 건망(3건)이 있으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곳일수록 조건이 양호하다.

라) 연안어업

현재의 속초시 연안어업의 총 허가건수는 671건중 54%인 362건이 실제 조업건수였으며 이를 어업별로 보면 유자망 163건(45%), 연승 146건(40%)으로 이 두 어업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채낚기 47건(13%), 통발이 6건(2%)이다.

3-2. 어선세력

강원도 전체의 어선 척수 총 4,281척중 속초시의 어선은 총 612척으로 강원대비 14%의 세력을 보이고 있으나 어선의 평균 톤수 면에서는 강원도 평균 톤수인 8.4톤인데 반하여 속초시의 어선의 평균 톤수는 25톤으로서 대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속초시는 총 362척중 목선이 323(89%), FRP선 39척(11%)이었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유자망은 목선 145척, FRP선 18척, 연승은 목선 130척, FRP선 16척, 채낚기는 목선 42척, FRP선 5척, 통발은 목선만 6척이 있다.

4. 수산관련단체

현재의 어민 협동체제로서는 수산업 협동조합의 17개 단체가 있으며 어촌계로는 6개가 있으며 계원수는 731명에 달한다.

5. 속초시의 수산물가공허가업체

속초시 수산 제조업체는 총 48개 업체중 냉

구 분	명 칭	대표자	회원수	설립년월일
법인단체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김용화	832	62. 4. 1
	한국어선협회 강원지부 속초분소	유인주	4	79. 1. 4
	동해구 기선저인망수협 속초지부	김완찬	23	81. 3. 4
	제1, 2구 잠수기 수산업 협동조합 속초지소	최오규	15	81. 5. 30
	한국무선종사자협회 속초출장소	김노열	300	72. 11. 1
	전국수산물 중매인 조합	박노호	24	89. 8. 20
	속초어촌지도소	오창업		
	속초시어업무선국	정재덕		
자생단체	강원정치망협회	이상덕	30	80. 3. 31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속초 선원노동조합	김규원	900	81. 5. 14
	속초시선장협회	김규원	120	81. 5. 14
	속초지구채낚기 선주협회	황갑천	67	79. 3. 18
	속초시 어민후계자협회	진영만	46	89. 9. 5
	속초시 개통발선장협회	윤영택	50	86. 2. 16
	속초시 건조인협회	김진국	150	
	속초시 중선협회	김완찬	162	
	합 계	16개단체	2,711명	

동·냉장업체로는 11개소, 어간유 제조1개소, 통조림 가공 1개소, 건포류 20개소, 연제품 2개소, 절임식품 13개 업소이다.

6. 어업 전문인력 육성

어업인 후계자(어선어업)

강원도 전체 어민후계자 575명중 속초시 어민후계자수는 98년7월말 현재 총87명으로서 현 회장으로는 진영만 씨가 맡고 있으며 전업어가 선정자는 18명이 있다.

7. 속초의 수산물

어느지방에 있어서의 해역의 지형, 지질, 해황 등에 따라 지배되어 있는 해양생물의 분포상태는 그 지방의 수산적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속초지방에 있어서는 동해안에서의 한·난류의 교차로 인한 많은 수산생물이 분포 서

식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생물중 속초지방에서 주 어획되는 종류로는 명태, 꽁치, 도루묵, 청어, 정어리, 오징어, 대구, 멸치, 복어, 말쥐치, 고등어, 전갱이, 복어, 삼치, 가자미, 갑오징어, 북쪽분홍새우, 꽃게, 골뱅이등이 중요 산업종으로 다량 어획되고 있다.

속초시의 수산물 연간 어획량은 80년대에서는 3만톤을 넘었으나 80년대 후반에서는 2만 5천톤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태, 노가리, 오징어, 꽁치의 어획량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획고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속초시의 수산물 생산량은 41,886 M/T으로 강원도 전체의 수산물 생산량 110,035 M/T의 38%에 달하여 도내의 항구중 최고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어느 서예전의 축사에서

崔龍文 원장
속초문화원

예로부터 선비의 가까이에서 한평생을 함께 할 벗으로서 문방 사우(文房四友)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붓·먹·벼루·종이가 서로 다정하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데 책을 읽지 않고서야 어찌 글을 잘하며 글을 잘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를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 보드라운 모필 끝에서 묵향(墨香)과 함께 하나씩 태어나는 글씨들은 작은 풀잎, 작은 꽃잎과도 같습니다. 잘 쓴 글씨든 못 쓴 글씨든 붓으로 써어진 글씨에는 생명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붓은 끝이 부드러움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영혼을, 의지를 그리고 그 생명적인 리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춘원 이광수(李光洙) 같은 이는 그의 작품 《붓 한 자루》에서 아래와 같은 시(詩)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붓 한 자루
나와 일생을 같이 하란다.
무거운 은혜,
인생에서 받은 갖가지 은혜,

어찌나 값으리
무엇해서 값으리
망연도 해,
쓰린 가슴을 부듬고
가는 나그네 무리,
쉬어나 가게,
내 하는 이야기를 듣고나 가게.

오늘날 같은 섬광(閃光)처럼 빛나는 정보화 시대 앞에서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서예(書藝)는 조형 예술의 관점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여기에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면면히 이어온 원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 초등 학교에서부터 한자(漢字)교육과 더불어 '문방 사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육 방침을 세운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세 번째 회원전에 더욱 고무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전이 계속 이어져 이 고장 서예인들의 긍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묵향의 문화 도시로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戊寅年 晩秋에



金 鎬 應
속초문화원 이사

6·25의 교훈



대화퇴(大和堆) 죽음의 삼각 파도를 헤친
속초시민의 불굴의 투지와 저력
전쟁폐허에 관광 신도시 건설
남북공존, 평화달성이 소망

약 력

- 1933년생
- 수산업 자영
- 경제기획원 통계국
- 대한일보 기자
- 강원일보 기자
-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속초문화원 이사(현)
- (주)상목 고문(현)

6·25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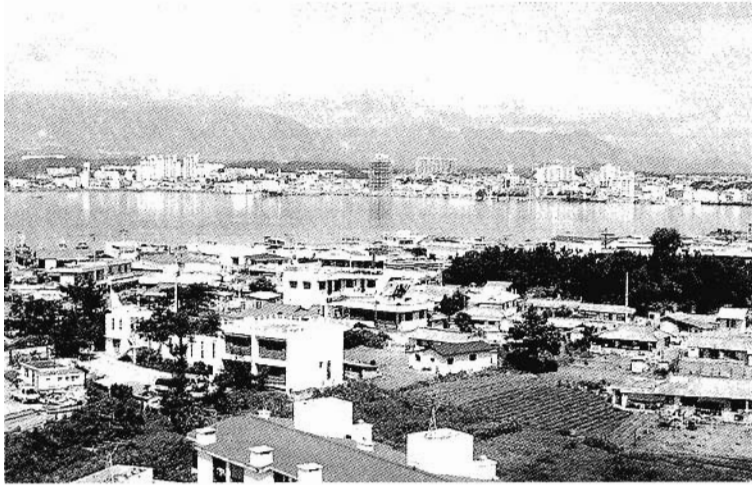
나는 6·25때 함남 신포항에서 선박편으로 아버지와 동생, 삼부자가 포항까지 남하. 다시 여수항까지 철수했다가 1군단 사령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찾아 52년 3월 육로로 38검문

소를 거쳐 속초에 왔었다. 속초의 첫인상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생필품의 부족현상은 극심한 가운데 거리에 활보하는 인파는 군복 일색이고 허리에 권총을 휴대해야 유명한 대접을 받는 시절이었다. 도로는 비포장도로이고 비만 오면 고무장화 없이는 다니기가 어려웠지만 군 고급 지휘관이 탄 지프차가 통과할 때는 기관총을 장착한 선두차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질주하던 시절이었다. 주택은 미군 보급부대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판자로 만든 판자집 정도면 호화주택에 속했고 대부분의 실향민들은 속에 기름종이가 들어있는 박스로 지붕과 벽을 감싸 만든 것이 일반주택이었다. 옷은 90%이상이 군복을 염색한 것이고 치약, 비누 등 생필품의 대부분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으며 담배와 껌은 미



제가 전부였다. 그 시절의 주민분포는 남하 철수민(실향민)이 전체 인구의 65%이상으로 추산되고 행정, 치안, 의료 분야의 기본은 군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행정체계는 군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정권은 제한 받아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반공투쟁 경력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런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새장에 갇혔던 새가 풀려나 대자연속에 훨훨 날아가는 기분을 모두들 실감했을 것이다. 총칼 든 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이 고장도 자유 대한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폐쇄된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제한 받다가 풀려난 기쁨은 인간답게 사는 즐거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몸은 자유의 물결 속에서 행복을 구가했지만 경제적 궁핍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도 전쟁 수행으로 국력의 대부분을 전투력 증강에 투입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실향민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스스로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새로워져 서부 개척정신을 능가하는 초인적인

노력이 확산되어 서서히 생활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불가능은 없다는 명언을 실현하는 기적을 낳기 시작했다. 비근한 예는 54년도 늪지대로 쓸모없던 중앙동에 영복 제일의 시장을 건설한 것이다. 손수 목수가 되고 미장공이 되어 착공 4개월만에 중앙시장을 탄생시키는 기적을 낳았다. 이렇게 하여 실향민들은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원주민들을 제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부자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행진에서 탈락되는 계층은 북한에 많은 재산을 남겨 놓고 남하한 실향민의 대부분이 차지했다. 이무렵 속초 앞바다는 조류, 패류는 물론 어족자원이 우글거려도 이를 어획할 어선과 어구가 없어 노다지 어군을 놓치고 있었다. 실향민들이 남하 할 때 타고 온 창이배(무동력 범선)는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서 별 쓸모가 없었다. 이 때 1군단에서 제대한 아버지와 나는 소구엔진(속칭 '야끼다마') 12마력을 장착한 동력 어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조선용재는 두께가 1치2푼 이상의 널판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할 길이 없어 미군부대에



서 유출되고있는 8푼 짜리 삼나무로 대체하고 칸막이, 목재 등 소나무 원목은 1군 사령부에서 지원받아속초시 교동 대성제대소 최규선 사장님의 호의로 제재되어 시작했다. 3개월 간의 건조기간을 거쳐 53년 11월엔 명태잡이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자금과 기술 부족으로 만 1년이 경과한 54년 3월에 진수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명태잡이 어기를 놓쳐 잡어잡이를 시작했는데 동해 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출어하면 늘 만선기를 꺾는 행운을 맞았다. 55년 7월 수복지구 1기생으로 군에 입대할 때까지 어대금이 주체 못할 정도로 쌓였다. 생전 처음 큰 돈을 만져 보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이 생길 줄 알고 유흥비로 쓰기 시작하여 거의 탕진하고 군에 입대했다. 그 후 흥어가 계속되어 부채가 늘어 군복무중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건전한 생활과 저축없이 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 아프게 느끼게 된 점도 큰 소득이요 교훈이 되었다.

6·25는 이 고장 원주민은 물론 실항민들에게 노력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득하게 되어 일에 재미가 생기고 모두들 부자꿈이 부풀어 근검 절약과 증산운동이 확산되는 현상을 빚었다. 속초항에서

크게 번진 어획증진운동은 어민들을 생기와 희망에 부풀게 만들었다. 너무나 과열되어 자연 재앙을 무시해가면서 무리한 조업을 감행했었다. 이는 6·25이후 그 누구에게도 잡은 고기를 수탈당하는 일 없어지자 어획량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높아져 생활형편이 어제보다 크게 윤택해지므로 재해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진 것이

탈이 되었다. 63년 1월 중순께 태풍과 격랑으로 명태잡이 나갔던 어선단 10여 척이 귀항중 속초 앞바다에서 전복되어 3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74년 8월 동해 대화퇴 어장 조난 사고로 363명의 어부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무리한 조업이 빚은 참상이다. 사고 원인은 ▲ 소형 어선으로 무리한 조업▲기상예보의 부재 ▲어선의 구조적 모순▲항해미숙▲어로지도의 미흡과 선단통제력의 미비 등을 들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북청 물장수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강한 교육열이 사고를 부른 것이다. 교육비의 뒷받침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앙에 과감하게 도전하다가 빚은 참극이란 점을 주시하게 된다. 6·25를 겪은 세대들이 후세들은 고기잡이를 안 시키고 사회의 중견 간부로 진출시키겠다는 다짐이 대화퇴 어장의 참사를 빚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어획 증진의 비결은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강한 투지와 노력이 결부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연 재해를 알보고 도전하면 해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명심해야될 사항들이다.

젊은 세대들은 오늘의 속초를 건설한 기성세대에게 영광의 훈장을 달아 주어도 고난을 극복한 노고에 제대로 보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남북이 다 함께 힘을 쏟아 승고한 동포애를 내외에 과시하고 싶어진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데 북한측은 잠수함 침투, 땅굴 굴착 등으로 자극하지만 정부는 초연한 자세로 햇볕정책을 고수해 공존시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내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진다.

맺는 말

60년대 후반기부터 70년대 초까지 동해어로 한계선 근해에 명태잡이 나가던 수십척의 어선들이 북한 당국에 강제 납북 당하는 일이 잦았다. 어부들의 대부분이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최첨단 산업 시설을 구경 못한 채 납북 당했다가 전시 효과를 노리는 평양 시내를 단조롭던 속초 시내와 비교해 보고 북한이 경제면에서 앞섰다고 오만한 어부들을 질타할 마음은 없다. 오직 자식만을 위해 서울 나들이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다에서만 살아온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고민이 앞선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알고 “팔도 강산”이란 영화를 만들어 전국의 발전상을 소개한 일도 있었다. 이들은 6·25의 와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을 위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안 물려 주기 위해 고생고생하면서 오늘의 속초를 건설한 자랑스러운 세대이므로 존경을 보내는 뜻에서 젊은이들은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만이 명랑사회 조성의 지름길이 될 줄 믿는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수여하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큰 어른 대접을 받아도 손색없다고 느끼는 계층이 날로 늘고 있다.

6·25를 연상하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은 영원히 없어야 된다.

6·25의 아픔을 겪었던 시대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서서히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 보겠다는 강한 의지는 녹슬지 않고 왕성한 투지로 불타고 있는 것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기만하다. 이들은 6·25로 폐허가 된 속초에 5천t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 할수 있는 근대화된 항만시설에 10~20층 짜리 고층 빌딩의 숲을 이루는 근대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설악관광단지를 건설한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진다. 6·25때는 초등학교 밖에 없던 속초에 대학교를 유치하고 3개교의 고등학교, 4개교의 중학교, 종합병원, 특급 호텔, 세계적인 콘도미니엄 군을 형성하고 온천 휴양 시설로 명성을 떨치는 관광 휴양 및 연근해 어업의 전진 기지로 빛나고 있다.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환동해권의 중심 항구에 99년 관광 엑스포 개최지로 빛나게 되어 6·25를 겪은 도시답지 않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멀지 않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될 “평화의 도시”로 도약될 것이 확실해 지는 것 같다. 동해 대화퇴어장의 죽음의 삼각파도를 박차고 나가던 속초 시민들의 강한 투지는 전쟁을 억제하는 저력이 샘솟는 원천임을 확신하게 된다.

시들어가는
지방문화에
물을 주는 사람들의
365일



'98 문화학교 운영
5개 분야 교실 개설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조화롭게 구성 운영하고 있다.

장구교실에서 꽃꽂이 교실까지 5개 분야의 교실 개설, 전통예절과 민속교실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예의 범절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접촉 기회를 넓혀 나아가고 있다.

문화학교 과목과 강사진

	과목 및 시간	강 사	과목 및 시간	강 사
	10:00-12:00		13:30-15:30	
월	장구교실	김 동 연	노래교실	최 봉 하
화	서예교실	지 응 준		
수	꽃꽂이교실	김 영 애		
목	장구교실	김 동 연		
금	서예교실	지 응 준	노래교실	최 봉 하
토	전통예절 및 시사등 특강	수시초빙	속초상고, 속초여고 바람소리문학회특활지도	

속초문화원 부설
문화학교 지정학교로 선정
98년 9월 9일,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속초문화원 문화학교가 개설 6년 만에 한국 문화학교로부터 지정 문화학교로 선정되었다.

'98년 9월 9일자로 지정된 문화학교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비 상당액을 지원 받으며 수강생들에게는 3개월 기준으로 48시간 수강자에게는 한국문화학교 학교장(문화관광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수강자에게는 단위 학교장 및 지역의 문화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이 주어지는 특전이 배풀어진다.

조양/김영신 청호/성선혜 대포/김혜미
설악/임 원

학교장 추천으로 효행 청소년 시상 관내 초중 학생 14명 선정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을 위해 봉사 실적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는 문화원의 연례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관내 초중교생 14명에게 시상했다.

●초등학교(10명)

영랑/최석민 중앙/천대길 속초/오유정
교동/김유리 온정/김고은 청대/최준호

●중학교(4명)

속초중/한정재 속초여중/김나영
설악중/정승훈 설악여중/홍선아

열여덟 번째 대보름민속놀이 경연 '98년 2월 5일, 종합경기장

속초문화원이 전통문화 전승보존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범시민적 행사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동절기 향토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농협·신협·축협 등 주민근접 금융단체의 주관으로 유도, 행사 친밀도가 높았다. 이 행사를 또한

제3회 설악눈꽃축제와 함께 펼쳐 주민들과 관광객이 하나로 축제를 즐겼다.

이날 축제에는 연날리기를 비롯해 제기차기·널뛰기·웃놀이·투호 경기가 펼쳐졌다.

●수상자

제기차기

농고차기/1위 금호동/주용근

2위 조양동/탁호준

3위 영랑동/김태선

들고차기/1위 영랑동/김 훈

2위 교 동/한상렬

3위 장사동/안홍렬

웃놀이 부문에서는 노학동 1위, 청호동 2위, 대포동 3위.

투호경기에서는 도문동 1위, 교동 2위, 장사동 3위, 동명동 4위.

널뛰기 부문의 수상자는 1위 교동/김정숙, 2위 도문동/이주순, 3위 교동/김순름.

연날리기/방패연 부문

1위 중앙동/김근환, 2위 도문동/오순석, 3위 도문동/이금산

/가오리연 부문

1위 청학동/김영익, 2위 청학동/윤웅기, 3위 영랑동/전성복.

/제작 부문

1위 설악동/윤금중, 2위 중앙동/김기정, 3위 동명동/이주석.

●시상 : 상장 및 시상품

부	문	1위	2위	3위	시상자	비고
연날리기	방패연	100,000	70,000	50,000	문화원장	눈꽃축제
	가오리연	50,000	40,000	30,000		
	제작	50,000	30,000	20,000		
제기차기	농고차기	50,000	40,000	30,000	농협지부장	
	들고차기	50,000	40,000	30,000		
널뛰기					신협이사장	
웃놀이					축협조합장	
투호						

역사적인 향토사료전시관 개관 속초향토사료전시관

'98년 4월 29일, 330㎡의 규모로

속초가 시(市)로 승격된 지 올해로 35(63년 1월 1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 역사적인 개관식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향토사료관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서울대 고고학 교수이자 한국고고학회 회장 임효재 박사의 '동북아시아 속의 속초선사문화의 위치' 특강이 이채로웠으며, 문화관광부 최천식, 윤중국 전 도의원, 문화공보실 함경찬, 윤광주 고청사 사업시공 등 제씨계 그간의 공적을 기려 감사패가 최용문 원장의 이름으로 전달되었다.

〈사료관의 개요〉

위치 —————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시문화회관 별관 1층)

면적 ————— 약 100평

사업비 ————— 2억5천만원
(국비1억, 도비1억, 시비5천)

시설 내역

-건축 및 내장공사

(증축 및 야외 전시장) ————— 1식

-전시시설(안내판, 사료·유물전시,

디오라마) ————— 11개

-시청각실(영상자료실) ————— 1식

-야외전시물 ————— 4점

설치 목적

-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 사회교육자료 확보

- 1996. 6. 25 향토사료전시관 시설계획 수립
- 1997. 4. 21 향토사료전시관 시설사업비 보조 결정
 - 5. 30 향토사료전시관 시공업체 선정 (고청사:윤광주)
 - 8. 20 공사(건축, 감리, 전기) 계약체결
 - 8. 23 공사(건축, 감리, 전기) 착공
- 1998. 4. 2 향토사료전시관 시설공사 준공
- 4. 29 개관식

전시기본 방향

- '역사와 문화' 자료 망라 : 역사적 자료와 문화재적 자료의 집대성
- 관람객 수용 능력 고려 : 교양 수준 정도가 각기 다른 불특정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전시물 배치.

전시주제

- 역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조망
- 자연 : 설악산 및 동해안 생태계 소개
- 관광 : 산악, 해양, 호수 등의 관광자원 소개



- 민속 : 고유민속 조사 발굴 및 전수를 위한 자료
- 산업 : 수산업 등 산업특성 소개
- 전쟁 : '6·25와 속초' 관련 재현

문화학교 장구교실 제3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우수상 받아 '98년 6월 19일, 양구 문화체육관

속초문원이 운영하는 문화학교 장구교실 수강생 유영순·정일용·김경희·강금옥·강복희·전추자·신한이 씨 등이 '98년 6월 19일,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성호 풍물패 '갯마당(영북민속보존회) 단원의 지도로 그간의 갈고 닦은 기량으로 17개 도내 문화원 주부사물놀이단이 참가한 경연에서 우수상을 획득, 수강생들의 역량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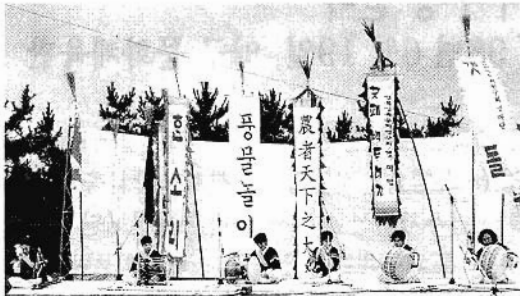
**속초문화원 부설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전화 632-1231**

속초해수욕장 특설무대 시민위안 큰잔치 '98년 8월 1일 '갯마당' 주관

관광도시로서의 볼거리 제공과 전통문화의 접촉을 도모하면서 향토 문화의 정체성 회복과 관광문화 상품화에 기여하고 지역 전통문화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속초문화원이 주최하고 이를 영복민속보존회 풍물패 '갯마당'이 주관한 시민위안 큰잔치를 8월 1일 속초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쳤다.

문화예술 진흥원과 속초시가 후원한 시민잔치는 굿패 백두대간·주부풍물패 가람패·직장인 풍물패·한소리·청소년풍물패 자배기·연극협회·민속무예 경당 등이 참가하여 시민·관광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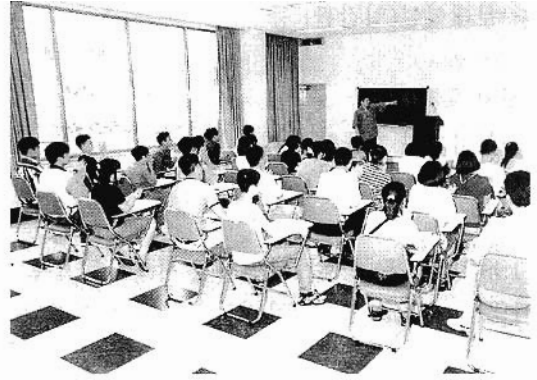
뒷마당의 '대동놀이'가 더욱 이채로운 한마당으로 잔치의 끝맺이였다.



주최: 속초문화원, 후원: 갯마당, 무명: 속초시, 한국민속예술진흥원
제2회 시민 위안 큰잔치
일시: 1998. 8. 1. 19:00 ~ 21:00

속초문화원 주최 '갯마당' 주관 제2회 청소년 여름 풍물학교 '98년 8월 3일~8일,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이



고장에서 체험 교육과 평생 진로 지도의 차원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강좌를 지난 '97년부터 개설하여 올해로 두번째 강좌, 청소년 여름 풍물학교가 8월 3일부터 8일까지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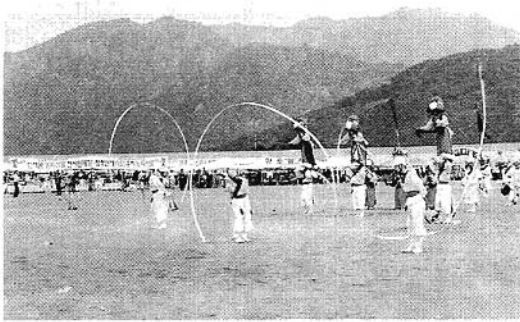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판굿과 사물놀이 등을 가지고 우리의 풍물 가락과 놀이를 접촉할 수 있는 방학 동안의 여가선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작 속초 도리원 농악 '노력상' 수상 '98년 9월 26일, 인제 공설운동장

9월 26일, 인제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속초시 대표팀으로 '속초 도리원 농악'이 출연하여 노력상을 수상했다. 출연진 50명으로 구성되어 정철기(사단법인/한국농악보존협회) 단원의 고증과 지도로 참가한 작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농악놀이가 주로 연희되었으며, 마을 축제 등에 활용되었다.

가락은 대체로 빠르고 경쾌하며, 일채, 이채, 삼채, 굿거리를 주로 치는 것이 특색으로

인사굿-일채-멍석말이-좌우치기-오방진-칠채-농사풀이-가래질-범씨뿌리기-모짜기-모심기-논매기-멍석말이-벼베기-도리깨질-을자진-무동놀이-열두발 놀이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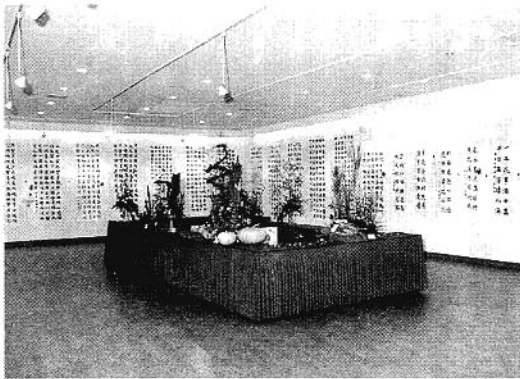
출했다.

서예(지웅준 강사)와 꽃꽂이(김영애 강사) 수강생 여러분과 강사진의 혼연일체가 이른 자리라고 할 것이다.



설악문화제기념 서예·꽃꽂이 작품전 '98년 9월 30일~10월 2일

속초문화원 부설 문화학교 서예·꽃꽂이 교실 수강생들이 매년 기량을 보이는 작품전이 올해도 다채롭게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서예와 꽃꽂이가 잘 아우러진 문화회관 전시장은 문화원의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연



세 번째 청소년 풍물 겨루기 한마당 10월 2일, 문화회관

이 고장 축제 설악문화제를 기념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전하기 위해 10월 2일 문화원과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주최,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주관한 제3회 청소년 풍



물 겨루기 한마당이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9개교, 중고등학교에서 6개팀이 출전하여 사물놀이·설장구·판굿·기타 창작물을 가지고 경연을 펼친 이날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학교(15개팀)

초등부 : 교동초등, 속초초등, 온정초등, 죽왕초등분교, 죽정초등, 중앙초등, 청대초등, 청호초등, 회룡초등학교
 중·고등부 : 동광농공고, 속초상고1, 속초상고2, 속초여중, 양양고, 자배기

구분	수상 부문	학교 명
초등부	금상(교육장상)	온정초등학교
	은상(속초시장상)	중앙초등학교
	동상(문화원장상)	회룡초등학교
	특별상(춘천지검 속초지청장상)	청대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중·고등부	금상(교장장상)	속초상고1
	은상(속초시장상)	속초여중
	동상(문화원장상)	양양고
	특별상(춘천지검 속초지청장상)	자배기

설악문화제와 시민의 날 기념 국악 초청 김백국 민속예술 단 공연

'98년 10월 3일 문화제 특설무대

제33회 설악문화제와 제16회 속초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3일 국악을 초청, 시민 위안 잔치를 가졌다. 김백국 민속예술단이 국악

과 만담으로 공연한 국악인들은 김백국 단장, 민요가수로 TV 출연도 잦은 조성자, 김순녀, 김명순 씨 등이며 찬조 출연으로 풍물패 '갯마당'과 문화원 장구교실 수강생들이 펼친 흥겨운 국악의 한마당이였다.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작품 속초 도리원 농악 시연 설악문화제에 선보여

9월 26일 인제 공설운동장에서 펼친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속초시 대표 출연작품(노력상 수상) '속초 도리원' 농악이 10월 3일 제33회 설악문화제에서 시연, 시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 농악놀이의 푸짐함을



선보였다.

속초농악으로 대표되는 도리원 농악은 정철기,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씨 등 노학동 도리원 주민들이 보존하여 가꾼 농악으로 강릉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빠른 템포의 경쾌함이 특징이다.

'98 경주 문화박람회 관람을 겸한 '98 문화유산답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2박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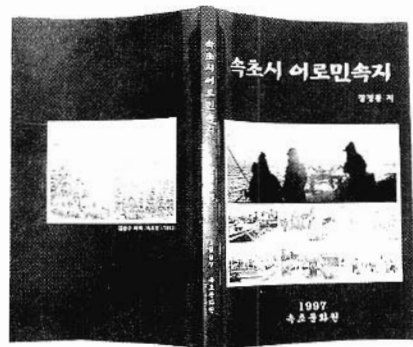
올해 문화유산답사는 예년과 다르게 '98 경주 문화박람회 관람에 초점을 두고 속초문화원 가족 45인은 10월 14일~16일, 경주 일원의 문화유산을 답사했다. 14일 포항제철·옥산서원(경주에서 1박), 15일 경주 문화박람회 관람(경주에서 2박), 16일 경주 민속공예촌·신라 과학박물관·감은사지·문무대왕 수증릉·이건대·영일만 등대박물관 등을 답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새겼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향토사료관을 시공한 '고청사(古靑舍)' 대표 윤광주 사장의 부친 윤경렬 선생의 문화유산에 대한 특강을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시 어로(漁撈) 민속지 · 장정룡(張正龍) 저 · 국판 194쪽 · 1997

속초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이 고장 기층 문화의 저변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로요·전설·설화에서 각 마을 동제(洞祭) 등 사라져 가는 기록으로 간직될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출간

속초문화원은 올해 도서(민속지)로 《청호동의 언어와 민속》을 펴냈다.

사라져 가는 그리고 찾아야 하는 북한 문화의 원형질을 이 고장 소위 '아바이' 마을에서 건져 올린 기록이다.

장정룡(張正龍·강릉대) 교수 지음, 국판 200쪽.

원고를 모집합니다

'속초문화'지에 실리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이나 이 고장의 잊혀진 지명이나 유래, 오래된 사진 등을 보내 주시면 귀하게 신겠습니다.



속초문화원 부설
영북민속문화보존회

5인 풍물패 갯마당의 1998년

1. 초등학교 풍물교육

- 담당강사 : 전성호, 주동진, 김태희
- 담당학교 : 속초, 중앙, 교동, 영랑, 온정, 청대, 청호, 대포, 설악, 양양, 회룡, 죽왕, 공현진초등학교

2. 중·고등학교 풍물교육

- 담당강사 : 박치영, 김동연, 최택수
- 담당학교 : 속초여중, 속초상고, 속초중, 동광농공고, 설악중, 양양고, 설악여중

3. 청소년풍물교실운영

- 횟수 : 주중 1회 운영
- 단체명 : 중학교 풍물패 모임 - 뉘누리
고등학교 풍물패 모임 - 자배기

4. 속초교육청주관 각학교 방과후 활동 지도

- 담당강사 : 박치영

-담당학교 : 초·중학교

5.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술교육

1) 제1회 청소년풍물학교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원 : 100명
- 날짜 1997. 8. 4~8. 8
- 내용 : 풍물기초, 탈춤, 민요, 판굿

2) 제2회 청소년 풍물학교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날짜 : 1998. 8. 3~8. 8
- 인원 : 150명
- 내용 : 탈춤, 사물놀이, 상모판굿, 민요, 민속놀이, 택견

3) 청소년 풍물교실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날짜 : 1998. 9. 14
- 인원 : 200명
- 장소 : 청소년수련관
- 내용 : 사물놀이, 설장구, 민요, 민속놀이, 탈춤, 전통무예, 상모

속초예총

이 고장 문화 예술 총체의 산실 그 1년의 흔적

박 증 성 예총사무국장

◆ 설악 눈꽃축제 기념 사진전

'98 설악 눈꽃축제 기념 사진전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속초시 공설운동장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협회 제8회 정기회원전을 겸한 본 전시회에 사진협회 회원 18명이 작품을 출품 하였다.

◆ 설악 눈꽃축제 기념 연극공연

'98 설악 눈꽃축제기념 연극공연(품바)이 2월 8일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장규호, 김귀선 등이 출연하였다.

◆ 제8회 학생예술상 수여

2월 10일과 14일에 지난 한해 예술문화에 뛰어난 기량으로 지역을 빛낸 지역 중, 고교 졸업생들을 선발해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학생 예총예술상을 시상, 예총 회장상 및 부상을 시상하였다.

- ▶속초중학교 — 최영배
- ▶설악중학교 — 김형재
- ▶속초여자중학교 — 홍기은
- ▶설악여자중학교 — 정혜신
- ▶속초고등학교 — 함중대
- ▶속초여자고등학교 — 장은숙



▶속초상업고등학교 — 홍은희

▶양양여자중학교 — 김혜현

◆ 봄맞이 가곡의 밤

봄맞이 가곡의 밤 행사가 음악협회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3월 28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테너 황영승, 소프라노 김춘옥, 윤순옥, 피아노 양은영 등이 출연하였고, 현재 오라토리오 서울합창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바리톤 최석길씨가 특별출연 하였다.

◆ 제9회 속초종합예술제

한국예총 속초지부가 주최하고 6개 협회가 주관한(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사진) 영북지역 최대의 순수문예 축제인 제9회 속초



종합예술제가 5월 16일 부터 7월 5일까지 14건의 다양한 사업으로 속초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지자체선거 등으로 행사기간이 압축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양적 질적 수준이 뛰어난 다양한 문예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 제6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지난 9일 개최된 제6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5월 16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서는 대상1명, 금상10명 등 총 4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대상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상은 피아노 부문에 참가한 속초중학교 임원 학생이 차지하였다.

◆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

5월 30일 음악협회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연은 “금호 현악 사중주단”으로 바이올린의 김의명, 이순익, 비올라의 정찬우, 첼로 양성원 등이 출연하여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등을 연주하였다.

◆ 제9회 속초사진 협회전

제9회 속초사진협회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개최되었다. 연중 사진협회전 중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며, 속초사진협회 회원 16명이 본 사진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제4회 주부 백일장

문인협회 주관으로 6월 11일 속초시 수복탑광장에서 제4회 주부 백일장이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자모 및 주부 100여명이 참가한 본 대회에 이사, IMF시대, 외출, 속초청호동, 등의 주제로 시 부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진행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인 대상은 시부문에 출전한 영랑초3-5 최창균 자모 임명자씨가 수상하였으며,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제9회 학생 백일장

문인협회 주관으로 제9회 학생 백일장이 제4회 주부백일장과 같이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초, 중, 고교생 1,000명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유리창, 파도, 수복탑, 내가했던 거짓말, 미래 등의 서제가 주어졌다. 총 수상자는 143명이 선정되어, 영예의 대상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은 초등 고학년부 동시에 참가한 교동초등 4-참글반 이재선학생이 수상하였다.



◆ 제9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미술협회 주관으로 제9회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6월 11일 14시에 설악 한화 프라자랜드에서 개최되었다.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문에 영북지역 2,000여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설악의 우리꽃 그리기 대회도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금번 대회는 유치부를 신설하여 많은 유치부 학생들도 참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인 대상은 유치부 엄운수, 초등부- 회룡초등4-1 김주원, 중등부- 양양여중3-4 황금순, 고등부- 속초고

3-3 최현주 학생이 차지하였다. 시상규모는 제9회 학생미술실기대회에 446명, 설악의 우리꽃 그리기에 110명의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아울러 지도교사상으로 중앙미술학원장 백종숙, 교동초등 황선중, 속초여중 정광섭, 속초고 장국보 교사가 선정되어 속초교육장상을 수상하였다.

◆ 제2회 설악청소년 음악회

6월 13일 19시 30분에 제6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만을 선발해 연주기회를 제공하는 “제2회 설악청소년 음악회”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과제곡 없이 자유연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대상을 차지한 속초중학교 임원 학생을 비롯 총 11명이 피아노, 관현악, 성악에 각기 음악실력을 과시하였다. 연주회 이후에 연주학생 및 가족 그리고 대회 임원 등이 영랑정에서 청소년 음악회 축하의 밤 행사도 가졌다.

◆ 제9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지난 4월 19일 개최되어 13개팀을 선정한 바 있는 제9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행사가 연예협회 주관으로 6월 14일 14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관람객 700여명이 입장한 가운데 열린 본 대회에, 한국연예협회 이사장상인 대상은 속초여자중학교 이



정미, 이슬비, 신혜선 트리오팀으로 돌아갔고, 부상으로 장학금15만원이 지급되었다. 금상은 속초여고 임신애 학생 등 총6개 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 제23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미술협회 주관으로 제23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미술발전을 선도한 정례 미술협회 전이며, 지역 미술인 연중 최고의 발표의장이기도 하다.

본 전시회에 한국화3명, 양화11명, 조소3명, 공예1명, 서예6명 등 5개 장르 24명 3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 극단 굴렁쇠 정기공연

극단 굴렁쇠 정기 공연이 6월 21- 22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작품은 이만희작 “피고지고 피고지고”이며, 연출은 장규호 연극협회 지부장이 맡았다. 왕오-문일완, 천축-최문복, 국전-김귀선, 난타-박영미가 출연하였으며, 16시, 19시 총4회 공연을 가졌다.

◆ 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

지난 11일 개최된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시상식이 6월 22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수상자 참가범위로 대상, 최우수, 우수상 및 지도교사상이 수여되었으며, (주)신한화구에서 시상품의 일부를 후원하여 시상하였다.

아울러 입상작 전시가 28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입상작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작품은 300점으로 전시회 종료 후 미국-그레삼시, 일본-요나고시, 일본-사카이미나토시로 보내 외국도시에서 본 작품들이 재 전시회를 갖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 실내악의 밤

종합예술제 기념 실내악의 밤 행사로 6월 24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협회 주관으로 “에코타악기 앙상블” 초청 콘서트 연주회를 가졌다. ‘에코’는 한국의 대표적인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타악기 전문연주 그룹이며, 음악감독 윤재현을 비롯 연주자 8명이 수준 높은 공연하였다. 특히 마림바 연주가 인상적이었으며, 시민을 위해 전회 무료 관람이었다.

◆ 제3회 국제 아동미술 교류전

제3회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이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시 총 작품수는 448점으로 강원속초- 96점, 서울중구- 20점, 전북정읍- 145점, 일본 요나고시- 120점, 일본사카이미나토시- 67점이 전시되었다.

◆ 그리운 금강산 사진전

지역원로 사진작가 최구현씨 작품전이 “그리운 금강산 사진전”이란 제목으로 금강산 패속선 속초취항을 기원하며, 작가가 40년대 찍은 금강산비경 작품 30여점을 7월 8일부터 사진협회 주관으로 속초시청 복도에서 10일간 전시회를 가졌다.

◆ 제15회 강원연극제 참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주치악 예술관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강원연극제에 속초시 대표로 극단굴렁쇠에서 “피고지고 피고지고”의 작품을 가지고 출전하였다. 극단굴렁쇠는 17일 공연으로 원주 치악무대에 이어 강원도 예총회장상인 단체우수상 및 연출상(장규호)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김동수 초청 독주회

플루티스트 김동수 초청연주회가 7월 22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음악협회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연주자 김동수는 국내외 수십 차례의 공연 실적과 현재 경희대, 숙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경기군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있다. 피아노 반주는 이근아씨가, 교동초등 4년의 이선화 학생이 플루트 특별출연을 했다. 전회 무료관람이었다.

◆ 안토니오 라모타 플룻 독주회

이태리 출신의 플루티스트 안토니오 라모타 초청연주회가 8월 15일 8.15광복 기념 문예행사의 일환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협회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공연자 안토니오 라모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플루티스트로 이날 공연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전회 무료관람이었다.

◆ 연극협회 중국 훈춘시공연

'98 환동해권 4개국 10개 시장회의를 기념하여 속초연극협회에서 축하 연극공연을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극원에서 9월 18일 -19일 이틀간 공연을 가졌다. 연극협회는 미국공연에 이은 2번째 외국공연으로 외국공연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성공적인 공연을 이루었다. 지역 연극인 및 관계자 등 총22명이 16일 향발장춘, 도문, 연길을 거쳐 훈춘에 도착 18, 19일 양일간 공연을 성료한 후 중국 문화예술인(문연)들과의 문예교류 및 백두산, 북경, 계림, 상해를 거친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고 25일 귀향하였다.

◆ 제3회 거리시화전

문인협회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제3회 거리 시화전을 개최

하였다.

속초문인 13명의 시화작품 25점이 전시되었으며, 미술협회에서 삽화를 제작하였다.



◆ 제10회 속초사진 협회전

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인 제10회 속초사진 협회전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속초시 수북탑 광장에서 총18명의 사진협회 회원이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회를 가졌다.



◆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10월 2일 음악협회 주관으로 동명항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류석원교수가 지휘하는 관동대학교 콘서트55인조 밴드와 바리톤 이대우, 소프라노 김우순, 테너 황연승, 에코타악기 앙상블의 마림바 솔로 박미라를 비롯 대중

가수 안치환, 6인조 남성그룹 신화 등 초호화 출연진으로 구성된 금번 야외음악회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로는 최대규모의 음악회로 거행되었다.

◆ '98 속초시민 노래자랑

제33회 설악문화제기념 '98속초시민 가요제가 연예협회 주관으로 10월 2일 동명항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9월 10일 선발된 본선 진출자 12명이 수많은 속초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띤 노래실력을 발휘하였다. 대상인 속초시장상은 '문밖에 있는 그대'를 부른 교동의 김경연씨가 차지하여 부상으로 30만원의 상금을 수여 받았고, 금상은 중앙동의 김애경씨를 포함 총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연극공연

제33회 설악문화제 기념 연극공연(공연명: 품바)이 10월 2일 동명항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가졌다. 장규호, 김귀선 등이 출연하였다.

◆ 가을 콘서트

음악협회 도레미 주관으로 10월 3일 16시, 19시 2회에 걸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을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초청 연주는 "서울 기타 트리오"로 박종대, 김영술, 안승범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를 많이 개최하는 기타 트리오로 알려져 있다. 본 공연에서도 16시 공연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연이었고, 19시 공연은 애호가를 위한 공연이었다. 전회 무료 관람이었다.

◆ 청소년 가요제

연예협회 주관으로 10월 3일 동명항 특설무대에서 '98 청소년 가요제가 개최되었다. 시

내 중학교에서 각1팀, 고등학교에서 각2팀씩 학교장의 추천으로 총 9개 팀이 출전하였다. P.S I LOVE YOU를 부른 속초여고 2-1 최희영 학생이 영예의 대상인 속초시장상을 수상하여 장학금 3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총 5개 부문에 상장 및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학생전원에게도 지칭장이 후원하는 5만원상당 도서상품권 및 특별 출연상이 시상되었다. 또한 인기가수 진시몬, 녹색지대, 강산에 등이 특별출연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음악협회가 개최한 청소년 야외콘서트와 더불어 제33회 설악문화제 청소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있는 사업으로 평가된 청소년 문화사업이었다.

◆ 강원도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미술협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강원도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강원미전에서 수상한 강원도내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100호 이상의 대작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총 전시작품은 60여점에 한국화, 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 문화관광 EXPO 견학

11월 7일 - 8일 1박 2일로 미술협회에서는 98년도 미협 마지막 사업으로 경주에서 개최되는 '98 문화관광 EXPO에 문화견학을 다녀왔다.

◆ 4현 앙상블

음악협회 도레미기획에서는 11월 10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4현 앙상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피아노 김유철, 바이올린 최인철, 혼 함형남, 바이올린 알렉산더 페트로프일체프 등이 출연하였다.

◆ 송년 연극공연

속초연극협회에서는 98년 송년 연극공연을 11월 14, 15일 양일간 (16시, 19시 총4회공연)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하였다.

공연작품명은 "호적등본"으로 이만희 작 장규호 연출로 출연자는 김귀선, 김준수, 문일완이 출연하였다.

99관광EXPO D - 300일 기념 공연으로 EXPO 범시민 홍보차 전회 무료 공연이다.

◆ 제8회 속초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정기회원 발표회인 제8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5일 19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음협 연중 최고의 발표의장이며, 주요프로그램은 임수철 창작곡 발표회, 피아노독주 손지숙, 플룻 전삼옥, 기타 원영백, 소프라노 강은희 피아노트리오 심영은 외 2인 등이 출연했다. 공연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이었고 전회 무료관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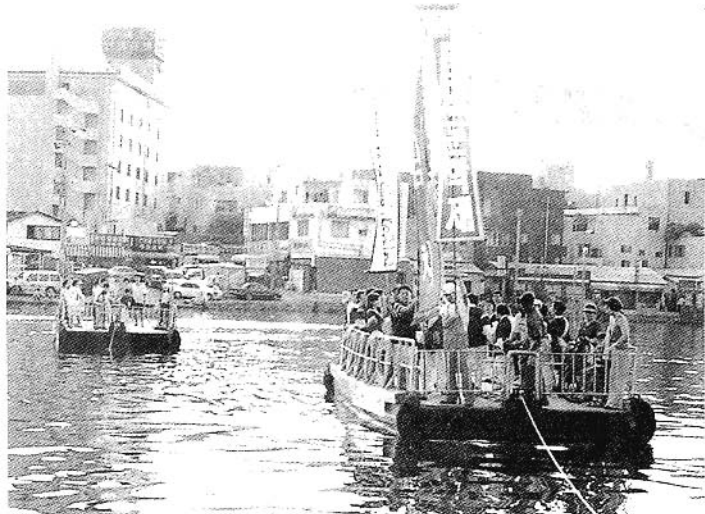
◆ 박영근 개인전

12월 18일 - 24일 까지 제2회 박영근 조각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조각가 박영근은 평소 작품주재로 삼아온 '가시작품 시리즈'를 주요 작품으로한 작품 20점을 전시하였다.

◆ 갈피 29집 발간 및 문학축제

문인협회 설악문우회에서는 갈피29집 발간 및 문학축제를 12월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갈피지는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발간해온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학지로 많은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발표의 장으로 거듭 되어지고 있다.



'98민예총의 예술활동을 점검한다

- 1954년 8월 6일 속초시 대포동에서 출생
- 속초고등학교 졸업(72년)

현재

- 대포곶집 운영
- 속초문화원 회원
- 속초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청봉사진동우회 회원
- 한국민족사진가연합 속초지부 지부장

사력

- 개인전 2회(88, 93)
- 기획전

- '95우리에 환경' (전국 4개도시 순회)외 11회
- 회원전

청봉사진동우회 회원전, 한사련 회원전외 다수



全泰極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의 해" 지정 사업으로 정한 「사진영상의 해」였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각 사진단체의 이기주의적인 개입으로 총체적인 사진문화행사가 되지 못하고 일관성 또는 소규모 단체전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진영상의 해」의 홍보와 사진예술의 위상제고, 사진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을 남긴 해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런 아쉬움 중에서도 서울 한강변의 테크노마트 9층에 임시 사진박물관의 공간을 마련하여 개원하고 6개 사진단체가 연구 사진박물관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활동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은 꼭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



지방 사진단체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필자가 알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사진영상의 해」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예산의 일부가 지방 사진단체에까지 지원될 수 있으리라는 바램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작가가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 지원처의 지원만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예년과 다름없는 관심과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의 결정 등은 지방 사진인의 활동과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지방에서의 예술활동의 어려움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으며 때마침 다가온 IMF는 우리 사진인에게 여러 면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런중에도 우리 “한국민족사진가연합 속초지부”에서는 대중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사진예술의 인식 제고와 「사진영상의 해」의 의미있는 사업을 위하여 더더욱 애쓴 한해이기도 했다.

올해의 활동을 일정별로 살펴보면

1. “제3회 낙산사 의상백일장” 심사

- 98년 4월 11일 낙산사 해수관음전
- 양양군 소재 낙산사에서 주관하는 3개 시·군관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사진촬영대회” 부문에 엄상빈, 전태극 회원 2인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2. “(세번째) 여섯사람 사진 이야기” 전 전시

- 98년 4월 24일 - 28일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 98년 4월 28일 오후 6시 “현대사진 이야기” 사진특별강좌
- 시민 문화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사단법인 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주관의 “98 종합예술제”에 참여하여 28점의 사진을 전시하고 특히, 이번 전시 마지막 날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진영상의 해」 기념 사진특별강좌를 본지부의 회원인 김홍수 교수(동우대 사진과 재직)의 슬라이드를 통한 특강을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가져 지금까지의 보고만 가는 전시회에서 배우고 가는 전시회의 전초를 마련함은 물론 전시 참여 회원과 관람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사진에 관한 의식 전환과 작가의 사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참석자들에 호평을 받았으며 이날 참석자에게는 「사진영상의 해」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품도 배포하였다.

3. “대포동 노인 초상사진 무료촬영” 사업

- 98년 4월 13일 - 4월 30일 까지 홍보 및 접수 (영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98년 4월 29일 - 4월 30일 그간 접수된 48명을 대포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일에 걸쳐 촬영(거동불편 노인은 차량으로 이동 또는 출장 촬영함)
- 98년 5월 21일 - 대포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동문성 속초시장과 지역민이 모인 자리에서 증정식.
- 지역민과 사진예술인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노인 초상사진 무료 촬영과 액자 제작까지 마쳐 동문성 시장과 지역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증정식을 갖고 무료 배부하였다. 이 사업을 올해는 예산상의 문제로 1개동 밖에는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지역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4. “국토사진 촬영의 날” 참여

- 98년 6월 2일(1일차) - 통일전망대와 통일전망대앞 민통선 이북 촬영
- 98년 6월 3일(2일차) - 건봉사 주변촬영
- 98년 6월 4일(3일차) - 제6검문소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지역인 고진동 계곡을 촬영
- “한국일보”와 “상명대학”이 주관하여 전국의 사진인들이 전국토를 촬영함으로써 국토 사랑의 의미를 새로이 하는 행사로



민간인의 신분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고 민통선 이북의 자연과 생태, 다큐멘타리로 분야를 나누어 촬영·기록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5. “속초아바이 마을 청호동 가는길” 출판 기념회

- 98년 9월 11일 속초문화회관 회의실
- 임상빈회원(현 거진공고 교사, 민예총속 초 지부장)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함경도 실향민 집단 정착지인 청호동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16년에 걸쳐 흑백으로 기록한 작품집을 출판함으로써 시민과 독자에게는 분단의 현실을 함께 생각하게 하고 지역 사진인에게는 작가적 소명에 대하여 다시 생각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6. “98 속초시 우수광고물 사진공모전” 심사

- 98년 10월 2일 동명항 전시장
- 속초시에서 후원하고 속초시 광고사업협



회에서 주관한 옥외광고물 사진공모전에 김홍수 회원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는 역부족이었고 설악문화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전시장소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행사 1일은 우선 때문에 전시를 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되었다.

7. “98 여섯사람 사진이야기” 및 “한사련 속초지부 순회전” 개최

- 속초전시 : 89년 10월 1일 - 3일 설악문화제 특설전시장(수복탑 부근)
- 고성전시 : 89년 10월 17일 - 20일 고성문화관
- 동해전시 : 89년 11월 19일 - 22일 동해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각 지역의 사진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한사련 속초지부 순회전”의 속초전시는 제33회 설악문화제와 때를 맞춰 개최되었다. 설악문화제를 경축하기 위한 사진전시회의 당초 계획은 속초지역의 2개 사진 단체에서 합동으로 전시하여 시민에게 지역사진인의 화합된 모습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더 나은 창작활동의 기회로 삼기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같은 장소에서 전시하기는 하였으나 폐쇄적·이기주의적 생각들로 인하여 사진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렇듯 쉽지않은 환경에서도 지방 사진예술의 진일보를위한 노력과 나아가 속초시민과 정서를 함께 나누는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진영상의 해」를 맞이했으나 본지부의 예산상의 문제와 지원처의 인식 부족으로 후일로 미루어야 하는 아쉬운 일도 있었다.

그중 한가지 사업이 '사진으로 보는 속초역사'를 체계화하여 한편의 책에 담은 일이다. 일차적으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0년까지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속초와 관련된 기록 사진으로 향토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들을 취합, 정리하여 전전세대에게는 향수를 전후세대에게는 우리가 살고있는 속초의 어제를 알리는 사진자료집을 남기고 싶었다.

비록 후일로 미루어졌지만 본지부 회원들은 지역의 사진인으로서 시민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위하여, 또 시민에게 더 품위있고 고급한 사진문화를 제공함과 지역사진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 풀·묵·음 편집실

맨손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야 했던 실향의 도시, 위협과 거친 노동이 거듭되는 수산업 도시, 상주인구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관광지.

이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 속초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뒤돌아 볼 틈 없이 늘 분주한 모습이었다.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고향을 잊을 수 없는 실향민이나 생활에 쫓기는 어민들, 흠칫 스쳐지나가는 관광객들, 속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부초와 같은 삶을 이어왔다.

'우리'라는 정체성은 늘 삶의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근원적 인식에 동감해 너와 나의 풀들을 문화적으로 하나로 묶어 묶는다는 취지하에 속초(束草)를 풀어 쓴 '풀·묵·음'이란 지역문화연구회가 태동하게 됐다.

지역문화연구회 '풀·묵·음'은 맨 먼저 지역의 정체성 위기 극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치·경제 등 다른 분야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십년 동안 얽혀온 것들이라 해법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따라서 보다 다가가기 쉽고, 실향민이든 유민이든 본토박이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토양에 거름을 주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비슷한 생각을 해오던 속초지역의 3.40대들이 속속 모였다. 영북지역 향토사에 지대한 공을 쌓고 있는 주상훈 선생님(44·고성 동광농공고), 극작가인 최재도 씨(42), 속초문화회관 앞에 우뚝 선 시민헌장탑의 작가 박영근 씨(39·조각가), 음악을 비롯한 각종 예술기획자로 잘 알려진 원영백 씨(42·도레미예술기획 대표),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인 서예전을 연 서예가 김동하 씨(40·속초서예한문학원장), 연극인 김귀선 씨(37), 강원도민일보 영북취재본부 부국장인 심정현 씨(43·풀·묵·음 회장), 컴퓨터 전문가인 김동연 씨(한양컴퓨터학원 원장), 예총 사무국장인 박종성 씨, 설악신문 편집국장인 장재환 씨, 전 강원도의회 의원인 유왕재 씨(보건약국 대표), 국전 등에 입상한 유능한 미술가 정봉재 씨(38·새터미술학원장), 건축설계에 매진하고 있는 송준한 씨(39·삼출건축사사무소 실장), 치과 의사 이동현 씨(부부치과 원장), KBS속초방송국 프로듀서인 이제석 씨, 강릉 MBC 프로듀서인 황인구 씨(40), 강원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장정룡 박사, 시사만화가로 활약하는 조영길 씨(강원도민일보 기자), 연극인이면서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박영미 씨, 속초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남상진 씨 등등.

이들이 중심이 돼 지난 96년 1월 '풀묶음'을 탄생시켰다. 회원은 23명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사진, 향토사 등 문화계를 비롯해 언론, 건축, 의사, 약사 등 각계 각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구성층은 지역문화운동을 위한 '풀묶음'의 잠재적 역량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신·구세대의 중간위치에 놓인 3, 40대로 각각의 개성과 문화·예술·직업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속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풀묶음'을 통한 속초의 지역·문화적 정체성 확보노력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즐거운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각 회원들의 분야별 전문지식이 토론을 통해 교환, 증폭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잊혀지고 버려졌던 속초의 삶과 문화가 되살아나곤 한다.

풀묶음 회원들은 속초엔 가치로운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신흥도시가 갖는 다양한 문화적 기반이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도시의 형성배경과 사회상으로 인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일뿐.

풀묶음 회원들은 지난 97년 7월 회보 창간

을 통해 지난 날의 향수뿐 아니라 오늘의 삶과 문화를 진단해 오고 있다.

회보 창간호에 실린 '청대산 소나무 3개' 사진과 기사는 속초에서 살아온 30대 중반 이상의 시민들에게 아득히 잊고 살아온 고향의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 97년 12월 1일 개통된 교동과 조양동을 잇는 '소야교'의 명칭이 풀

묶음 회원들의 근거있는 주장으로 붙여진 바 있다.

착공 때부터 '제2청초교'란 이름이 붙었지만 노학동에서부터 청초호로 흘러드는 하천에 소야천이란 고유의 이름이 있는 이상 소야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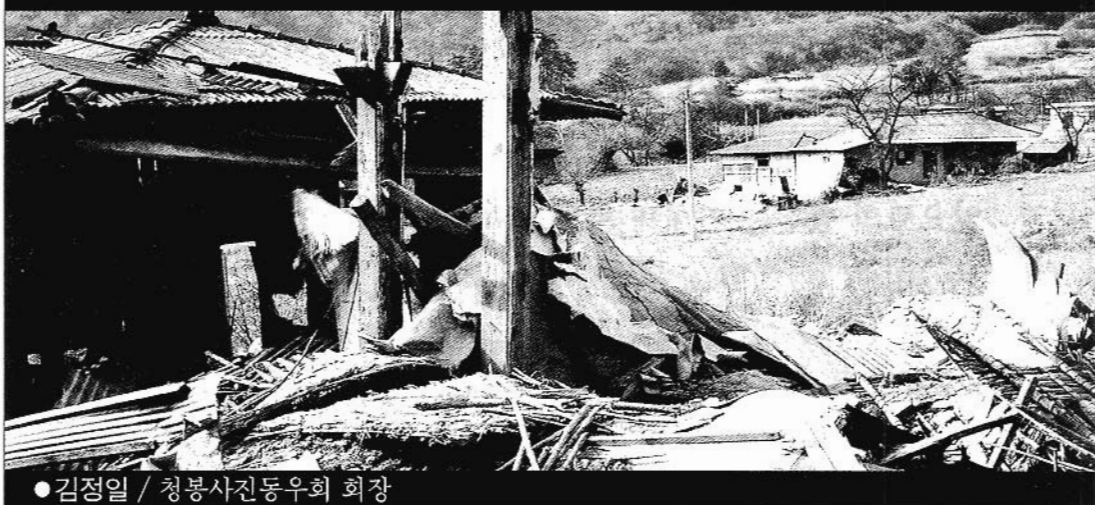
잊고 살기 쉽지만 우리의 것을 되찾고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정체성 확보의 시작이라는 생각들이 고유지명찾기에 나선 배경이 된 것이다.

풀묶음 회원들은 설악문화제 행사 때에도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각종 문화행사를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했었다.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회보인 '풀묶음'을 발행(98년 11월 현재 9호까지 발행)하고 지역의 문화유적답사등의 행사와 월례모임 등 속초지역 문화정체성 확보와 지역문화 부흥을 위한 회원들의 열의가 뜨겁다.

고려 충숙왕(1312)때 강릉 존무사였던 안축이 영랑호에 남긴 시를 박영근 회원의 조각과 김동하 회원의 글씨로 형상화하려는 '안축시 비건립계획'을 비롯해 지명되살리기운동 전개, 자체 문화행사 개최, 남사당보존회와의 자매결연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영상의 해



● 김정일 / 청봉사진동우회 회장

약 력

- '95. 대한민국 환경 사진전(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 '96. 대한민국 환경 사진집(단체) <이 땅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 '97. 한국사진가연합 지역작가초대전(서울 인덕코화랑)
- '95년부터 년 2회씩 정도 <600년 경축 기획 5인전(속초)> 참가
- '84년부터 단체전 년 2회 이상 참가



- 한국 사진가 연합 회원
- 청봉사진동우회 회장
- 환경사진연구회 회장
- 속초문화원 회원
- 속초카메라 대표

'98년은 '사진 영상'의 해'로 정해졌으나 때를 잘못 만난 듯 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기자재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진 분야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는 것 같다. 많이 비싸진 필름이나 현상료, 인화료 등

을 생각하면 한 장의 사진을 만들면서도 사진적인 내용의 가치성이 있으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성에 대한 갈등을 겪을 때도 가끔은 있다.

그래도 소득 수준이 낮았던 70년대나 소득은 많이 향상 됐으나 문화 수준이 낮았던 80년

**속초 환경사진 연구회가
지난 7월 열린 두 번째 전시회에서
각자의 주제를 정해 사진으로 이야기를 엮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두 번째 전시회 치고는
어려운 과제로 보여지기는 했으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봐도 좋을 만한 자리였다고 본다.**

대보다는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전반적인 사진 문화 발전이 둔화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가 될 때도 있다.

80년대에 사진 동호회 단체가 한참 생겨나고 번창할 때는 밤샘 촬영이나 밤샘 인화, 현상작업이 많았었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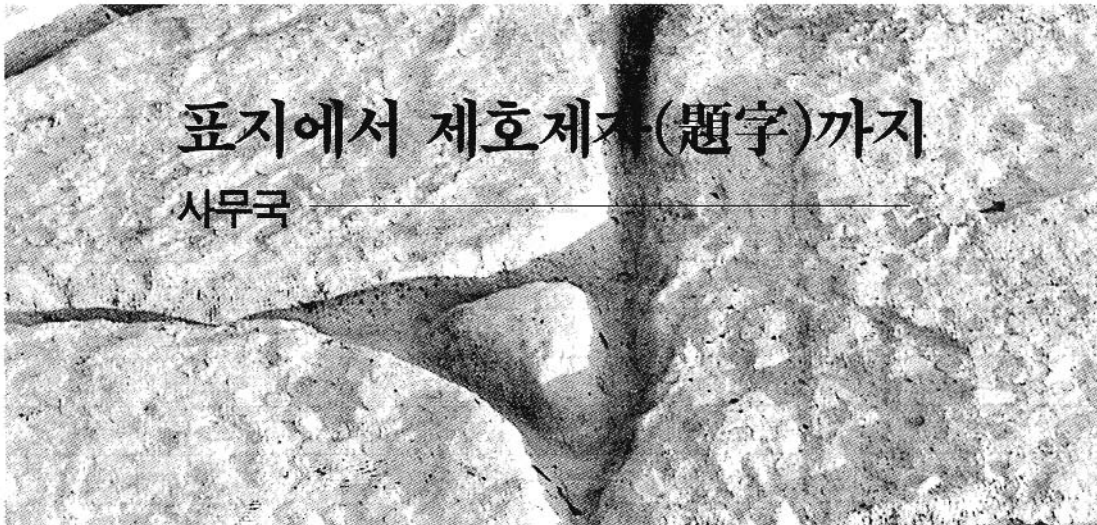
그러나 요즘은 그 때와 시대가 많이 다르다. 아무리 사진 재료값이 비싸졌다 하더라도 그 시절보다는 소득 수준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사진 공부에 투자하는 비중은 많이 낮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요즘은 사진 공부하기도 참 좋은 세상이다. 적은 액수의 투자를 하고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진 교재나 강좌가 많고 단체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경험 있는 사진 전문 인력들도 많다.

속초 환경사진 연구회가 지난 7월 열린 두 번째 전시회에서 각자의 주제를 정해 사진으로 이야기를 엮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두 번째 전시회 치고는 어려운 과제로 보여지기는 했으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봐도 좋을 만한 자리였다고 본다. 15번째를 맞고 있는 청봉사진동우회의 11월 정기 회원전 또한 한층 더 성숙된 솜씨들을 보여준 자리였다. 일부

에선 몇년 전부터 시도되었던 작업이긴 하지만, 개인이 한 가지 주제를 사진으로 엮어 표현해내는 연작사진류의 작품들이, 이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영상들이라면 이전 속초의 사진 작품들도 전국 어느 큰 도시에 내다놓아도 뒤지지 않을 수준들이라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사진 문화 발전에 몇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좋은 사진 찍어보겠다는 배우려고 나서는 2, 30대의 젊은 인재들이 좀 더 많이 나와주는 것과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부족한 여성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한 해에 평균 2번 이상의 그룹 전시를 해오면서 항상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나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나 참여가 적어 아쉬움이 컸었다. 앞으로 향토 문화의 더 큰 발전이 있을려면 관변에서 지원금이나 받아쓰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말없이 진정된 마음으로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찾아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에야 사진·영상인들의 활동이 더욱 신명나게 이루어 질 것임은 물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문화 생활 또한 윤택해지게 될 것이다.



표지에서 제호제자(題字)까지

사무국

풀숨을 펼쳐 놓은 것처럼 얇고 고운 구름결이 가득 찬 속초의 하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9일 개관한 속초향토사료전시관(東草鄉土史料展示館) 전경(시계방향으로)과 사료관에 설치된 조양동(朝陽洞) 청동기 시대 사적지(사적 376호) 집 모형과 생활상, 1951~1953년 수복에서 휴전 전후의 현재 중앙동 속초신협 부근에서 국민은행 속초지점 부근까지 당시 거리를 디오라마(diorama프)로 연출한 모습과 유적지 5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 구멍무늬토기(공렬문토기 孔列文土器)와 민무늬토기(無文土器) 등을 표지화로 꾸몄다.

어제(世宗御製) 훈민정음(訓民正音) 본문체로 바꾸었다. 지난 7월 편집 위원 회의에서의 제자 한글화제의가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 글꼴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목판본 훈민정음에서 집자(集字)한 것을 제자로 사용하기로 했다.

1984년 창간호에서

1997년 제13호까지



1998년 제14호부터

한글 제자로 교체

속초문화

• 목판본/훈민정음 글꼴 • 집자/박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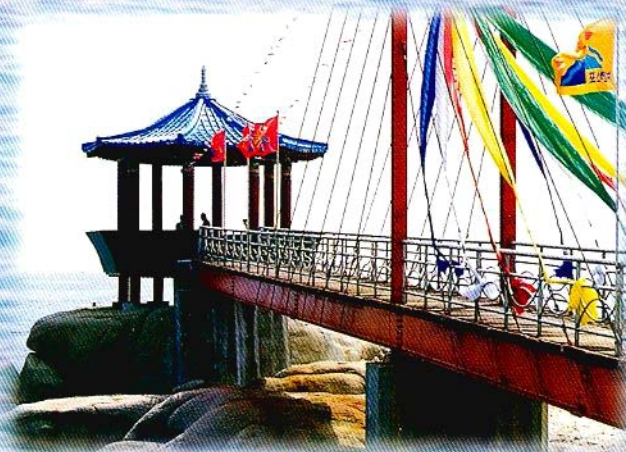
이번 14호부터 제호 제자(題號題字)를 세종

창간호에서 제13호까지 제호 제자로 이는 김철홍(金澈洪·전 속초고교 교장) 선생이 당시 속초여고 교감 재직시에, 친필을 받아 사용한 정들었던 서체이다.

속초문화재단이사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崔龍文	동명동 250-5 5/4	633-3969	633-3233	대일레미콘이사
부 원 장	李仁鐵	교동 동부A 102-1306		633-2177	영북지구함북도민회장
이 사	姜哲勳	영랑동 163 5/6	631-5675	632-0188	강동건설사장
	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속초고등학교 교사(전)
	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원장
	金鵬海	동명동 450-39 4/2	633-2021	633-3411	합동문화인쇄사사장
	金雲天	교동 현대1차A 104-202		631-0448	속초여고교장(전)
	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2	시의회과장(전)
	金喆燮	교동 현대1차A 103-1103		631-2292	영북지구함남도민회장
	金鎬應	동명동 250 5/4		633-3674	문화원사무국장(전)
	盧光福	중앙동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슈퍼대표
	董文星	동명동 450-22 4/4	633-3171	633-3721	속초시장
	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3-7168	633-3888	의료보험대표이사
	朴政基	도문동 177-1 4/5	636-7667	636-8738	기자유통상사대표
	安東燮	노학동 619-5 2/3	636-0955	632-0909	속초시기획실장(전)
	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대표
	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4014	설악유치원장
	李泰亨	동명동 523 10/3		633-3618	동우전문대교수
	林鎬成	노학동 159 1/2		633-2178	시의회의원(전)
	全福植	교동 삼환A 108-1004	(02)407-9520	631-7130	대우장회장
	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대표
	崔顯植	교동 664-164 2/2	(0396)672-2448	633-2632	낙산사기획실장
감 사	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2-8859	교육행정자문위원
	崔泓順	동명동 469-33 9/2		633-3671	행정동우회부회장
문화재연구소장	朴永道	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 C-805	632-1231	632-4913	향토사연구위원
간 사	張銀善	교동 나하나2차A 301호	632-1231	633-2253	
사 료 관 기 사	崔捧河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2-1231	631-5298	
			635-8827	635-8428	

'97년 4월 착공~'98년 8월 완공 영금정과 해돋이정자



영금정(靈琴亭)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표기될 정도의 절경임을 '해돋이정자'에 서서야 비로소 알겠다. 아름다운 전설까지 품고 멀리 '새섬鳥島'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이며 성황봉(城隍峰)에 등대를 끼느리는 동명동(東明洞) 일번지로서 손색이 없다.

즐비한 횃집이며 해조음에 암벽을 끼고 에돌아 가는 길의 영금정, 전설로서나 토박이 주민들이 말하는 실재(實在) 정자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속초 관광에 있어 또 하나의 유형 관광 자원의 탄생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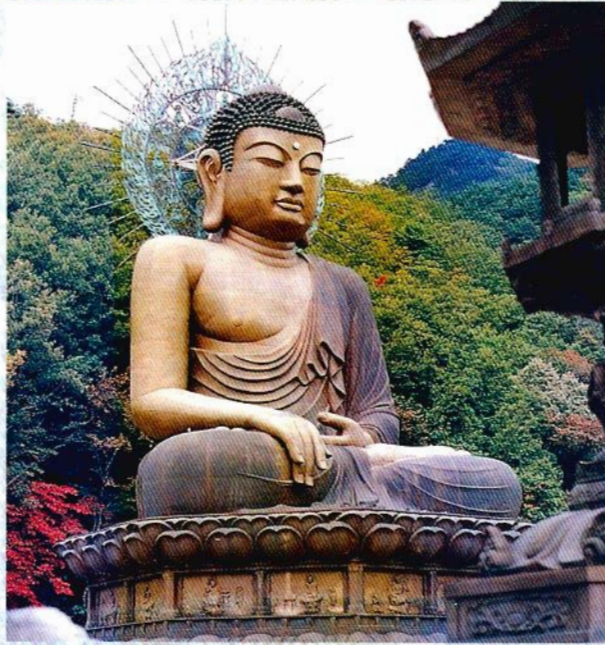
정자의 규모를 보면 솟은 암반에 앉힌 면적 12평으로 높이 8.50m, 기단 9각으로 8각형 정자이다. 정자까지 길이 57m, 폭 2m의 연결교가 정자와 함께 잘 아우러지는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1997년 4월 착공하여 '98년 8월 완공한 범고장신(法古創新)의 정자이다.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

雪嶽山 新興寺 統一大佛



석가모니부처님을 형상화한 설악산 신흥사 통일청동 대불좌상(統一靑銅大佛坐像)은 거불(巨佛)로서 설악에 나투어 대자대비로 분단의 아픔을 안았다.

불사(佛事) 10년 끝에 1997(불기 2541)년 10월 25일 점안대법회를 가졌다. 좌대 높이 4.3m, 대불 높이 14.6m, 좌대 직경 13m, 아파트 6층 높이에 1백8톤의 청동이 사용되었으며 8면 좌대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십육 나한상(十六羅漢像)이 돌을새김으로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20세기 불상양식으로 기록될 대불은 특히 10cm의 인조 큐빅 1개와 8cm짜리 8개로된 미간 백호는 중생계의 무명을 밝혀주듯 찬란한 광채를 발광한다.

복장 유물로는 1992년 미얀마 정부가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와 다라니경, 칠보 등이 봉안되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雪嶽山新興寺)

우217-120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0392)636-7044 전송 0392)636-7556

주지 金度吼